



세종시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IV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과 함께 새롭게 계승해야 할 전통시대 마을과 성씨의 역사 세종시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이 책에서는 세종시 조치원읍과 충청북도 청원군 에서 새로 편입되어 신설된 부강면 마을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왔으며, 주민들은 언제부터 이곳에 정착해 살아왔고, 그동안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 보았다.

세종시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IV

조치원읍 부강면 보유편

조치원읍 · 부강면 · 보유편

세종문화원



세종문화원

세종시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IV)

- 조치원읍 · 부강면 · 보유편 -



조천변 벚꽃



백년의 역사를 지닌 대동초등학교



조치원 복숭아축제



금강에서 바라본 부강리



부강면사무소 비석군



보만정



남산명당



남이옹 묘소



세종시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IV

조치원읍
부강면
보유편

임선빈 외



세종문화원

□ 발간사



4년 전에 시작된 마을의 역사와 토착 성씨에 대한 조사가 드디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고장은 본 사업이 시작될 때에는 충청남도의 작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연기군이었습니다만, 이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부러움의 대상인 세종특별자치시가 되었습니다.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많은 외지인이 이주해 오면서 세종시는 역동적인 고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고, 여전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고장 마을의 역사와 토착 성씨들에 대한 현황이 이제 4권의 책자에 예쁘게 담겨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가슴 뿌듯한 감회를 느낍니다.

그동안 연기군이 세종시로 바뀌었듯이 우리 문화원도 연기문화원에서 세종문화원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결과물 또한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업은 충청남도 연기군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I · II로 출간하였고, 3차년도와 4차년도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이후이기 때문에 『세종시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III · IV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서명은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바뀌었지만, 4권의 책자에 일련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연기군과 세종시의 연속성을 드러내게 된 듯 합니다.

이번 4차년도 책자는 조치원읍과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부강면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외에 세종시 출범과 함께 공주시 반포면에서 금남면으로 편입되어 1차년도의 금남면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

던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2013년 7월 1일에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전 지역에 대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4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한식 전 연기군수·세종시장님, 이춘희 현 세종시장님, 그리고 연기군청과 세종시청의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을 처음 기획하고 4년간 행정적인 절차를 주도해온 우리 문화원의 길미숙 사무국장의 노고도 치하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4년간에 걸쳐서 현지조사를 주도하고 집필을 해온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임선빈 박사가 아니었다면 이와 같은 학술적인 성과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나아가 현지조사에 함께 참여한 강현숙, 남정환, 윤윤희 향토사가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 강정현 전 향토사연구소장님과 황우성 현 향토사연구소장님, 배정수·곽창록 향토사가님, 류근우 장군면 노인회장님을 비롯하여 자료를 기꺼이 제공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 각 문중 어른신의 도움도 컸습니다. 끝으로 네 권의 책을 예쁘게 꾸며주신 흥기원 민속원 사장님과 직원들에게도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의 조사사업 결과가 세종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주민들의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20일
세종문화원장 임영이

□ 머리말



고고한 평음을 올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연기군 시절의 조용했던 시골 마을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특별자치시가 되었다. 지역 주민들의 삶도 매일 매일 역동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수 백년 전부터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원주민보다 새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이주민이 많아지고 있다. 자칫 세종시의

역사와 지역 정체성이 표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본 조사는 세종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이 그동안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 왔으며,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언제부터 이곳에 정착해 살아 왔고, 그동안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핀 것이다. 이번의 4차년도 조사사업은 그동안 3년간에 걸쳐서 진행한 ‘세종시(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조사사업을 마무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종전의 연기군 조치원읍과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부강면 지역, 공주시 반포면에서 세종시 금남면으로 새로 편입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필자는 2014년 6월에 세종문화원으로부터 본 사업을 의뢰받아 12월까지 문헌조사와 현지 조사 및 원고 집필을 진행했다. 이번에도 현장조사는 필자의 책임하에 세종시 향토사가로 세종시(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1·2·3차년도의 조사에 참여했던 강현숙, 남정환 조사위원과 1차년도에 조사에 참여했던 윤윤희 조사위원이 함께 했다.

문헌조사는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구총수』 등 조선시대 지리지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등 일제강점기의 자료, 『한국지명총람』(충청남도편, 충청북도편), 『연기군 충·효·열 유적』, 『연기군지』에 수록되어

있는 ‘연기지역의 성씨’, 『조치원읍지』 등을 주로 참조하였다.

현지조사는 30여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조사팀은 조치원읍 일원을 먼저 조사하고 부강면 일원을 조사하였으며, 반포면에서 세종시 금남면에 편입된 마을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현지조사일지를 매일매일 작성했다. 마을의 성씨조사에는 마을 주민들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자료 제공과 족보 열람 등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셨다. 특히 부강면 지역의 조사는 이곳에 오래 사시면서 지역 사정에 해박하신 광창록 향토사위원장께서 함께 다니면서 관련 문중 인사를 섭외하고 안내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셨다. 도움을 주신 분들의 명단은 이 책의 말미에 수록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3년 7월 1일에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1읍 9면 3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14년에 연기군(현)과 전의군(현)이 합쳐진 연기군이 출범할 때 공주군(목)의 삼기면 명탄면 양야리면 등이 연기군에 편입된 바 있는데, 이제 다시 종전의 공주시 장기면과 의당면(일부), 반포면(일부), 청원군의 부용면(대부분) 등이 편입되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종시의 지역(市域)은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행정 범위가 끊임없이 확대되어온 과정이라 볼 수 있겠다. 그동안 4년에 걸친 세종시 지역의 마을과 성씨에 대한 조사 작업이 앞으로 세종시 역사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 확인, 세종시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조사와 집필이 진행되는 동안 세종문화원 임영이 원장님과 길미숙 사무국장을 비롯한 문화원 가족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4년 12월 20일

임 선 빈

□ 목차

발간사	12
머리말	14

제1장 조사지역 개관 / 19

제2장 조치원읍의 터전과 뿌리 / 25

조치원읍 교리	34	조치원읍 신안리	93
조치원읍 남리	36	조치원읍 신흥리	109
조치원읍 명리	38	조치원읍 원리	119
조치원읍 번암리	41	조치원읍 정리	123
조치원읍 봉산리	46	조치원읍 죽림리	125
조치원읍 상리	87	조치원읍 침산리	129
조치원읍 서창리	90	조치원읍 평리	133

제3장 부강면의 터전과 뿌리 / 139

부강면 갈산리	145	부강면 문곡리	176
부강면 금호리	152	부강면 부강리	193
부강면 노호리	165	부강면 산수리	208
부강면 등곡리	172	부강면 행산리	210

제4장 보유편 /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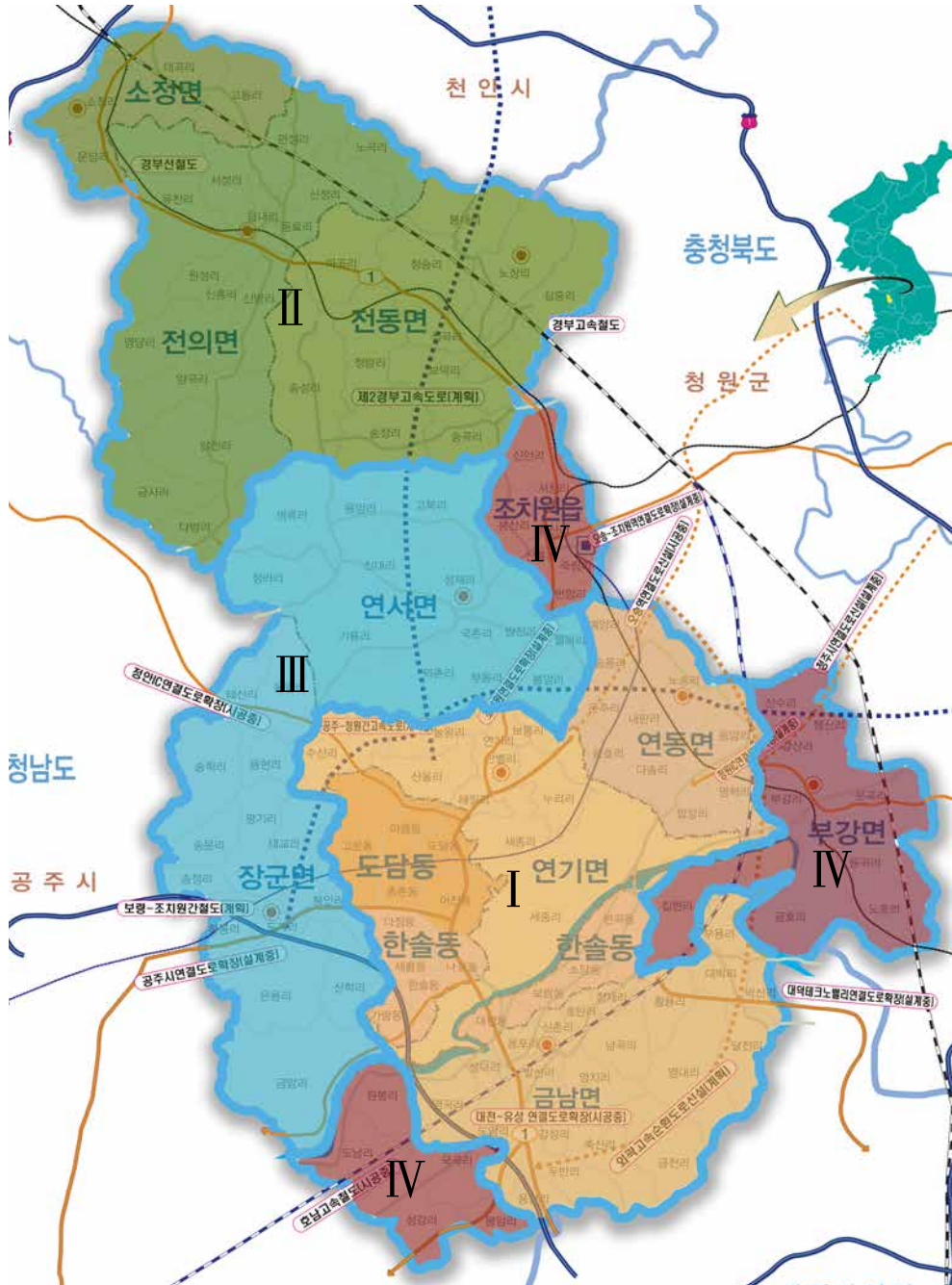
금남면 국곡리	217	금남면 원봉리	242
금남면 도남리	219	금남면 집현리	247
금남면 봉암리	221	전동면 심중리 보성오씨	248
금남면 성강리	225		

참고문헌	251
도움을 주신 분	252
조사후기	253

제1장 조사지역 개관



연차별 조사구역



조사지역 개관



『세종시터전의 뿌리를 찾아서』Ⅳ는 4년간에 걸쳐 진행된 세종시(연기군) 지역 마을과 성씨조사 사업의 마무리 작업이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기 전에 연기군의 금남면·남면·동면, 진의면·전동면·소정면을 2년간에 걸쳐 조사하여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Ⅰ·Ⅱ를 출간하였고,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에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장군면을 조사하여 『세종시터전의 뿌리를 찾아서』Ⅲ을 출간한데 이어, 이번에는 조치원읍과 부강면의 마을과 성씨들이 주된 조사 대상이다.

조치원읍은 조선시대에 연기현과 청주목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이다. 조선후기 면리제를 살펴보면 연기현 북일면의 죽내리竹內里, 침산리砦山里, 신동리薪洞里, 토흥리土興里, 번암리礮巖里 등과 청주목 서강외일면의 평리坪里가 오늘날의 조치원읍과 관련이 있다.

조치원읍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지정면’인 조치원면으로 신설되어, 1931년에 읍으로 승격된 곳이다. ‘조치원’이라는 명칭은 일찍이 18~19세 기에도 관영 숙박시설인 원院을 지칭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면리面里의 명칭으로 사용된 것은 20세기에 이르러서의 일이다. 1905년의 ‘조치원역’에 이어, 1914년에 북면 ‘조치원리’가 등장하였고, 1917년 10월 1일

에는 북면에서 분리된 지정면인 ‘조치원면’이 등장한 것이다.

이후 1930년대의 지방제도 전면 개정시 지정면이었던 조치원면은 조치원읍이 되었으며, 1940년 7월에는 조치원리를 9개리로 분할하고, 서면 관할의 번암리, 신동리, 내창리, 동리 등 4개리를 조치원읍에 편입하면서 마을 이름을 일본식으로 개칭하였다. 당시 조치원읍의 마을은 본정 1정목本町一丁目, 본정 2정목本町二丁目, 소화정昭和町, 길야정吉野町, 영정榮町, 옥정旭町, 적송정赤松町, 궁하정宮下町, 신흥정新興町, 죽림정竹林町, 번암정礮岩町, 신안정新安町, 봉산정鳳山町, 서창정瑞倉町 등의 14개로 구성되었다. 조치원읍의 14개 마을은 광복 후인 1947년에 정町을 동洞으로 고치면서 교동 남동 명동 반암 봉산 상동 서창 신안 신흥 원동 정동 죽림 침산 평동의 14개 마을이 되었고, 1988년 5월 1일에는 동洞을 리로 개정함으로써, 오늘날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14개 법정동리가 되었다.

부강면 지역은 조선시대에 연기현 문의현 청주목의 경계에 위치한 곳으로, 주로 문의현 삼도면에 속해 있었다. 조선후기 문의현 삼도면三道面은 모두 8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가운데 등동리登洞里, 매포리梅浦里, 검담리黔潭里, 오룡대리五龍臺里, 달산리達山里 등이 오늘날의 부강면과 관련이 있으며, 청주목에 속해 있던 마을 가운데에는 남차이면南次二面의 19개리 가운데 행산리가 부강면과 관련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는 군면 폐합에 따라 문의군文義郡 삼도면의 상외천, 하외천, 상삼리, 문곡, 호계, 자창, 달산, 남성, 유평, 구평, 도중, 대산, 신대, 신동, 대룡, 소룡, 동촌, 오대, 상검, 하검, 백운, 원촌, 조은, 등동, 노포, 매포, 마포의 27개 동리와 북면의 죽암리 일부, 이도면의 등동을 병합하여 외천리, 문곡리, 부강리, 검호리, 등곡리, 노호리의 6개리로 개편하고 청주군 부용면으로 삼았다. 이후 부용면은 1949년에 청주군에서 청원군으로 편제되었으며, 1973년 7월 1일에는 남이면의 행산리·산수리가 부용면에 편입되었고, 1995년 3월 1일에는 연기군 동면 갈산리 일원이 부

용면에 편입되어 9개리가 되었다. 2012년 7월 1일에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부용면 9개리 중 외천리를 제외한 나머지 8개리가 부강면으로 편제되어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었다.

그리하여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은 8개의 법정리와 31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8개의 법정리는 갈산리, 금호리, 노호리, 등곡리, 문곡리, 부강리, 산수리, 행산리 등이며, 행정리는 부강1리~15리, 행산1리~2리, 산수리, 문곡1리~3리, 등곡1리~3리, 노호1리~2리, 금호1리~3리, 갈산1리~2리 등의 31개 마을이다. 2012년 6월까지 31개의 행정리는 모두 청원군 부용면에 속해 있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종전의 공주시 장기면과 의당면 일부가 장군면으로 편제되어 세종시에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종전의 공주시 반포면의 국곡리 도남리 봉암리 성강리 원봉리 등이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장군면은 제3권에서 다루었지만, 반포면에서 금남면으로 편입된 마을은 금남면 지역이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 간행된 제1권의 조사대상이었기 때문에 누락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이지역과 제2권의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성씨인 전동면 심중리 보성오씨를 추가로 조사하여 제4장의 보유편에 수록하였다.

제2장 조치원읍의 터전과 뿌리



조치원읍의 터전과 뿌리



조치원읍은 조선시대에 연기현과 청주목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이었다. 조선후기 면리제에 의하면, 연기현 북일면과 청주목 서강외일면이 오늘날의 조치원읍과 관련이 있다.

연기현 북일면은 『여지도서』를 통해 확인해 보면, 월곡리月谷里, 죽내리竹內里, 죽림리竹林里, 진포리眞浦里, 만포리滿浦里, 흑암리黑巖里, 화산리華山里, 침산리砧山里, 신동리薪洞里, 토옥동리土沃洞里, 토흥리土興里, 번암리礮巖里 등 모두 12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죽내리, 침산리, 신동리, 토흥리, 번암리 등이 오늘날의 조치원읍에 포함된다. 이들 5개리의 연기현 치소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편호, 남녀 호구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죽내리(竹內里) - 10리, 편호 22호, 남자 47구, 여자 59구
- 침산리(砧山里) - 18리, 편호 55호, 남자 115구, 여자 127구
- 신동리(薪洞里) - 20리, 편호 120호, 남자 201구, 여자 189구
- 토흥리(土興里) - 20리, 편호 16호, 남자 39구, 여자 31구
- 번암리(礮巖里) - 10리, 편호 5호, 남자 3구, 여자 9구

또한 청주목 서강의일면은 『여지도서』 방리조의 36개리 가운데 평리가 조치원읍과 관련이 있는데, 조선후기 평리坪里는 청주목 치소 관문으로부터 서쪽으로 40리에 위치하며, 편호는 65호, 남자는 86구, 여자는 87구였다.

반면에 『호구총수』의 연기현 북일면에는 월곡리, 번암리, 황조동리黃鳥洞里, 직포리直浦里, 죽림리, 만포리, 흑암리, 침송리砧松里, 월암리月巖里, 화산리, 신동리, 토옥리, 내창리內倉里, 낙은리樂隱里, 토흥리, 상동上洞, 백현리百峴里 등 17마음이 수록되어 있어서, 여지도서의 북일면에 비해 마을의 수가 5개 많다.

일제강점기에는 1914년의 군면 폐합에 따라, 북이면의 월계, 월하, 전동, 부곡, 신향, 원봉, 도산, 봉촌, 과성, 괴동, 괴촌, 동고, 서고, 상복, 하복, 쌍괴, 전당의 17개리와 충청북도 청주군 서강의 일하면의 옥동, 정중, 장대, 평리의 3개리를 편입하여 북면이라 하여, 월하, 고복, 쌍전, 신동, 반암, 죽내, 조치원, 내창, 동리의 10개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그 후 1917년 10월에는 월하, 성제, 고복, 쌍전, 신동, 반암, 죽내, 내창, 동리의 9개리를 서면에 넘겨주고, 그 나머지 조치원리로써 조치원면을 신설하여 지정면이 되었다.

조치원鳥致院이라는 지명은 1770년(영조 46)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 향시편에 ‘조치원장鳥致院場’이 등장하고, 1800년도의 『일성록』과 『승정원일기』에도 청주 경계 조치원 주점[淸州境鳥致院酒店]이라는 기록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아, 18세기에 이미 등장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조치원은 면리面里의 명칭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고, 관영 숙박시설인 원院으로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場院]이었다. 조치원의 지명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 개통에 따라 조치원역이 정식으로 운영되면서 부터이다. 나아가 1911년 연기군청이 연기리에서 조치원역 앞(북일면 침산리)으로 이전하였고, 1914년에는 종전의 청주군 장대리와 연기군 북면 침산리·신대리·백관리·평리·내창리 등의 6개리를 통폐합한

북면 조치원리가 신설되었다. 이 조치원리와 죽내리가 1917년 10월 1일에 북면에서 분리되어 지정면인 조치원면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정면’이란 무엇일까? 일제시대의 면제面制를 살펴보면, 면은 1913년에 어느 정도 독자적인 사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았고, 1917년에 제령 제1호 면제面制에 의하여 지방세·수수료 징수권 및 기채권을 인정받고, 특히 총독이 지정하는 이른바 ‘지정면’에는 면장의 자문기관이 설치되었다.

일제가 1917년에 공포한 ‘면제’의 조선면제에서는 특히 ‘내선인 거주 및 호구 집단의 상황과 공공시설을 참작하여’ 이른바 ‘상담역’을 둘 만한 면을 ‘지정면’으로 정하고 이를 특별관리 하였다. 이 지정면은 사업능력이 인정되어 지방공공업무의 폭이 넓어졌으며 아울러 호별할·지세할·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기채 등 자체 재원조달능력이 강화되었다. 즉 총독부는 일본인이 밀집 거주하는 면을 지정면으로 정한 뒤, 일본인 면장과 상담역(도장관 임명)을 두었으며, 지정면에 한하여 기채도 허용하였다. 그런데 당시 종전 북면의 조치원리와 죽내리가 조치원면으로 신설되어 지정면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 시기 조선총독부가 지정면으로 정한 면은 23개 중소도시였는데, 도청 소재지인 청주, 공주, 전주, 광주, 진주, 해주, 의주, 춘천, 함흥, 군사도시인 진해, 나남, 회령, 철도 연변 도시인 영등포, 수원, 송도(개성), 대전, 강경, 조치원, 김천, 익산(이리), 어항 도시로서 일본인이 다수 거주한 포항, 통영(총무), 종전의 개항장인 성진 등이 그것이었다. 지정면은 대부분 일본인 거주자가 250호 이상인 면 또는 일본인이 전체 주민의 30% 이상인 면 등이었다고 한다. 총독부는 이들 면을 지정면으로 정한 뒤, 상하수도 전등 가로망 등 도시 기반 시설을 갖추는 데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다.

부제와 지정면제를 통해 일본인 거류민들을 지방행정기구 내부로 포섭한 이후 총독부는 1920년부터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했다. 1920년에는 1차 지역제도 개혁에 의거, 지정면은 선거제에 의하여 보통면은 임명제로 자

문기관인 면협의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니까 지정면의 요건으로는 일본인이 많고 재력이 풍부하며 비교적 도시적인 곳으로서, 주로 상공업지대로 공공시설을 많이 요하는 곳, 호구 1500 이상으로 그 중 2분의 1 이상이 집단하여 있는 곳, 협의회 선거권을 가진 자가 수백 이상인 곳, 면부과금을 1호 평균 7원 이상 부담할 수 있는 곳 등이었다. 1920년 당시 이러한 지정면은 24개면이었는데, 조치원면도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1930년대의 지방제도 전면 개정시에는 종래의 지정면은 읍이 되고, 보통면은 면으로 남았으며, 읍에 의결기관으로서의 읍회, 면에 자문기관으로서의 면협의회가 설치되었다. 우선 1930년 12월에는 개정지방제도가 공포되면서 확대되었는데, 그 골자는 지정면 대신 읍을 신설하여 부면제를 부읍면제로 바꾼 것, 읍도 부와 마찬가지로 공법인화한 것, 부회와 읍회가의 의결기관화한 것, 이원적으로 운영되던 학교조합과 학교평의회를 부에 한하여 부회와 합친 것, 도지방비령을 폐지하고 새롭게 일종의 공법인인 도회를 설립한 것 등이었으나, 부 읍회의 실질적 권한은 이른바 부윤이나 읍장의 감독제도에 의해 크게 제약되었다. 개정된 지방자치제는 부윤과 읍장에게 부읍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재심권이나 취소권은 물론이고 회의 자체의 해산권도 부여하였다.

지정면이었던 조치원면도 1931년에 총독부령으로 공포된 읍면제에 의하여 1931년 4월 1일 조치원읍으로 승격되었다. 1940년 7월에는 조치원리를 9개리로 분할하고, 서면 관할의 번암리, 신동리, 내창리, 동리 등 4개리를 조치원읍에 편입하면서 마을 이름을 일본식으로 개칭하였다. 당시 조치원읍의 마을은 14개로 구성되었으며, 리를 정町으로 고친 마을 이름은 본정 1정목本町一丁目, 본정 2정목本町二丁目, 소화정昭和町, 길야정吉野町, 영정樂町, 옥정旭町, 적송정赤松町, 궁하정宮下町, 신흥정新興町, 죽림정竹林町, 번암정礮岩町, 신안정新安町, 봉산정鳳山町, 서창정瑞倉町 등이었다.

광복 후인 1947년에는 정町을 동洞으로 고쳐서, 조치원읍 14개 마을은 교

동, 남동, 명동, 반암, 봉산, 상동, 서창, 신안, 신흥, 원동, 정동, 죽림, 침산, 평동이 되었다. 1988년 5월 1일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거하여 마을행정 구역 명칭을 동洞에서 리里로 개정함으로써, 조치원읍의 마을 명칭도 변경되어 교리, 남리, 명리, 반암리, 봉산리, 상리, 서창리, 신안리, 신흥리, 원리, 정리, 죽림리, 침산리, 평리가 되었다. 이 동리명은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도 그대로 조치원읍의 14개 법정동리를 구성하고 있다.

조치원읍의 마을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조치원읍 마을 변천

	마을명	조선후기	일제강점기	1947년	1988년	2012년
1	교리		연기군 북일면 지역[별관] → (1914)북면 조치원리 → (1917)조치원면 조치원리 → (1931)조치원읍 조치원리 → (1940)조치원읍 길야정(吉野町)	연기군 조치원읍 교동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세종시 조치원읍 교리
2	남리		연기군 북일면 지역[별관] → (1914)북면 조치원리 → (1917)조치원면 조치원리 → (1931)조치원읍 조치원리 → (1940)조치원읍 적송정(赤松町)	연기군 조치원읍 남동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세종시 조치원읍 남리
3	명리		연기군 북일면 지역[별관] → (1914)북면 조치원리 → (1917)조치원면 조치원리 → (1931)조치원읍 조치원리 → (1940)조치원읍 옥정(旭町)	연기군 조치원읍 명동	연기군 조치원읍 명리	세종시 조치원읍 명리
4	반암리	[여지도서] 반암리(礮巖里) 연기현 치소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10리, 편호 5호, 남자 3구, 여자 9구 [호구총수] 반암리	연기군 북일면 지역[반암] → (1914)북면 반암리 → (1917)서면 반암리 → (1939)조치원읍에 편입 → (1940)조치원읍 반암정(礮岩町)	연기군 조치원읍 반암동	연기군 조치원읍 반암리	세종시 조치원읍 반암리
5	봉산리	[여지도서] 토흥리(土興里) 연기현 치소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20리, 편호 16호, 남자 39구, 여자 31구 [호구총수] 낙은리(樂隱里), 토흥리	토흥부곡 소재지[동이, 동리] +저촌리, 낙원리, 은동의 일부 → (1914)북면 동리 → (1917)서면 동리 → (1939)조치원읍에 편입 [조치원읍 봉산정(鳳山町)]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동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리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6	상리		연기군 북일면 지역(별판) → (1914)북면 조치원리 → (1917)조치원면 조치원리 → (1931)조치원읍 조치원리 → (1940)조치원읍 본정 일정목 (本町一丁目)	연기군 조치원읍 상동	연기군 조치원읍 상리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
7	서창리	[호구총수] 내창리(內倉里), 낙 은리(樂隱里)	연기군 북일면 지역(내창, 서곡리, 낙은리 일부)+충북 청주군 서강의 일하면 장대리 평리 각 일부 → (1914)북면 내창리 → (1917)서면 내창리 → (1936)조치원읍 서창정(瑞倉町) [조치원읍 편입]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동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리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
8	신안리	[여지도서] 신동리(薪洞里) 연기현 치소 관문으로부터의 거 리 20리, 편호 120호, 남자 201 구, 여자 189구 [호구총수] 신동리	연기군 북일면 지역(쌀골)석골, 신 동+충북 청주군 서강의 일하면 옥 동 정중리 장대리 각 일부 → (1914)북면 신동리 → (1917)서면 신동리 → (1936)조치원읍 신안정(新安町) [조치원읍에 편입]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동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9	신흥리		연기군 북일면 지역(별판) → (1914)북면 조치원리 → (1917)조치원면 조치원리 → (1931)조치원읍 조치원리 → (1940)조치원읍 신흥정(新興町)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동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
10	원리		연기군 북일면 지역(별판) → (1914)북면 조치원리 → (1917)조치원면 조치원리 → (1931)조치원읍 → (1940)조치원읍 본정 2정목 (本町二丁目)	연기군 조치원읍 원동	연기군 조치원읍 원리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
11	정리		연기군 북일면 지역(별판) → (1914)북면 조치원리 → (1917)조치원면 조치원리 → (1931)조치원읍 조치원리 → (1940)조치원읍 영정(榮町)	연기군 조치원읍 정동	연기군 조치원읍 정리	세종시 조치원읍 정리
12	죽림리	[여지도서] 죽내리(竹內里) 연기현 치소 관문으로부터의 거 리 10리, 편호 22호, 남자 47구, 여자 59구	연기군 북일면 지역(죽안)죽안, 죽 내 → (1914)북면 죽내리 → (1917)서면 죽내리 → (1939)조치원읍 죽림정(竹林町) [조치원읍에 편입]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동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

13	침산리	[여지도서] 침산리(砧山里) 연기현 치소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18리, 편호 55호, 남자 115구, 여자 127구 [호구총수] 침송리(砧松里), 내창리(內倉里)	연기군 북일면 지역신대리, 백관리, 내창리의 각 일부+충북 청주군 서강의 일하면 장대리 평리의 각 일부 → (1914)북면 침산리 → (1917)조치원면 침산리 → (1931)조치원읍 침산리 → (1940)조치원읍 궁하정(宮下町)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동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
14	평리	[여지도서] 평리(坪里) 청주목 치소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40리, 편호 65호, 남자 86구, 여자 87구	충북 청주군 서강의 일하면 지역별말, 평리 → (1914)연기군 북면 조치원리 → (1917)조치원면 조치원리 → (1931)조치원읍 조치원리 → (1940)조치원읍 소화정(昭和町)	연기군 조치원읍 평동	연기군 조치원읍 평리	세종시 조치원읍 평리

조치원읍 교리



조치원읍 교리는 20세기 이전에는 본래 연기군 북일면 지역으로 별판이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북면 조치원리의 일부를 구성하였는데, 조치원리는 1917년에 조치원면이 신설되면서 조치원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조치원면은 1931년에 조치원읍이 되었고, 나아가 이 지방이 갑자기 번창해짐에 따라 1940년에 조치원리가 나뉘어지면서 이 지역은 조치원읍 길야정(吉野町)이라 하였다. 광복 이후인 1947년에 왜식 동명 변경으로 정(町)이 동(洞)으로 바뀔 때

학교의 중심지이므로 교동(校洞)으로 하였다가 1988년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가 되고, 다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리가 되었다.

교리는 조치원읍의 중앙에 위치하며 동쪽은 평리, 남쪽과 서쪽은 원리, 북쪽은 내창천이 있는 마을이다. 조치원 읍사무소 소재지이고, 세종문화원이 있으며, 교동초등학교, 조치원여중, 보건소 우체국 등이 있다. 조치원시장 조치원역과도 가까워 교통의 요지이며, 조치원에서 가장 변화가인 명동골목이라 불리는 골목이 있다. 1950~60년경에는 교육청, 연기군청, 왕성극장, 전화국 등이 자리잡고 있었던 읍의 중심지였다.



1	2
3	

- 1 교리, 조치원읍사무소의 현재 모습
- 2 세종문화원 거리
- 3 세종문화원과 세종시민회관

조치원읍 남리



조치원읍 남리는 20세기 이전에는 본래 연기군 북일면 지역으로 별판이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북면 조치원리의 일부를 구성하였는데, 조치원리는 1917년에 조치원면이 신설되면서 조치원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조치원면은 1931년에 조치원읍이 되었고, 나아가 이 지방이 갑자기 번창해짐에 따라 1940년에 조치원리가 나뉘어지면서 이 지역은 조치원읍 적송정赤松町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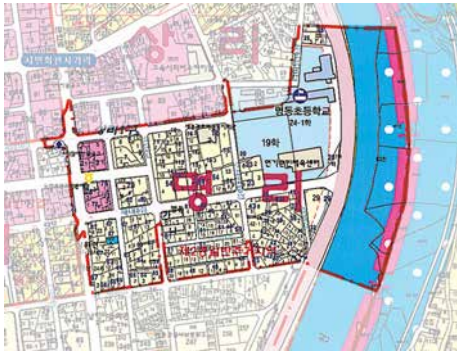
광복 이후인 1947년에 왜식 동명 변경으로 정町이 동洞으로 바뀔 때 조치원 남쪽에 위치하였으므로 남동南洞으로 고쳤다가, 1988년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가 되었으며, 다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남리로 변경되었다.

남리는 읍의 동부 남단부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은 조천천, 남쪽과 서쪽은 경부선 철도, 북쪽은 정리, 명리와 연결한 마을이다. 지대가 낮고 조천과 인접하여 배수장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예전에는 우시장과 연근을 키우는 연평이 있었다.



- | | |
|---|-------------|
| 1 | 1 남리 |
| 2 | 2 김병대동장 공적비 |

조치원읍 명리



조치원읍 명리는 청주목(郡) 서강의 일하면 서평리 지역으로 조천이 굽이쳐 흐르는 하상지역이었다. 1926년 조천제방이 축조되면서 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1928년 충북 서평리에서 충남 조치원면 조치원리에 속하였다. 조치원리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기군 북면 조치원리로 등장한 곳이다. 당시의

북면 조치원리는 종전의 연기군 북일면 침산리, 신대리, 백관리, 내창리(일부), 충북 청주군 서강의 일하면 장대리(일부)와 평리(일부)가 합쳐져서 조치원리가 된 것이며, 북면의 면 소재지였다. 이 조치원리는 다시 1917년에 조치원면이 신설되면서 조치원면에 편입되어 조치원면 조치원리가 되었으며, 1928년에는 충북 서평리까지 조치원리에 속하게 된 것이다.

이후 조치원면은 1931년에 조치원읍이 되었고, 나아가 이 지방이 갑자기 번창해짐에 따라 1940년에 조치원리가 나뉘어지게 되었고 이 지역은 조치원읍 옥정(旭町)이라 하였다. 옥정은 광복 이후인 1947년에 왜식 동명 변경으로 정(町)이 동(洞)으로 바뀔 때 광명을 주는 조치원 변전소(명리 29번지 일원)가 있으므로 명동(明洞)으로 고쳤다. 1988년에는 연기군 조치원읍 명리가 되었다가,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명리가 되었다.



명리

명리의 위치는 읍의 중앙부 동단에 있으며, 동쪽은 조천천과 오송읍 서평리, 남쪽은 남리, 서쪽은 정리, 북쪽은 상리와 연결해 있다. 명동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곳은 1926년 공설운동장이 있던 곳이다. 명동초등학교 남동쪽에 변전소가 있었고, 일제강점기 때 소나무에서 채취한 광솔로 기름을 제조하던 송탄유공장이 있었다. 동쪽에 새로 이룩된 마을을 새뜸이라 한다.

조치원읍 번암리는 반암동(礮岩洞(반암, 반암리))으로 부르던 마을이다. 조선시대에는 본래 연기군 북일면 지역으로 뒷산에 반석이 있으므로 반암이라 하였다. 『여지도서』에는 연기현 북일면 방리조에 번암리(礮巖里)가 수록되어 있는데, 연기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10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마을의 규모가 편호 5호, 남자 3구, 여자 9구라고 하였다. 번암리라는 마을 이름은 『호구총수』에도 등장한다.



조사대상 침주한씨, 부안임씨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는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북면 반암리라 하였다가, 1917년 조치원면이 신설되면서 서면에 편입되었고, 다시 1939년 12월에 조치원읍에 편입되어 반암정(礮岩町)이라 하였다. 서면에 속해 있던 1921년부터 1940년까지는 서면 면사무소 소재지이기도 하였다.

광복 이후인 1947년에 왜식 동명 변경으로 정(町)이 동(洞)으로 바뀔 때 반암정을 반암동으로 고쳤다. 그리고 다시 1988년 동을 리로 고쳐서 번암리라 하였다가 2012년 7월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가 되었다.

번암리는 조치원 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은 죽림리, 남·서쪽은 월하리, 북쪽은 죽림리와 연결해 있다. 반암 안쪽에 있는 마을로 안동리, 안말, 내동으로 불리는 곳과 산지기의 집이 있던 곳인 반암 동쪽 마을로 산



번암리 마을사진

직말, 또는 산정말이라 부르는 곳, 큰길가 주막이 있던 곳으로 주막거리라 부르는 마을 등으로 형성되어있다. 마을에는 천석지기가 살았던 집이라는 큰 기와집이 있고 명당자리가 있는데, 그 위치는 안동네 기와집 아래 쪽이라 한다.

번암리 청주한씨 송재 문정공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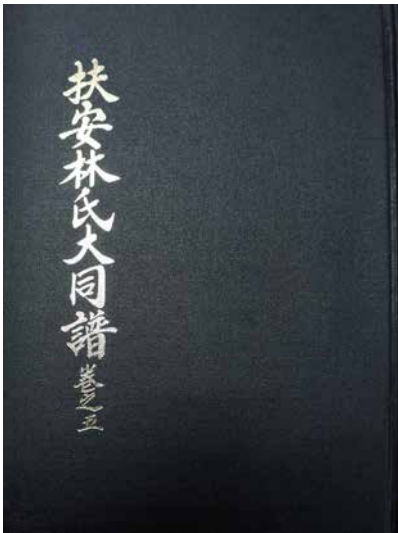
번암리에 살고 있는 청주 한씨들은 6대조인 한복^{韓宓}이 입향조라고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족보상으로는 한복 이후의 묘소 위치가 동면 노송리, 남면 고정리, 서면 월하리, 전동면 등에 보여 확인이 애매하다. 그러나 후손의 기억과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6대조부터 번암에 살았지만 선산이 없었던 관계로 묘소를 주변의 여러 지역에 쓸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청주한씨는 조선초기 이전부터 청주의 토성이었다. 또한 연기지역은 일부가 오랫동안 청주에 속해 있었다. 송재^{松齋} 문정공^{文貞公}은 15세기말 중종연간에 활동한 한층을 지칭하는데, 현재 그의 묘소가 연서면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한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서경(恕卿), 호는 송재(松齋). 청주 출생이며 호군(護軍) 자강(自強)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감찰 지(智)이고, 아버지는 주부 창유(昌愈)이며, 어머니는 교위(校尉) 강철손(姜哲孫)의 딸이다. 1510년(중종 5) 생원이 되고, 1513년 별시문과에 장원급제, 전직에 등용된 뒤 정언·이조정랑·응교를 역임하였다. 1518년 종계변무(宗系辨誣: 조선왕이 고려의 충신 李仁任의 후예라고 기록된 명나라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해명)을 위한 주청사(奏請使) 남곤(南袞)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명나라에 갔으나 남곤과 의견이 충돌하여 그의 미움을 받았다. 1519년에 전한을 거쳐, 직제학·동부승지·좌승지를 역임하였다. 1520년 충청도수군절

도사로 재임중에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그가 평소에 조광조(趙光祖)와 교유하였다 하여 거제로 유배되었다. 1521년 신사무옥이 일어나자 그의 자가 황서경(黃瑞慶)이라는 자의 이름과 ‘음(音)’이 같아 남곤의 책략으로 투옥되었다가 중종의 친국 후 풀려났으나 남곤이 보낸 하수인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율려(律呂)·음양(陰陽)·천문·지리·복서(卜筮)에 능하였다. 뒤에 신원되어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저서로는 『송재집』이 있다.

현재 번암리에 한복韓祕의 직계 후손은 살고 있지 않다. 방계 후손이 살고 있는데 입향 연유는 일가를 찾아서 들어 온 것이라고 한다. 문헌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9대조부터 이미 연서면 월하리에 묘소의 위치가 보이고 주변 곳곳에 묘소의 위치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래 전부터 연기지역으로 흩어져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번암리 부안임씨 족보

번암리 부안임씨 ●●●

번암리 부안임씨는 150여년 터전을 이루었다는 전언이 있다. 그러나 확인할 만한 자료를 구하지 못하여 자세한 기록은 불가능하다. 단지 증거가 될만한 자료로 오래된 기와집이 있는데 부안임씨 문중의 천석지기가 살았던 집이라 한다. 집이 지어진지는 100여년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후손의 전언에 의하면 5대조인 임학면이 처음 번암리에 들어왔고, 그 후 형제들이 들어와서 마을에 터전을 이루고 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번암리에는 170여년 터전을 이룬 청

주한씨와 부안임씨 두 문중이 서로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고 하니 부안임씨의 변암리 입향시기는 150여년 전으로 볼 수 있겠다.

조치원읍 봉산리



조사대상 토흥부곡, 원주이씨, 원주이씨 효행비, 강화최씨, 봉산영당, 최완 묘소, 효자 최희 정려, 열녀 최지철 처 전주이씨 정려, 봉산향나무, 강화최씨 8대 15효열

조치원읍 봉산리는 본래 옛 토흥부곡의 소재지이다. 『여지도서』에는 연기현 북일면 방리조에 토흥리土興里가 있으며, 그 위치는 연기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20리의 거리이고, 규모는 편호 16호, 남자 39구, 여자 31구라고 한다. 토흥리는 『호구총수』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호구총수』에는 오늘날의 봉산리와 관련있는 마을 명칭으로 낙은리樂隱里도 보인다.

이 토흥부곡이 변하여 동이, 또는 동리라 하였는데, 일제 강점기인 1914년에는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저촌리, 낙원리, 은동의 일부를 병합하여 동리洞里라 하여 북면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 조치원면 신설에 따라 서면에 편입되었고, 1939년 조치원읍 확장에 따라 조치원읍에 편입되어 오봉산의 이름을 따서 봉산정鳳山町이라 하였다.

광복 이후인 1947년에 왜식 동명 변경으로 정町이 동洞으로 바뀔 때 봉산정을 봉산동鳳山洞으로 고쳤다. 그리고 다시 1988년 동을 리로 고치면서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리가 되었다가, 2012년 7월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가 되었다.

봉산리에는 조치원의 진산이라는 오봉산五峯山이 있다. 오봉산은 다섯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는 목형봉木形峰(해발 262m)이



1	2
3	4

봉산리 마을모습

- 1 봉산영당에서 바라본 모습
- 3 원주이씨들이 많이 살았던 봉산리 뒷말
- 4 최희의 묘소에서 바라본 모습



1	2
3	4

봉산리 마을모습

- 1 원주이씨 입향조 묘소에서 바라본 모습
- 2 원주이씨 종가
- 3 자교암과 호계팔영비, 자교비가 세워진 원주이씨 종가앞
- 4 원주이씨 재실



봉산리 마을모습 원주이씨가 살고있는 오래된 주택

고, 제2봉은 화형봉(火形峰), 제3봉은 토형봉(土形峰), 제4봉은 금형봉(金形峰), 제5봉은 수형봉(水形峰) 등이다. 이와 같이 오봉산의 구조처럼 오행에 맞춰진 것을 풍수적으로는 오성연주사격(五星連珠四格)이라고 하여 북목화토금수상생(北木火土金水相生)으로 장군이냐 재상이 나오고 귀하고 부자가 되는 좋은 자리라고 한다. 1934년에 간행된 『연기지』에는 오봉산이 비암산의 내맥이며 조치원의 진산이라고 하였으며, 16세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오봉산에 안선사와 흥천사라는 절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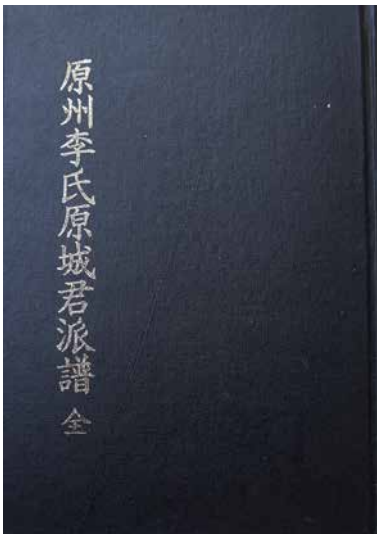
오봉산은 조치원읍, 서면, 전동면 등 경계의 세 개 마을에 걸쳐서 위치하며, 상봉에 기우제단과 산제당이 있어서 영험한 산으로 여겨진다. 현재는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찾고 건강을 지키는 산으로 유명해지고 있다

봉산리의 건너말은 구령말 건너에 있는 마을을 말하며 명종때 효자 최중룡(崔重龍)이 살면서 심은 향나무가 수령 460년을 자랑하며 천연기념물로 지정

받아 보호받고 있다. 동리는 병자호란때 효자 최진원(崔進源)이 의병을 일으키고 호를 동리(東里)라 하면서 불리게 되었다고 하며, 그 이전에는 토흥리라 불리던 곳이었다. 전동면 송곡리로 넘어가는 우측 산자락 마을을 띠재골(蹄柴谷)이라 부르는데 예전에 띠풀이라 불리는 억새 등이 많이 자라던 곳이다. 동이 남쪽에 있는 마을은 방죽골(방축골, 防築洞)인데 전에 방죽이 있어서 불리는 이름이다. 중뫼(中里)은 동이 중앙에 있는 마을이며 봉산영당이 있다. 도장고개는 동이에서 서창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토흥부곡 시대에 도장을 열었다 한다. 띠재는 동이 북서쪽에 있는 고개이다. 참새골(찬샘골, 泉谷)은 동이 뒤에 있는 골짜기 찬샘을 말한다. 숙종때 효자 최진원의 묘소가 있다.

토흥부곡 ●●●

부곡은 삼국시대 이래로 조선 초기까지 있었던 특수한 지방 행정구역을 말한다. 고려중기 이후 그 성격이 변질되기 시작하였으며 고려시대 말기에 이르면 일반군현과 신분적 차이가 없어졌고, 조선시대에 점차 소멸되었다. 조선시대 연기현 지역이던 봉산리에 부곡이 있었다는 말이 전하고 있다. 조선 초기의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고적조에서도 토흥부곡이 확인되는데 현의 북쪽 13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원주이씨족보

봉산리 원주이씨 원성군파 ●●●

봉산리에는 원주이씨(原州李氏) 원성군파가 살고 있다.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원주이씨 원



원주이씨 입향조 이한필의 묘소

성군파보』(1965년 편찬)에 의하면, 원성군파조는 고려시대에 우승상 원성군(原城君)을 지냈다고 하는 이변(李林)이다. 또한 파보에는 성화 16년(1480, 성종 11) 경자호적에 원성군의 6세손인 이인문(李仁文(1425~?))이 연기 번암에 거주한다고 기록되어 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후손들을 통해서 호적의 현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족보상 묘소의 위치를 살펴보면, 7세손 이만균(李萬鈞(1477~?))의 후배위 한양조씨의 묘소가 연기 호사동에 위치한다. 문과 급제자로 옥천군수와 흥문관 부제학을 지냈다고 되어 있는 이만균의 묘소 위치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초배위인 봉화정씨(좌의정 정도전의 증손녀)의 묘소는 직산이다. 그러나 제보지는 14대조로 원성군의 9세손인 이한필(李漢弼(1512~?))을 이 지역 입향조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한필은 정로위(定虜衛) 사과(司果)를 지냈다고 하며, 배위는 제천안씨(堤川安氏)이다. 묘소는 조치원읍 봉산동 마근골(麻根谷)에 남향, 쌍봉으로 있으며 상석만을 갖춘 소박한 모습이다.

이한필의 부친 이인노(李寅老)는 족보에 생몰년을 고찰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묘소의 위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한필의 부친에 대한 기록이 없고 어떤 경로로 조치원 봉산리에 입향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족보를 통해 유추해 보건대 봉산리 원주이씨는 4백여년 전부터 봉산리에 정착하여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이한필의 직계 후손들의 묘소가 봉산리와 주변에 있으며, 봉산리 뒷말이라고 부르는 마을에는 오늘날에도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한필의 후손 중에는 효자 이봉환과 세종시 덕성서원에 배향되어 있는 이봉환의 아들 불계재(不匱齋) 이재구(李載九)가 있다.

한편, 사마방목과 문과방목, 실록의 기사 등에도 이만균(李萬鈞)이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만균은 생몰년 미상으로, 조선 중기 문신이다. 자는 사중(士重)·중경(重卿)이다. 방목에 수록되어 있는 본관은 강진(康津)이다. 생원시에 응시할 때의 거주지는

공주(公州)로 되어 있으나, 문과방목의 거주지는 미상으로 되어 있다. 증조부는 이영기(李英奇)이고, 조부는 이터(李攬)이며, 부친 창신교위(彰信校尉) 이인문(李仁文)과 모친 안민행(安敏行)의 딸 죽산안씨(竹山安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인은 정문형(鄭文炯)의 딸 봉화정씨(奉化鄭氏)이다.

1507년(중종 2) 식년시 생원 3등에 59위(100명의 입격자 전체 가운데 89위)로 입학하였고, 1522년(중종 17) 식년시 문과에서 을과 5위((33명의 전체 급제자 가운데 8위)로 급제하였다. 관직은 교서관 정자(校書館正字), 함경도 도사(咸鏡道都事), 예조정랑(禮曹正郎), 충청도 도사(忠淸道都事) 등을 역임하였다.

1525년(중종 20) 교서관 정자 재임 중, 문신(文臣)들을 대상으로 한 정시(庭試)에 표문(表文)의 수석을 차지하여 가자(加資)되었다. 1530년(중종 25) 경성판관(鏡城判官) 재임 중, 부인을 때려서 죽인 우범(禹範)을 형물로 다스리면서 시신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일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체차(遞差)되었고, 1532년(중종 27) 함경도 도사 재임 시절에는 함경감사(咸鏡監司)의 장계에 의해 고을 정사(政事)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파직되었다. 1533년(중종 28) 예조정랑으로 재임 중, 속이 좁고 행실이 천박하다는 이유로 사헌부에서 체직(遞職) 시켜줄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임금이 인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체직 명단에서 이름을 제외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러나 계속해서 체직을 청하는 상소가 올라오자 결국 체직되었다. 1534년(중종 29) 충청도 도사 재임 시절에 함경도 도사 때 일어난 물의를 문체 삼는 상소가 수차례 올라가 체직되었다.

참고: 이만균의 방목기록에 부친과 조부, 어머니, 부인의 관계, 그리고 이만균의 자가 사중(土重)·중경(重卿)이라는 것까지 똑같은데 본관이 '강진'이라고 기록되어 혼란스럽게 한다. 아마도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듯 하다.

원주이씨 효행비 ●●●

봉산리 중뚝마을 도로변에는 효행비와 작은 바위가 있다. 이것은 마을에



이봉환 효행비

오랜 세월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이씨들의 후손이며 효행으로 이름을 알린 아버지 이봉환과 그의 아들 이재구를 기리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이봉환李鳳煥(1805~1854)의 자는 명서鳴瑞이다. 그의 행적은 효행이 뛰어났다. 그는 5세 때에 어머니 진주강씨가 위독하자 정성으로 천지신명께 빌어 쾌유를 기원하였고, 15세 때에는 어머니의 병이 다시 안 좋아지자 대소변을 맛보고 손가락을 베어 피를 드릴 정도로 정성을 다하여 간병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탁절지행을 가지고 전재 임헌회가 묘갈을 찬하고, 고을 수령이 감영에 아뢰고, 감영에서 조정에 아뢰어 1870년(고종 7)에 조봉대부 동몽교관에 증직되었다. 묘소는 호계에 있으며, 전재 임헌회가 묘갈을 찬하였다.

이재구李載九(1837~1887)의 자는 계범季範, 호는 불계재不匱齋이다. 아버지 이봉환과 어머니 안동김씨 사이의 2남 3녀 중 장남으로 봉산리에서 태어났다. 8세 되던 해에 어머니 안동김씨가 병으로 눕자 목욕재계하고 집뒤의 바위 위에서 기도할 정도로 효성이 지극했다. 전재 임헌회 밑에서 수학한 뒤 도학에 전력함과 동시에 14년간을 경적 탐구와 육영사업에 종사했다. 불계재라는 호는 전재 임헌회가 지어준 것이며, 세종시 덕성서원에 칠현루 賢으로 배향되어 있다.

한편,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리 호계마을에는 이재구와 관련있는 자교암 慈教岩이라 불리는 바위가 있다. 커다란 호랑이가 엮드려 있는 형상이라 하며, 이재구 선생의 어머니 안동김씨가 아들의 종아리를 처가며 공부를 시



1	2
3	4
5	

- 1 이재구의 부인 회덕황씨
- 2 이재구 묘비 불계재 이재구는 세종시덕성서원에 배향된 인물이다.
- 3 이재구 묘소
- 4 이재구 부인 창원한씨
- 5 이재구 묘소 세 분의 배위 중 한분은 합장하고 두 분은 양쪽으로 나란히 모셨다.



1	2
3	4
5	6

- 1 자교암과 비석들
- 2 자교암
- 3-6 자교암과 함께 있는 작은바위



1	2	3
4	5	

1-3 이모습무비
4-5 호계팔영비

킨 곳이라고 한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기 위해 바위에 의지하며 마음을 다지곤 하던 제자의 모습을 높이 산 스승 全齋 임헌희任憲晦가 친히 바위에 ‘慈教岩자교암’이라 새겨 주었다.

봉산리 강화최씨 제정공파 ●●●

강화최씨의 시조는 고려시대 사복소경(司僕少卿)을 지낸 최익후(崔益厚)로 알려져 있다. 봉산리 강화최씨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강화최씨세보』에 의하면, 최익후는 문과출신으로 사복시(司僕寺) 소경을 지냈는데 한편으로는 상서 좌복야(尙書左僕射) 벼슬을 하였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봉산리 강화최씨는 제정공파이다. 제정공(齊貞公) 최용소(崔龍蘇(?~1422, 세종 4)는 시조 최익후의 9세손이다.

강화최씨 봉산리 입향조는 제정공의 7세손이며 강화최씨 시조 최익후의 15세손인 최완(崔浣)이다.

『강화최씨세보』에는 최완의 지는 사결(士潔)이고, 정덕(正德) 경오년, 즉 1510년(중종 5)생이며, 가정 갑오(1534, 중종 29)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만력(萬曆) 연간(9월 8일)에 졸한 것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최완의 초배위는 이씨이나 후손이 없고, 후배위는 풍양조씨 주부(主簿) 조당(趙瑋)의 딸이라고 한다. 묘소는 연기현 북쪽의 토흥리 마근동에 있는데, 서울의 의동(京中義洞, 현 종로 5가 효재동)에 세거하다가 말년에 연기로 낙향하여 자손들이 이곳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묘사화를 피해 연기로 이거하여 풍양조씨와 혼인하면서 정착하게 되었다고도 한다.

사마방목(『기정13년갑오윤2월초2일생원진사방(嘉靖十三年甲午閏二月初二日生員進士榜)』)에 의하면, 최완은 중종 29년(1534) 갑오 식년시에 유학의 전력으로 생원 3등 20위(전체 합격자 100명 가운데 50위)로 합격하였으며, 당시의 거주지는 한성(京)이고, 부친은 승사랑(承仕郎) 최덕수(崔德秀)로 수록되어 있다.



강화최씨 문중 자료



충효양전비



1	2	3	4
5	6		

강화최씨 문중 비석들

- 1 제헌국회의원 최윤교
- 2 최중화 송모뿔비
- 3 최중화 송모새비
- 4 강화최씨문달기제현비
- 5 봉산영당앞에 조성된 열너비와 열너비 좌측비석
- 6 봉산영당앞에 조성된 열너비와 열너비 우측비석

문중에 전해오는 고문서 중에는 2책의 사마방목이 보관되어 있다. 1책은 1705년, 1책은 1719년의 사마방목이다.

1705년의 「을유증광별시사마방목」에는 최훤崔煥이 숙종 31년(1705)의 진사시에 유학幼學의 전력으로 응시하여 2등 5위(100명의 진사 입격자 가운데 10위)로 입격되어 있다. 방목의 내용에 의하면, 최훤의 자는 자문子文이고 1674년(현종 15)생이며, 합격당시의 연령은 32세, 본관은 강화江華, 거주지는 연기燕岐로 수록되어 있다. 가족관계는 아버지는 돌아가신 학생學生 최주화崔柱華이고, 안향으로는 최훤이 동생으로 올라 있다.

1719년의 「대전입기로소증광별시사마방목」에는 최시崔晞가 숙종 45년(1719)의 생원시에 유학幼學의 전력으로 3등三等 35위(100명의 생원 입격자 가운데 65위)로 입격되어 있다. 방목의 내용에 의하면, 최시의 자는 승비勝非이고, 1701년(숙종 27)생이며, 합격 당시의 연령은 19세, 본관은 강화江華, 거주지는 연기燕岐로 수록되어 있다. 가족 관계는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었으며, 아버지는 진사進士 최훤崔煥이고, 안향으로는 최최崔最가 동생으로 올라 있다. 따라서 이 2책의 사마방목은 최훤과 최시 부자가 사마시에 입격한 방목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족보는 병진보(1856년), 신축보(1901년), 병자보(1936)를 보관하고 있다. 각 족보마다 이전 족보의 서문들이 실려 있는데 서문에 의하면 1746년부터 족보를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환재집』, 『육일당집』, 『송암집』 등이 전하고 있다.

봉산영당 ●●●

봉산리 중뚝 마을 입구에서 북쪽으로 100여 미터 들어간 토흥산 남향에 봉산영당鳳山影堂이 있다. 이 영당은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인 제정공齊貞公 최용소崔龍蘇(?~1422)의 영정을 모신 곳이다.



1	2
3	4
5	6

- 1 최용소 영당, 외삼문
- 2 최용소 영당 이곳에 영정이 모셔져있다.
- 3 최용소 영정 최용소영정의 진품은 박물관에 있고 이곳엔 복제품을 모셨다.
- 4 최용소 영당 중수기



1	2
3	

- 최용소 영당**
 2 小識, 간재의 제자 송의섭이 썼다.
 3 영당에서 바라본 외삼문

최용소는 강화최씨로 고려 공민왕 초에 의릉직毅陵直에 제수되었고, 이후 감찰규정監察糾正·계림부판관鷄林府判官·이성등처관군만호泥城等處管軍萬戶 등을 역임하였다. 1370년(공민왕 19) 전라도체복사全羅道體覆使로 파견되어 민심을 위유하고, 같은 해 7월 개경으로 돌아와 신돈辛旽을 먼저 본 뒤에 왕을 알현하여 장형杖刑을 받기도 했다. 고려 말에 공조전서를 역임하였다. 1394년(태조 3) 회례사回禮使로 일본 구주九州에 파견되어 구주절도사九州節度使 이미카와令州了俊에게 왜구를 토벌하여 양국의 우호를 도모하지는 국서를 전하고, 이미카와가 차견差遣한 승려 종구宗俱와 함께 피로인 570여 명을 대동하고 귀국하였다. 1397년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 1398년 강원도 도관찰사를 지냈다.

1400년(정종 2) 3군 도진무都鎭撫로 재직 중 방간芳幹의 모반에 연좌되어 하옥되었다가 방면되고, 곧 검교참찬문하부사檢校參贊門下府事に 좌천되었으며, 곧 다시 방간의 당여로 재차 논죄되어 삭직되고 장형을 받았으나, 태종이 즉위하면서 사면되었다. 1403년(태종 3) 승녕부윤承寧府尹으로 복직되고, 그 해 좌군총제左軍總制에 개수改授되고, 그 뒤 안동부사·개성부유후 등을 역임하였다. 1413년 형조판서로 한성부윤 김겸金謙과 함께 하정사賀正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고, 그 해 공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414년 관한성부사가 되고, 이듬해 전라도의 조운책漕運策을 진언陳言하였다.

성품이 청백하면서도 절개가 굳고, 언행이 정중하였다. 일찍이 명나라에 들어가 옥하관玉河館의 건축을 감독하여 명성을 얻기도 하였다. 제정齊貞은 최용소의 시호이다. 족보의 기록에 의하면 묘소는 죽산竹山 지내동池內洞에 위치하며 상석과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고 한다.

명나라 성조成祖는 최용소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다시 볼 수 없음을 한탄하며 화공으로 하여금 그의 영정 2폭을 그리게 하여 한 폭은 자신이 갖고 다른 한 폭은 최용소의 자손에게 주어 얼마 전까지 봉산영당에 걸어 놓았었는데, 도난으로 인하여 현재 진품은 없어지고 복제품이 자리

를 대신하고 있다고 한다. 영당은 솟을삼문에 낮은 담장으로 둘러져 있는데,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로 맞배지붕이다.

최완 묘소 ●●●

봉산리의 강화최씨 입향조인 최완(崔浼)(1510~ 1570)의 묘소는 봉산리 중뚝 마을의 산 구릉의 남향사면(미근곡)에 위치한다. 1641년(인조 19)에 세워진 최완 묘비의 비문은 최달원(崔達源)이 짓고 최유화(崔有華)가 글씨를 썼다. 풍화로 인하여 앞뒤 비문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 묘소 주위에는 묘 건립 당시 세워진 듯한 문인석 2기가 있으며, 묘의 오른쪽에는 1989년 13세손 최익낙이 쓴 묘비가 서 있다. 최완의 묘 근처에는 최희의 아들인 최준원의 묘가 있으며, 신흥동 백산에 있는 최달원의 묘는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이장하고 석물은 매장하였다고 한다.



최완 유허비



최완의 묘소



최완의 묘소

효자 최희 정려 ●●

봉산리 중뚝마을 입구의 작은 길에서 남쪽으로 500m정도 더 들어간 곳에 효자孝子 최희崔滄 정려旌閭가 동향으로 있다.

최희(1563~1620, 자는 景澤)는 강화최씨 17세손으로 연기 입향조 최완의 손자이다. 최희의 아버지는 최중룡崔重龍이고 어머니는 강릉김씨 참봉 김봉



최희 정려

조금奉祖의 딸이다.

족보의 기록에 의하면, 최희의 아버지 최중룡(1543~1575, 자는 雲卿)은 일찍이 효행이 뛰어났던 인물로 세칭 해동대순海東大舜으로 일컬어 졌다. 또한 최중룡은 약관의 나이에 현재의 봉산리 마을 입구에 있는 봉산향나무(천연기념물 제 321호)를 심으면서 집안에 효가 번창하기를 기원하였는데, 이후 강화최씨 집안의 후손들도 이를 본받아 많은 효를 행하게 되어 8대에 걸쳐 10명의 효자와 5명의 열부를 배출하였다고 한다. 지극한 효자(至孝)로 알려져 형조참의에 증직되었다. 도승지에 증직된 홍신민이 그의 아버지 행장을 찬했는데 이 말이 자세히 실려 있다고 한다. 묘는 공주 의랑면 태평동에 쌍분으로 있으며 표석이 있다.

최희는 1590년(선조 23)에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초배는 풍양조씨 현령 조희철의 딸(가정 병인생, 만력 연간 졸)로 2자 2녀를 두었으며, 후배는 전주이씨 현감 이수이李綏義의 딸(만력 경진생, 경신졸)이다. 최희는 아버지를 본받아 특출한 효를 실천한 인물로, 13세 때 아버지 최중룡이 세상을 떠나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이후 홀어머니를 정성껏 봉



최희
묘소



최희 묘소 동자석



최희 묘소 비석

양하였는데, 어머니가 노환으로 자리에 눕자 정성껏 병간호를 하다 피로가 누적되어 나이 58세로 세상을 떠났다.

최희 묘소는 봉산리 중뚝 마을 입구의 봉산영당의 뒤편(토흥리에 위치한다. 묘역은 묘비와 상석, 동자석, 석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642년(인조 20) 세운 묘비는 심하게 마모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데, 묘갈명은 이보(李堯)가 지었다. 한편, 최희는 벼슬에는 뜻을 두지 않고 권력 있는 집에 드나들기를 삼가며 항상 가난한 선비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청렴결백한 선비로도 명성이 높았다고 한다.

최희 정려는 1702년(숙종 28) 증손 최훤(崔煥)이 찬한 행장에 의하면 최희가 죽은 후 그의 효행을 안타깝게 여긴 양빙(楊憑) 등 연기 사람들이 조정에 상서를 하여 그가 죽은 지 67년 후인 1686년(숙종 12)에 명정받아 정려를 건립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정려는 1980년대 중반에 증수된 것으로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양측면에는 방풍판을 설치하였다. 화강석재를 가공하여 만

든 8각고주 위에 둥근 기둥을 세웠으며 사면에는 홍살을 돌렸다. 내부 중앙 상단에는 최희의 명정현판(孝子成均生員崔滄之閭 崇禎丙寅 五月 日 命旌)이 걸려 있고 그 위에는 1702년(숙종 28) 증손인 최훤이 찬한 행장기가 걸려 있다. 현재 정려 주변 바닥은 시멘트로 잘 정리하고 쇠창살을 둘러 깨끗이 보존·관리하고 있다.

열녀 최지철 처 전주이씨 정려 ●●●

열녀烈女 최지철 처崔之喆妻 전주이씨全州李氏 정녀旌閭는 봉산리 중뜸 마을 입구 작은 길에서 북쪽에 있는 봉산영당 앞에 있다.

전주이씨(1759~1779)는 이대형李大亨의 딸로 이미 1769년(영조 45)에 11세의 나이로 모친상을 당하여 3년간 시묘살이를 한 효녀였다. 19세인 1777년(정조 1)에 강화최씨 최지철崔之喆(1759~1778)에게 출가하였으나 시집 온지 1년 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홀로 남게 된 슬픔을 이기지 못한 전주이씨는 남편을 따라 죽을 결심을 하고 7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다. 이에 친정 아버지는 유복자라도 있을지 모르니 삼종지도를 어기는 경솔한 행동보다 혹시 모를 태아를 위하여 몸을 아끼는 것이 어떠냐고 타일렀으며, 이 말에 전주이씨는 몸을 조심하며 다섯 달을 지냈다. 그러나 태기가 보이지 않자 다락에 올라가 목을 매고 자결하였다.

1822년 홍석주가 찬한 정명旌銘에 의하면 전주이씨의 열행을 안타깝게 여긴 마을 유림들이 관찰사에게 여러 번 소를 올려 1784년(정조 8)에 특명으로 정려를 받았다고 한다. 원래는 현재의 봉산리 대로변에 있었는데 1974년 도로개설로 인하여 현재의 위치로 옮겨 지은 것이라고 한다. 정려 내부 중앙 상단부에는 열녀 전주이씨의 명정현판이 걸려 있으며, 유적의 원편으로는 1981년에 세운 강화최문건기제현비가 있다.



최지철 처 전주이씨 정려

봉산향나무 ●●●

증평마을 입구에 위치한 봉산향나무는 대순향수 또는 자단향나무라고도 불리며, 천연기념물 제 321호로 지정되어 있다. 향나무는 향기가 그윽한 상록수로 엄동설한에도 절개를 지킨다 하여 사람들이 이를 통해 효열



1	2
	3

봉산향나무

- 1 천연기념물 제321호이다.
- 2 봉산향나무와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 있었는데 지금 집은 정리가 되어 없다.
- 3 향나무가 있는 전체의 모습

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 해동대순 최중룡이 강화최씨 집안에 효열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면서 약관의 나이에 이 나무를 심었다고 하며, 실제 그 후손들 사이에서 8대에 걸쳐 15명의 효자와 열부가 배출되었다. 몸체가 용틀임으로 올라가서 위가 일산처럼 퍼져있다.



1	2
3	

봉산향나무

- 1 위에서 바라본 천연기념물321호 향나무의 모습
- 2 용트림하고 올라간 향나무의 몸체
- 3 주변 모습

강화최씨 8대 15효열 ●●●

강화최씨 집안에서는 많은 효자와 열녀가 배출되어 ‘8대 15효열’이라고도 일컫는다. 1981년 연기향교와 전의향교의 협찬으로 강화최씨가문의 8대에 걸친 15명의 효자·열부를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강화최문건기제현비(江華崔門建紀諸賢碑(비신 74×45×210cm, 귀부 155×170×100cm, 이수 94×63×65cm)가 열녀 전주이씨 정려 원편에 서 있다.

15효열은 최중룡(崔重龍)과 그 아들 최회(崔滄), 최회의 아들 최달원(崔達源), 최진원(崔進源), 최도원(崔道源), 최달원의 아들 최일화(崔一華), 최진원의 아들 최주화(崔柱華), 최조원(崔造源)의 아들 최유화(崔有華)와 최정화(崔挺華), 최정화의 아들 최혁



강화최씨 묘역



1	2
3	4

강화취씨 승모단
4 21위의 신위가 모여져 있다.

崔麟 등 10명의 효자와 최희의 딸 이선양李善養 처, 최이화의 딸 참봉 조명화趙鳴和 처, 최주화의 증손 최의정 처 홍양유씨, 최유화의 외손녀 송현기宋鉉器 처 밀양박씨, 최주화의 현손 최지철崔之喆 처 전주이씨 등 5명의 열부를 일컫는다. 이들 15명 인물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① 최중룡

최중룡崔重龍(1543~1575)의 자는 운경雲卿으로 강화최씨 연기지역 입향조인 최완과 풍양조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최중룡은 강화최씨 집안에 효의 뿌리를 내리게 한 인물이다. 그는 약관의 나이에 현재의 봉산리 증뜸마을 입구에 향나무를 심으면서 “이 나무가 무성하게 되면 문호가 빛이 나고 효열이 속출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400여년간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그의 예언대로 강화최씨 집안에서는 15명의 효열을 배출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봉산향나무를 자단향紫檀香나무 또는 대순향수大舜香樹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중룡은 중국에서 효자의 대명사로 불리는 순 임금과 무왕 주공의 이름을 따서 세칭 해동대순海東大舜이라 일컬어졌다고 한다. 죽은 후 효로 형조참의에 증직되었으며, 행장은 홍신민洪信民이 찬하였다.

② 최희

최희崔滄(1563~1621)의 자는 경택景澤이며, 최중룡과 강릉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590년(선조 23)에 생원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에 뜻을 두기 보다는 아버지 최중룡의 효성을 본받아 효행을 실천한 인물이다. 1686년(숙종 12) 효자 정려를 명받은 인물이다.

이하 최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효자 최희 정려 참조.

③ 최달원

최달원(崔達源(1591~1640)의 자는 여해(汝海)이고, 호는 관가정(觀稼亭)이다. 최희의 둘째 아들로 풍양조씨 소생이다. 1612년(광해군 4, 임자년) 증광시에서 생원시에 입격하였고, 벼슬은 강릉참봉(康陵參奉)을 지냈다. 죽은 지 56년이 지난 1696년(숙종 22)에 효행으로 호조정랑에 증직되었다. 묘소는 연기 신대(新岱)에 있으며, 표석이 있다.

1666년(현종 7)에 세운 묘갈명(송시열 찬, 송준길 서, 김수항 전)에 따르면, 최달원은 항상 몸가짐을 삼가며 부모의 뜻에 거슬리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새어머니인 전주이씨에 대한 효성도 지극하였고, 전주이씨 소생의 3형제와도 형제간의 돈독한 우애를 쌓았으며, 집안에 따로 스승을 맞이하여 세 동생을 가르쳐 후에 훌륭한 선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최달원은 이와 같이 가정에서 화목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1636년 강릉참봉으로 있을 당시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죽기를 각오하고 관아의 물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하여 훼손되지 않게 관리하였다고 한다.

④ 최진원

최진원(崔進源(1606~1676)의 자는 여한(汝漢)이고, 호는 육일당(六逸堂)이다. 최희의 셋째 아들로, 최희의 후배위인 전주이씨 소생이다. 최진원은 일찍이 부모(怙恃)를 잃고 세상일에 뜻이 없어 고요함을 지켜(守靜) 밖으로 출입하지 않고(杜門), 과거를 보지 않고(不事舉業), 오로지 학문에만 뜻을 두어 호를 육일당이라 하였다. 세상에서는 동리선생(東里先生)이라 칭하였다. 효우지행(孝友智行)으로 자주 천거에 올랐으며, 생존시에 정려의 명이 있었고, 1677년에 지평에 증직되었다.

최진원은 어린 시절부터 효성이 남달랐다고 한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의원이 어린아이의 소변이 약으로 필요하다고 하자 추운 겨울임에도 목욕재계하고 자신의 소변을 드렸다. 최진원



강화최씨 최진원 육일당의 묘소이다.

이 8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른도 하기 힘든 효성을 행하였으나, 어머니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아 몇 년을 병석에서 지내었다. 최진원은 밤낮으로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호흡을 살피고 대변을 맛보아 병세를 확인하는 등 8년간이나 어머니 병간호에 조금도 게으름이 없었다. 더욱이 아버지마저 15세 되던 해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흘려 드렸으나 끝내 운명하였다. 이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병수발에 혼신을 다하던 그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복형인 최달원이 병을 얻었을 때에도 부모 섬기듯 정성을 다하였으며, 나이 어린 두 아우에게는 우애를 돈독히 쌓고 따로 집을 짓고 스승을 맞이하여 배움에 들어서도록 하였다. 또한 젓먹이 여동생도 따듯이 보살피고 키워 출가 후 열행을 실천하게 하였다. 최진원

은 부모에 대한 효도 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한 충성심도 뛰어났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월하(月河) 민후건(閔後鰲)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마련하여 북쪽으로 진군하였다. 그러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집한 병사들은 해산시키고 수집한 군량은 모두 관에 공납하여 뒷날 연기 환자미(燕岐還子米)의 기금이 되도록 하였다고 한다.

1705년(숙종 31)에 이조판서 이덕수(李德壽)가 찬한 충효양전비에 따르면 이상 최진원의 충·효에 대하여 이미 생전에 조정에서 2번의 정려를 내렸다고 한다. 즉 1654년(효종 5) 그의 공적을 감영에 천거하여 다음해 조정에서 정문을 내렸으나 최진원 자신이 글을 올려 사양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결심하자 관찰사는 이를 가상히 여겨 그의 뜻을 받아들이고 세우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다 1666년(현종 7) 다시 연기 유생 양빙 등이 예조에 상소를 올렸으나 병들어 사경을 헤매면서도 오히려 살아서 정려를 받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울며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또다시 이를 사양하였다. 결국 그가 사망한 다음해인 1677년(숙종 3)에 사헌부 지평에 증직되었다고 한다. 현전하는 그의 문집인 『육일당집』에는 생전에 내린 정려를 사양하는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묘소는 천곡리에 있으며 묘갈명은 송의섭이 찬하고 이석영이 글씨를 썼다. 최회 정려에서 서쪽으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1981년에 세운 충효양전비는 1705년 이덕수가 찬한 최진원의 행장을 최진원의 10대손인 최익락(崔益洛)이 써서 새긴 것이다.

⑤ 최도원

최도원(崔道源, 1609~1673)의 자는 여수(汝洙)이고, 호는 오봉(五峯)이다. 최회의 넷째아들로 전주이씨의 소생이다. 부모가 병환에 걸리자 형인 최달원, 최진원과 함께 부모님을 극진히 보살폈으며,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과 한방에 동거하면서 시묘살이를 하였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형들을 부모와 같이 섬겼다. 그가 죽은 후 마을 사람들이 상소하여 숙종조

에 효행으로 호조 좌랑에 증직되었다.

⑥ 최일화

최일화崔一華(1617~1680)의 자는 자산子山이며, 최달원의 장남으로 부모에 대한 효성이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고 한다. 어머니인 여산송씨의 병이 위독하자 밤낮으로 끼니를 거르면서 백방으로 약을 구하러 다니는 등 모친의 병환 간호에 정성을 다하였다. 한편 동생 최이화가 처가에 다니러 갔다가 위중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백리를 달려가서는 3일을 문밖에서 병의 차도를 기원하니 이에 치료를 하던 의원이 감동하여 약을 정성껏 지어주고 돌아갔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행적에 대하여 1638년(인조 16) 판서 조형趙珩 등이 조정에 천거하였으나 최일화는 도리어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어버렸다. 그리하여 최일화가 죽은 해인 1680년(숙종 6)에 다시 이습李濕 등이 상서하여 효로써 빙고氷庫 별검別檢에 증직되었다.

⑦ 최주화

최주화崔柱華(1641~1690)의 자는 후기厚基이다. 생부인 최조원崔造源과 민후건의 딸 여흥민씨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중부인 최진원崔進源이 후사가 없어서 그의 양자로 들어갔다. 이동영李東永이 찬한 행장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극진히 모셨으며 부모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에는 병환의 차도를 알아보려 대소변을 맛보는 등 간호에 정성을 다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모가 돌아가시자 양지바른 곳에 묻어 드리고 조석으로 곡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효성으로 인하여 1700년(숙종 26)에 이동영 등의 상소로 지평에 증직되었다. 혹은 효행이 탁이卓異하여 영조 기유(1729년)에 지평에 증직되었다고도 한다.



강화최씨 최주화

⑧ 최유화

최유화(崔有華(1629~1703)의 자는 산보(山甫)이고, 호는 수곡(壽谷)이다. 최조원과 여흥민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김부(金溥)가 찬한 행장에 따르면 집이 가난하여 스스로 고기를 잡아 집안의 생계를 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르고 시묘살이를 하던 중 어머니 마저 병환으로 앓아 누우셨다는 소식을 듣고 30리의 먼길을 밤낮으로 찾아가 봉양하였으나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다. 이후 아침마다 부모님 묘소를 찾아가 문안드리고 항상 그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였다고 한다. 또한 최유화가 8세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숲속으로 몸을 피하여 숨어 있었는데, 부모님의 안부가 걱정되어 안부를 묻기 위하여 수 백리를 다녀오기도 하였다고 한다. 1662년(현종 3)에 생원시에 입격하였으나 벼슬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김부 등의 상소로 숙종조에 호조좌랑에 증직되었다.

한편, 『신축증광사마방목辛丑增廣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의산古6024-121])에는 최유화가 현종顯宗 3년(1662) 임인壬寅 증광시增廣試에 생원 3등三等 21위(100명의 합격자 가운데 51등)로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방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유화의 자(山甫), 생년(기사생, 1629, 인조 7), 합격연령(34세), 거주지(연기) 등은 일치하지만, 본관은 담양潭陽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 방목에 수록되어 있는 가족사항을 살펴보면, 아버지 최조원崔造源은 선략장군宣略將軍 행용양위좌부장行龍驍衛左部將이고, 안향으로는 동생으로 최명화崔命華, 최주화崔柱華, 최정화崔挺華, 서제로 최자화崔自華 등이 기록되어 있다.

⑨ 최정화

최정화崔挺華(1628~1690)의 자는 수보秀甫이고, 최조원의 넷째 아들이다. 1738년(영조 14) 박치응朴致凝이 찬한 행장에 의하면 5~6세의 어린 나이에 이미 효행을 실천하였으며, 11세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가 한양에서 돌아가시자 땅을 치고 통곡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사방으로 일을 수습하여 장사를 정성껏 모시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어린 그의 효성을 보고 감탄하였다고 한다. 이후에는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위하여 손수 고기를 잡아서는 먼저 맛을 보고 어머니께 잡숫게 하는 등 정성스럽게 봉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병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자 어머니의 대변을 맛보아 병세를 확인하는 등 정성스레 간호하였으며, 병이 호전되지 않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드렸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효성에도 불구하고 끝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3년 시묘를 정성껏 모시었다. 또한 양친이 모두 돌아가신 이후에는 자신의 두 형에게도 부모와 같은 섬김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행적에 대하여 도내의 선비들은 여러 차례 상소를 하였으나, 1737년(영조 13)에 이르러서야 지효至孝로 호조좌랑에 증직되었으며, 다시 정조 경술년, 즉 1790년(정조 14)에 승정원 좌승지에 추

증되었다.

⑩ 최혁

최혁^{崔焮(1682~1759)}의 초휘는 최굉^{崔煥}이고, 자는 유현^{幼顯}, 호는 임리당^{臨履堂}이다. 최정화와 함흥여씨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1773년(영조 49)에 조태명^{趙台命}이 찬한 행장에 의하면,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며 3년 동안 사시사철 한결같이 시묘를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형제들의 집안이 가난하여 흉년이 들 때마다 자신의 땅을 팔아 그 가족들을 보살폈다. 또한 최혁은 자신의 논을 팔아 6대조 제정공^{齊貞公} 최용소^{崔龍蘇}의 묘갈을 세웠다고 한다. 1729년(영조 5) 도내 유생들이 감영에 글을 올려 그의 효행을 알리니 관찰사가 보고하여 1772년(영조 48)에 호역^{戶役}을 감면받는 혜택인 복호를 지급받았다^{給復}. 1790년(정조 14)에 이르러 효로써 가선대부 호조참판에 증직되었다.

⑪ 열부 이선양 처 강화최씨

최희의 딸로 전주이씨 가문의 이선양^{李善養}에게 출가하였는데, 오랫동안 지병에 시달린 남편을 위해 항상 약을 달여 주고 정성껏 간호하였다. 그러나 끝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남편의 빈소에서 남편의 허리띠로 목을 매어 죽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용인현감에게 알리고, 다시 감영을 거쳐 조정에 알려져 명정을 받았다. 묘갈명은 유계^{兪啓}가 지었다.

⑫ 열부 조명화 처 강화최씨

최이화의 딸로 조명화^{趙鳴和}에게 출가하였으며, 열행이 있어 명정을 받았다.

⑬ 열부 송현기 처 밀양박씨

최유화의 외손녀로 박신^{朴新}의 딸이다. 20세에 송씨 가문에 출가하였는데, 남편 송현기^{宋鉉器}가 심한 병으로 사망하자 장사를 치른 후 이튿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끝내 남편을 따라 죽었다. 이러한 열행으로 정려를 받았다. 행장은 윤봉구^{尹鳳九}가 지었다.

⑭ 열부 최의정 처 흥양유씨

흥양유씨 유경한^{柳慶漢}의 딸(1747~1818)로 최의정^{崔義貞}에게 출가하였으며, 열행이 있어 정려를 명받았다.

⑮ 열부 최지철 처 전주이씨

열부 전주이씨(1759~1779)는 이대형^{李大亨}의 딸로 19세인 1777년(정조 1)에 강화최씨 최지철^{崔之喆}(1759~1778)에게 시집 온지 1년 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남편을 따라 목을 매고 자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열녀 최지철 처 전주이씨 정려 참조

조치원읍 상리는 20세기 이전에는 본래 연기군 북일면의 지역으로 별판이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북면 조치원리의 일부를 구성하였는데, 조치원리는 1917년에 조치원면이 신설되면서 조치원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조치원면은 1931년에 조치원읍이 되었고, 나아가 이 지방이 갑자기 번창해짐에 따라 1940년에 조치원리가 나뉘어지면서 이 지역은 조치원읍 본정本町 1정목丁目이라 하였다.



광복 이후인 1947년에 왜식 동명 변경으로 정町을 동洞으로 바꾸면서 상동上洞으로 고쳤다가, 1988년 연기군 조치원읍 상리가 되었고, 다시 2012년 7월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가 되었다.

상리는 조치원읍의 동쪽에 위치하며, 동쪽은 조천과 연접한 충북 오송읍과 경계를 이루고, 남쪽은 명리, 서쪽은 원리와 교리, 북쪽은 평리와 접해 있다. 상리는 예전에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띠풀 언덕이 있던 곳이다.

조치원과 충북의 경계가 되는 조천鳥川은 전의면의 고등천, 대부천과 전동면의 생줄천, 노장천을 합하여 조치원읍을 지나 미호천으로 흘러가는



1	
2	3

- 1 뗏집거리의 현재 모습
- 2 뗏집거리를 떼찌거리라 불렀다하는데 이 표시는 테지거리라고 쓰여있고 담장의 준공일은 74년11월 5일이다. 유일하게 뗏집거리에서 찾을 수 있는 흔적이었다.
- 3 뗏집거리에 위치한 상리 마을회관 8년전 도로정비를 하면서 남아있던 뗏집들이 모두 흔적을 감추었다고 주민은 말한다.



멧집거리 비석

내이다. 조천에는 조치원에서 충북으로 통하는 다리 조천교가 있다.

이곳이 일제 강점기에는 조치원의 중심 지역이었다. 바로 이곳 조치원 읍 상리 동쪽에 멧집거리라는 마을이 위치한다. 멧집거리는 상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1905년에 지금의 조천둑이 완성되는데 그로 인하여 이 지대가 별관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으로 하나 둘 들어와서 멧집으로 움막같이 집을 짓고 살았으며 그로 인하여 ‘멧집거리’라고 불렸다. 오래된 집을 헐어보면 아직도 당시의 멧장이 나온다고 한다. 나무전, 닭전, 양조장터, 포목전 등이 있었던 마을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치원의 중심마을로 뽕감 나무를 매매하는 시장이 아주 성행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지역상권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조치원읍 서창리



조치원읍 서창리는 20세기 이전에는 본래 연기군 북일면 지역으로 사창이 있으므로 내창이라 하였다. 『호구총수』에는 연기현 북일면의 마을 가운데 이 지역과 관련 있는 내창리內倉里, 낙은리樂隱里 등이 보이며, 『여지도서』에는 청주목 방리조에 평리坪里가 청주목 치소 관문으로부터의 40리의 거리에 위치하

며, 편호 65호, 남자 86구, 여자 87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서곡리, 낙은리 일부와 충청북도 청주군 서강외 일하면의 장대리, 평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내창리라 하여 북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1917년 조치원면을 신설함에 따라 서면에 편입되고, 1936년 조치원읍 확장에 의해 조치원읍에 편입되어 서곡과 내창의 이름을 따서 조치원읍 서창정瑞倉町이라 하였다.

광복 이후인 1947년에 왜식 동명 변경으로 정町을 동洞으로 바꾸면서 서창동으로 고쳤다가, 1988년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리가 되었고, 다시 2012년 7월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가 되었다.

서창리는 조치원읍의 중북부에 위치해 있다. 동쪽은 조천, 남쪽은 내창천, 서쪽은 봉산리, 북쪽은 신안리와 연결해 있으며,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있어서 주변에 일찍이 원룸촌이 형성된 마을이다.



1	2
3	

서창리

- 1 오래된 집들과 고대가 들어오면서 생겨난 원룸들이 함께 있는 마을의 모습이다.
- 3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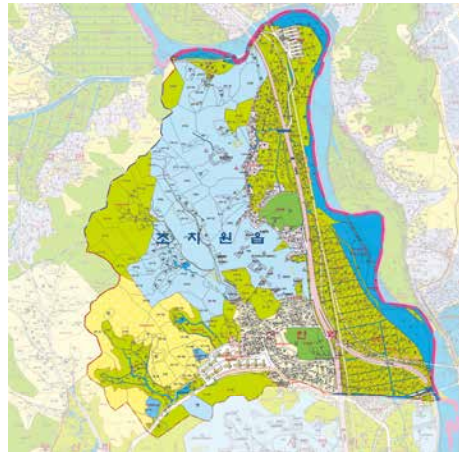
서창리 고대 후문쪽 거리모습



서창리

서창리에 전해지는 옛지명을 『한국지명총람』에서 확인해 보면, 내창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뒤산 백호 부리에 돌이 박히어 있다는 돌마루(石隅), 내창 서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모과나무가 있었다는 모가나뭇골(瑞谷), 내창리 남동쪽 큰 길가에 있는 마을인 새주막거리, 내창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에 행인의 편의를 도와주던 원이 있었던 원마루, 내창 뒤에 있는 골짜기인 선녀골, 돌마루 옆 동북쪽에 있는 옛 옥터, 토홍부곡의 옥이 있었다 하며, 또는 숙종때 경성판윤 최훤(崔煥)이 돌마루에 살면서 근처의 죄인을 가두던 터라고도 하는 옥터골, 돌마루 뒷산 기슭에 있는 바위로 좁은 바위 면에다 우암 송시열의 글씨로 ‘藏春塢장춘오’ 석 자를 새겼다는 장춘오바위(글씨바위, 이곳은 숙종 때의 경성판윤 최훤의 집터라 함, 원마루 동남쪽에 있는 조천에 놓은 다리인 청주강다리 등이 있다.

조치원읍 신안리(新安里)는 본래 연기군 북일면의 지역으로서, 숲이 무성하므로 숲골이라 하였는데, 이 숲골이 변하여 석골, 또는 신동이라 하였다. 『여지도서』에는 연기현 북일면 방리조에 신동리(薪洞里)가 연기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20리의 거리에 위치한다고 하였으며, 마을의 규모는 편호 120호, 남자 201구, 여자 189구라고 하였다. 신동리는 『호구총수』의 마을 명칭에도 등장한다.



조사대상 고성이씨, 고성이씨 사당 청안재, 무동처사의 묘소

일제강점기인 1914년의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군 서강외 일하면의 옥동, 정중리, 장대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신동리라 하여 북면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 조치원면을 신설함에 따라 서면에 편입되고, 1936년 조치원읍 확장에 의하여 조치원읍에 편입되어 신동과 안터의 이름을 따서 조치원읍 신안정(新安町)이라 하였다.

광복 이후인 1947년에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해 정(町)을 동(洞)으로 바꾸면서 신안정을 신안동으로 고쳤으며, 1988년에는 조치원읍 신안리가 되고, 다시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가 되었다.

신안리는 조치원읍 북단에 위치하며 동쪽은 조천, 남쪽은 서창리, 서쪽은 봉산리, 북쪽은 조천 및 충북 오송읍 상봉리와 경계하고 있다. 이곳에



1	2
	3

신안리마을

- 1 홍익대학교 주변 마을모습
- 2 홍익대 연수원앞 마을 모습
- 3 홍익대주변과 노적봉의 모습



1	2
3	

- 1 신안리마을
- 2 신안리마을 홍익대학교 정문
- 3 신안리 저수지 신안 이편한 아파트 뒤편에 있는 이 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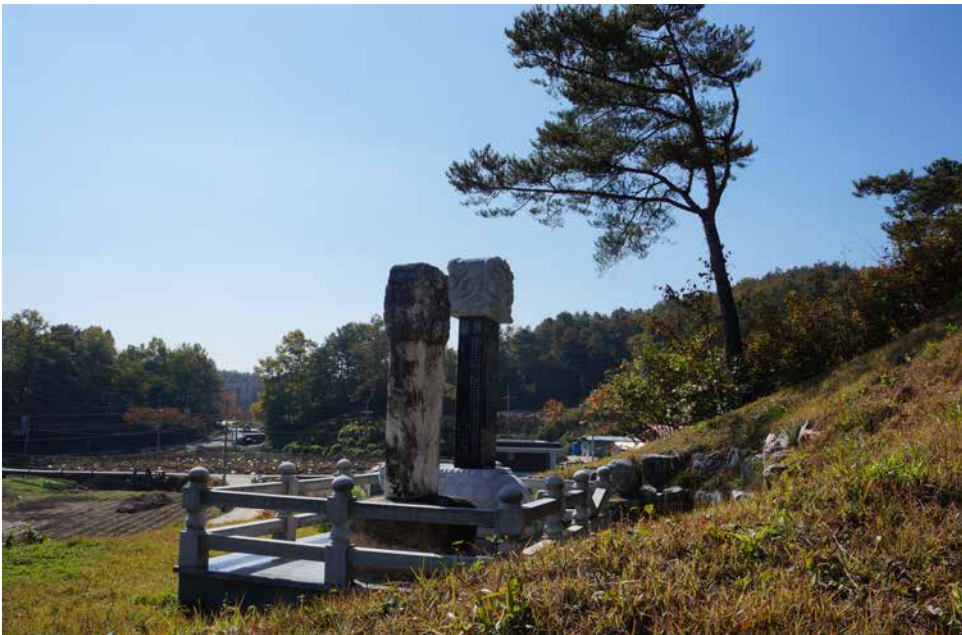
는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있어서 일찍부터 원룸촌이 형성된 마을이기도 하다.

『한국지명총람』에서 확인되는 신안리의 마을 명칭으로는 섯골 서북쪽 구렁에 있는 마을인 구렁말[巷村, 구렁섯골, 함천], 섯골 북서쪽에 있는 산으로 모양이 말굽과 같다는 마지산 밑에 있는 마을인 머지미[마지미, 馬廷里], 섯골 북서쪽 안골짜기에 있는 마을인 안터[內垵], 머지미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비옥한 토지가 있는 특골[土玉洞, 玉洞] 등이 있다.

또한 머지미 북서쪽에 있는 모시울다리는 전동면 모시울 앞이 되며, 조치원에서 전의로 통하는 길이었다. 옆에는 경부선이 지나는 모시울 철다리도 있다. 특골 뒤에는 노적봉이라 부르는 산이 있는데 높이 30m의 아주 작은 산이지만 그 모양이 노적가리 같아서 옛날 전쟁이 있었을 때에 많은 양식을 쌓아놓은 모습으로 보여 군사가 많을 것이라 생각한 적들이 쉽게 쳐들어 오지 못했다는 전설도 있다.

신안리 고성이씨 사암공파 ●●●

신안리에 거주하고 있는 고성이씨 사암공파는 파조가 고성이씨 시조 이황李璜의 12세손인 이지李埈(1420~1486)이다. 이지의 자는 승경升卿이고 호는 사암思庵이다. 사암공 이지는 문종조에 음서로 직장을 지내고, 세조조에 정난원종공신으로 판관을 지냈다. 세조 3년(1457) 정축년 별시 문과에 정과 2위(13명의 급제자 가운데 9위)로 등과하여 소윤, 장령, 사간원 사간을 지냈으며, 성종조에는 좌리원종공신으로 안변, 괴산, 원주, 광주 의 수령을 거치고, 돈녕부 정, 승문원 판교, 직예문관사를 지냈다. 아들이 귀하게 되어 가선대부 예조참판에 증직되었다. 배위는 연일정씨와 의령남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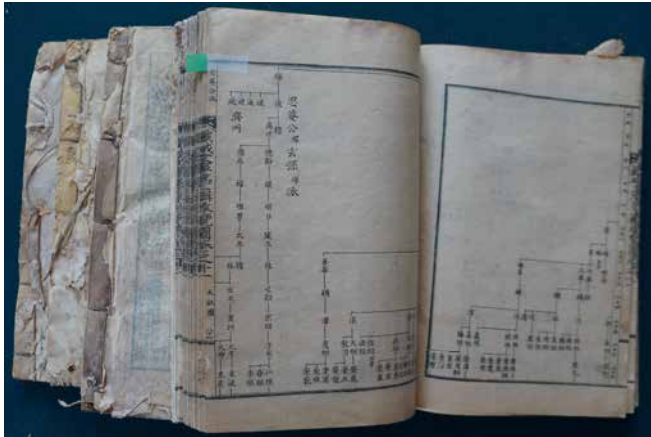
고성이씨 이맥의 신도비 신비와 구비를 나란히 세운 모습



1	2
---	---

고성이씨 이맥의 신도비

- 1 舊碑 2 新碑



- | |
|---|
| 1 |
| 2 |
| 3 |

1 고성이씨 족보 범례 및 족보서문자료
2, 3 고성이족보 표지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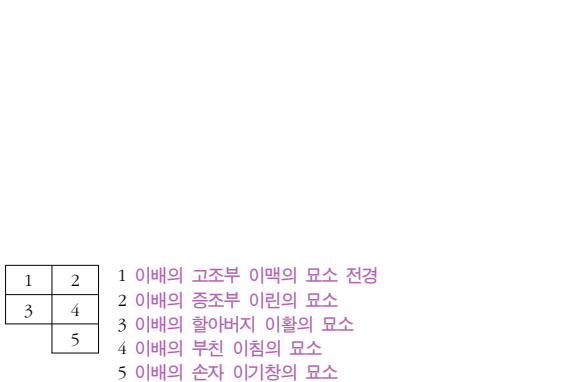
- 1 고성이씨 용암리 묘역전경
- 2 고성이씨 묘역에서 바라본 모습
- 3, 4 고성이씨 신안리 입향조 이배의 묘소

고성이씨의 신안리 입향조는 청안현감을 지낸 이배李培(?-?)로 알려져 있다. 입향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괄의 난을 피하여 연기 서면으로 왔다고 한다. 족보의 기록에 의하면, 이배는 현감을 지냈다고도 하고, 또는 참의를 지냈다고도 되어 있다. 이배의 배위는 남양홍씨로 절충장군 상호군 홍전洪漣의 딸인데, 증조부가 연서면 신대리의 직장 홍순손, 외조부가 연서면 청나리의 강릉김씨 사과 김봉조이다. 신대리 이배의 처 증조부인 홍순손의 신대리 입향시기가 16세기 초이고, 이괄의 난이 발발한 것이 17세기 초이니, 신안리 고성이씨의 입향시기는 17세기 초로 잡아도 무리가 없을 듯 하다. 입향사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괄의 난을 피하여 낙향할 때에 처가가 있는 곳으로 왔을 가능성이 높다.

1729년(崇禎 再己酉)에 편찬된 필사본 고성이씨 족보에 의하면, 이괄과 이배는 모두 사암공 이지李堉의 5세손으로 10촌간이다. 계보를 정리해 보면, 이괄의 선계는 이지李堉 → 제1자 이륙李陸 → 제2자 이교李曠 → 제2자 이택李澤 → 제3자 이제李礪 → 제3자 이괄李适로 이어지며, 이배의 선계는 이지 → 제4자 이맥李陌 → 제1자 이린李麟 → 제1자 이활李活 → 제1자 이침李礎 → 제3자 이배李培로 이어진다.

이괄의 난이 진압된 후 고성이씨 가운데 이괄과 가까운 친척들은 화가 미칠까 두려워 뿔뿔이 흩어졌고 그 중 일부가 서면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으며, 그 후 후손이 번창하면서 신안리에도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 신안리에 살고 있는 후손의 14대조부터 11대조의 묘소가 서면에 있고 10대 이하는 신안1리 안산에 묘소가 있다고 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신안1리는 고성이씨의 집성촌이었으나,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1990년대 초에 이르르면 대부분이 대전 청주 등지로 옮겨가고 현재는 몇 가구만 남아있다.

고성이씨의 후손 중에는 한말의 사상가이며 애국계몽가인 이기李沂(1848-1909)가 있다. 그는 일찍이 실학을 연구하여 정약용, 유형원 등의 학통을 계승하고 장지연 등과 대한자강회를 조직하여 민중계몽과 항일운동



- | | |
|---|---|
| 1 | 2 |
| 3 | 4 |
| | 5 |
- 1 이배의 고조부 이맥의 묘소 전경
 - 2 이배의 증조부 이린의 묘소
 - 3 이배의 할아버지 이활의 묘소
 - 4 이배의 부친 이침의 묘소
 - 5 이배의 손자 이기창의 묘소

을 하였으며 1907년 결사대 자신회를 조직하여 을사 오적신의 암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또한 1930년생으로 현재 생존해 있는 인물인 이기백李基百은 육군대장으로 예편했는데, 합참의장, 국방부장관 등을 역임하였다.

고성이씨 사당 청안재 ●●●

신안리의 서낭당 고개가 있었던 뒤편에는 고성이씨의 사당 겸 재실인 청안재가 위치하고 있다. 청안재淸安齋는 서면에 입향한 이배李培의 호를 따서 지은 것으로, 경기도 광주에 있던 고성이씨 선조들의 묘소가 개발로 인해 서면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종회에서는 재실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여겨 2003년에 건립했다고 한다. 고성이씨의 선산은 연서면 용암리 위지울 마을에 있다. 선산에는 입향조의 초장지인 묘소가 있고 입향조 선대들의 천장한 묘지 등이 조성되어 있다. 천장과 함께 신도비도 옮겨와 묘역 입구에 세워 놓았다. 각 묘소 앞에는 구비와 신비, 상석과 문인석, 석주 등이 있다.



청안재



청안재



고성이씨 시제모습



1	2
3	4

고성이씨 인물들
 1 이기백 장군(중앙)
 2~4 신안리 고성이씨 입학조 이배의 후손들

무동처사의 묘소 ●●●

중뚝에서 봉산리로 넘어가는 고개 부근에는 깊은나무골이 있다. 이곳에는 조선 초기의 유명한 선비인 유윤(柳潤(?~1476)의 묘소가 있다. 유윤은 서산유씨로 조선초기 문신인 유백유의 손자이다. 부친은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 유희(柳淮)이다. 문장에 능하여 어린 나이에 진사가 되었다. 단종이 폐위되자 세상일을 버리고 청주 무동에 은거하여 도학 연마에 진력하였다. 세조조에 여러번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자 세조가 어필로 ‘무동처사(無洞處士)’ 4자를 내리기도 하여 그의 호가 되었다고 전한다.

청주에 살던 유윤의 묘소가 어떻게 신안리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후손들 역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고 한다. 다만 묘소가 위치한 깊은나무골(지푸네골) 부근의 땅이 서산유씨들의 선산이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현재에도 후손들이 마을에 터를 잡고 있는 점으로 보았을 때 전통시대부터 이곳에 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조치원읍 신흥리는 20세기 이전에는 본래 연기군 북일면의 지역으로 별관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의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조치원리의 일부를 구성하였는데, 조치원리는 1917년에 조치원면이 신설되면서 조치원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조치원면은 1931년에 조치원읍이 되었고, 나아가 이 지방이 갑자기 번창



조사대상 아홉거리 전설, 경주이씨, 파평윤씨

해짐에 따라 1940년에 조치원리가 나뉘면서 이 지역은 새로 일어난 곳이라는 뜻에서 왜식 동명으로 신흥정新興町이라 하였다.

광복 이후인 1947년에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정町을 동洞으로 고치면서 신흥동新興洞이 되었고, 다시 1988년 조치원읍 신흥리가 되었다가,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가 되었다.

신흥리는 조치원읍의 서단부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은 경부선과 죽림리, 서쪽은 서면 월하리, 남쪽은 죽림리, 북쪽은 봉산리와 연결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서 확인되는 마을 이름으로는 아홉거리, 백관, 새터 등이 있다. 새터는 신흥동에서 가장 큰 마을인데 처음에는 외딴 곳에만 새로 터를 잡았다 하여 새터라 하였으나, 조사 당시인 1970년대에는 가장 큰 마을이 된 곳이라 한다. 또한 이 새터[新垆, 큰말, 외딴말 서쪽에 있는 마을

로 아홉갈래의 길이 있었으며 변화한 시장이 서던 곳인 아홉거리(九巨里),
 새터 서남쪽에 있는 큰 마을인 백관(白官) 등이 있다. 아홉거리에는 변화함



1	2
3	4

신흥리

- 1 조지원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형성 되었다.
- 2 아직 남아있는 과수원 너머로 아파트가 보인다.
- 3 신흥2리 마을회관의 모습

을 알 수 있는 전설이 전하고 있으며, 백관에는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1	2	신흥리 3 백년된 저수지
3		

아홉거리 전설

조치원읍 신흥리에는 아홉거리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신흥사거리에서 연서면 고북저수지 방향으로 구룡의 정상부분에 시민체육관이 있는 장소인데 이 주변을 아홉거리라고 부른다.



1	2
3	4

아홉거리

- 1 아홉거리 표지석
- 3 아홉거리에 위치한 세종시민체육관 정면

- 2 시민 현장탑비
- 4 아홉거리에 위치한 세종시민체육관 옆면



아름거리

아홉 거리는 아홉갈래의 길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오가니 자연 북적거렸다.

예전의 아홉거리는 백관 가는 길, 독내동(현 죽림동) 가는 길, 청거리(현 월하리)시장 가는 길, 창뜰(현 쌍전리) 가는 길, 뜰옥골(현 서면 연화사) 가는 길, 방축골(현 봉산동) 가는 길, 의랑터, 공동묘지(당시 지명은 다르다), 새터(현 침산동) 가는 길 이렇게 아홉 갈래의 길이 있고 아홉 거리 앞에는 주막이 하나 있었다. 『연기실록』(1981년, 연기군)에는 아홉거리 주막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청거리 시장이 제법 컸는데 이곳은 시장이 아닌데도 사람이 북적거리는 곳으로 바로 아홉 거리였다. 아홉 거리는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장사꾼도 있고 또한 바쁘게 한양길에 오르는 선비들도 있고 해서 항상 주막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청거리 시장은 오일장으로 장이 설 때만 사람이 많았지만 아홉거리는 평소에도 사람이 많았다. 어느 날인가 떠돌이 놀이패들이 주막 한쪽에 자리 잡고 재주를 부리기 시작했다. 먼저 풍장을 요란스럽게 치니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기 위해 몰려들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우선 신명나는 풍장 한 마당이 연주 되었다. 구경꾼들 조차 어깨가 들썩들썩 거렸다. 다음 재주 마당으로 넘어갈 때였다. 웬 가마 하나가 당도했다. 가마꾼은 몹시도 소변이 마려워서 쉬었다 갈 겸 우선 뒷간에 들러 소피를 보고 구경꾼들이 모인 곳을 기웃거렸다. 그때였다. 다른 쪽에서도 똑같은 가마가 당도하여 먼저 당도한 가마 옆에다 가마를 놓고 역시 가마꾼 들은 참았던 소피를 보기 위해 뒷간에 갔다.

그리고 소피를 본 후 여기 사람들을 헤집고 구경을 하기 위해 안을 들여다보니 작고 예쁜 소녀가 때때옷을 입고 부채를 가지고 빗줄 위에서 신기할 정도로 춤을 추고 있었다. 악사들은 그 옆에서 신나는 음악을 연주했다. 소녀의 재주가 끝나고 뒤에 오른 젊은 줄꾼은 줄 위에서 마치 생각대로 척척해내는 요술장이처럼 앉았다 일어섰다 뒤로 넘어 앞으로 넘어며 관중을 현혹시켰다. 가마를 메고 온 가마꾼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연에 속 빠져 그저 잘하면 박수치고 신명나는 풍장소리에 어깨를 들썩거리다 정신 차려보니 빨리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같이 온 동료들을 불러서 가마를 들고 출발했다. 나란히 놓여진 가마는 겉모양이 똑같았다. 표시한 것도 아니고 또 가마가 바뀌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고 그저 놀이패의 재주를 다 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한스럽다며 길을 재촉했다. 그런데 먼저 출발한 가마는 공주에서 청주로 가는 가마로 여자 집이 갑자기 역적으로 몰려 집안이 망하게 되자 그 집의 딸이 아름답고 품행이 단정하다는 말을 듣고 청주에 사는 친구가 하인을 시켜 몰래 여자만 데려 오라 하여 가마꾼이 여자를 모셔가는 중이었다. 청주의 양반 집에서는 공주에 사는 친구가 역적으로 몰려 딸만 데려다 아들과 혼례를 올려줄 계획이어서 아무도 모르게 데려 오라했고 어제 밤에 몰래 공주에서 출발하여 오늘 점심때쯤 이곳 아홉 거리에 당도한 것이다.

다른 하나의 가마는 강 건너 비룡소(현 금남면 용담리)에 사는 여인으로 집안이 가난하여 먹을 것조차 없는 집인데 딸 하나는 암전하고 총명하게 길러 전의에 사는 박부자 집과 혼례를 치루려 하는데 남자 집은 돈은 많으나 아들이 좀 모자라 중매가 들어오지 않자 가난한 비룡소 농부의 딸을 돈과 밭을 사주고 데려오는 것이었다. 그러니 두 가마의 두 여인은 지금 혼례를 올리러 가는 중이고 모양이 똑같은 가마이기 때문에 아홉 거리에서 가마가 바뀌어도 서로 모르고 떠난 것이다.

먼저 도착한 곳은 전의 박부자 집이다. 박부자는 시골의 농부딸을 데려온다 하여 분명 차림새는 피재재 할 것이라며 미리 좋은 옷과 목욕물을 준비하여 놓았기 때문에 여자 하인이 가마를 조심스레 열고 여인을 나오라고 했다. 그런데 가마에서 나온 여인은 옷이 깨끗하고 목욕을 하지 않아도 품행이 단정하며 아름답게 하고 왔다. 아마 비룡소 농부집에서 목욕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장만하여 보낸 줄로 생각하고 안방으로 모셨다. 바깥에서는 혼례상을 차린다 음식을 마련하느라 야단법석이었다.

한편, 다른 하나의 가마는 청주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오늘 안으로 들어가야 내일 혼례를 치르기로 되어 있으니 아까 아홉거리에서 재주꾼들의 재주를 보느

라고 빼앗긴 시간 때문에 바른 걸음을 재촉하여 청주에 도착하니 저녁때가 되었다. 주인은 가마꾼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는 아무에게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피곤할테니 가서 쉬라고 하고는 여자 하인을 시켜서 가마 안에 있는 여인을 준비한 방으로 모시라고 했다. 그런데 가마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니 옷은 남루하여 여러번 꿰맸으며 목욕을 하지 않았는지 피부가 검었다. 그것을 보고는 혼자말로 그 친구 역적의 누명을 쓰더니만 딸에게 남루한 옷을 입혀서 변장을 시켰구먼 하고는 하인을 시켜서 목욕을 시킨 후 새 옷으로 갈아 입혔다.

역시 다음날 동네 사람이 다 모인 가운데 성대히 혼례식을 치루었다. 세월이 흘러 공주에서 역적의 누명을 쓴 친구가 누명을 벗게 되었다. 그래서 흠어졌던 식구들이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청주에 사는 친구는 기쁜 나머지 며느리에게 이제는 집에 다녀와도 좋다. 너의 집 역적 누명이 벗겨졌단다 하고 좋아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며느리는 통 알아듣지를 못하는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래 역적으로 몰려 마음 고생이 심해서 대답을 못하는구나 하고 며느리를 가마에 태워 집에 다녀오라며 보냈다.

그때쯤이었다. 전의에서도 혼례를 마치고 모자라는 신랑과 신혼을 보내고 있는 새아기는 매일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 사실을 박부자는 집에 한 번 갔다오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하인을 시켜서 비룡소 친정에 다녀오라 했다. 그런데 가마를 타고 간 새댁은 깜짝 놀랐다. 우리집은 분명 공주에서 몇 번째 안가는 부잣집이고 역적으로 몰려 집안이 풍비박산 되기도 했지만 집이라 해서 간 곳이 비룡소 어느 농부 집이니 기가 막혔다.

비룡소 농부의 딸 또한 깜짝 놀랐다. 친정집이라고 간곳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가마가 바뀐 사실을 안 양쪽에서는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난감했다. 이렇게 복잡해서 생긴 일이 아홉거리에서 일어났으며, 그 후에도 연기군은 교통의 요지답게 경부선 철로, 국도 1호선, 고속철도 등 가장 먼저 가장 많은 교통시설이 설치되었다.

신흥리 경주이씨 재사당공파●●●

신흥3리에 주로 거주하는 경주이씨는 면담자의 5대조인 이집상李集祥이 150여년 전 연산(지금의 논산시 연산면 일대)으로부터 이거해 온 것이라고 한다. 후손의 전언에 의하면 이집상이 처음 이곳으로 들어 왔을 때 마을에는 5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그 후 경주이씨 문중이 커지면서 신흥리를 대표하는 성씨가 되어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는 40호 정도가 살았고, 현재는 10가구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집상의 묘비엔 전쟁 때 맞은 총탄의 흔적이 있다고 한다.



경주이씨족보

족보를 통해 확인해 보면, 이집상의 선대 묘소는 일음동 대동평인데 반해, 이집상의 묘소는 월봉 안산이며, 이집상 조카인 이환영의 묘소 또한 연기 북면 신대 안산이다. 따라서 당시 연산으로부터 이곳으로 이주해 올 때에 이집상 단독으로 온 것이 아니라 조카를 비롯한 일가가 함께 옮겨오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정확한 입향 연유는 알 수 없으나 현재 10촌간이 신흥리에 살고 있다. 또한 현재의 입향조 이집상 묘소는 세종시청이 있는 자리가 연기군청이 될 때에 놀왕리로 이전하였다.

신흥리 파평윤씨 장령공 침사공파●●●

신흥리 파평윤씨는 장령공 침사공파로 19세기 중반에 윤자인尹滋仁(1853~1932)이 입향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윤자인尹滋仁의 자는 덕원(德元)이며 배위는 경주최씨이다. 입향 내력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후손의 전언에 의하면 한양 주변에 거주하다가 당파 싸움 등을 피하여 낙향하



신흥리 파평윤씨족보

였다고 한다. 윤자인은 당시 신흥리에 터를 잡아 살면서 많은 재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 후 후손 3~4세대가 넉넉한 기반 위에서 신흥리의 대 문중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윤자인과 그의 아들 윤상덕의 묘소는 족보에 ‘청주시 서원동 후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흥리에 터를 잡고 살던 당시에

명당터를 찾아 청주에 묘소를 쓸 정도로 부를 이루었다는 증거라고 후손은 전한다.

신흥리의 파평윤씨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윤석우란 인물이 인민군에 연루되어 이후 형제 조카들의 진로가 막히고 문중은 좌절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윤석우는 조치원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신문사 기사를 할 만큼 수재였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전쟁 당시에 사망하여 현재는 묘소도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문중의 인사들은 당시의 상황을 ‘집안이 서리를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특히 그의 5촌 조카는 육사에 당당히 합격하였으나 신원조회에서 연좌제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었으며, 후에 LG그룹 공채시험에서도 7~8천명 응시생 가운데 당당히 1등으로 합격할 만큼 수재였다는 자랑과 함께 안타까움을 담아 전한다.

면담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파평윤씨는 윤자인尹滋仁으로부터 현재까지 160여년 동안 신흥리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조치원읍 원리는 20세기 이전에는 본래 연기군 북일면 지역으로 별판이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의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북면 조치원리의 일부를 구성하였는데, 조치원리는 1917년에 조치원면이 신설되면서 조치원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조치원면은 1931년에 조치원읍이 되었고, 나아가 이 지방이 갑자기 번창해짐에 따라 1940년에 조치원리가 나뉘어지면서 이 지역은 일인들이 차지해 살고 있었으므로 본정本町 2정목二町目이라 하였다.

광복 이후인 1947년에 왜식 동명 변경으로 정町이 동洞으로 바뀌면서 원동元洞으로 고쳤다가, 1988년 연기군 조치원읍 원리가 되었고,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가 되었다.

원리라는 지명은 조치원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고 조치원역이 들어서면서 크게 발전하였고, 1950년을 전후하여서는 원리에 경찰서와 임시 읍사무소, 중앙극장, 양조장, 청과시장 등 상업과 관공서 등이 들어서는 중심 지역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조사대상 연기현감 허만석과 곤디기보



원리

1	2
3	4
5	6

- 1 원리 농협앞 회전 로타리
- 2 원리 역전골목
- 3 역앞 버스정류장 이곳에서 공주와 청주, 전의, 정부청사등 세종시의 가장 많은 노선이 정차한다.
- 4 농협로타리에서 청주방향
- 5 조치원역의 모습
- 6 조치원재래시장 입구

재래시장으로 100년의 전통을 가진 조치원시장이 있어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원리에 전해지는 지명으로 장터에 있던 오구미뚝방이 있다. 이 곳은 3천여평이나 되었는데, 뚝방 가운데 조치원과 청주를 이어주는 중교라는 다리가 있었으며, 낚시터로도 유명하였다. 보은덕보라고도 부르는 곤디기보가 있다.

연기현감 허만석과 곤디기보●●●

곤디기보는 조치원 앞 들에 있는 보로 보은덕보라고도 불렀다. 이 보는 조선초기 허만석이 연기현감이 되어 쌓은 것이다. 『세종실록』

에 의하면, 허만석(許晩石)은 1427년(세종 9) 7월 21일 연기현감에 제수되어 부임지로 떠나기 위해 세종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다. 이 때에 세종은 불러 보고 말하기를, “요사이 한재(旱災)로 인하여 백성들이 산업을 잃었으니, 각기 마음을 다하여 기근을 구제하라.” 하였다. 연기현감으로 부임한 허만석의 치적에 대해서는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연기현 명환조에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허만석(許晩石) : 정사는 근검(勤儉)을 위주로 하였다. 현 북쪽 15리에 냇물을 막아 큰 방죽(堤)을 만들어 천 경(千頃) 남짓한 논에 관개하였는데, 그 방죽이 청주 지경에 있다. 처음 방죽을 쌓을 적에 만석이 몸소 이를 감독하니, 청주 사람 천명 백명이 때를 지어 와서 불손(不遜)한 말을 하고, 만석이 걸터앉은 호상(胡床)을 꺾어 버리므로 만석이 활을 당겨 쫓으니, 청주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방죽이 이루어지자, 백성들이 그 몽리(蒙利)에 힘입어 지금까지 칭송하고 있다.



조치원재래시장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시장이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허만석의 은덕을 갚겠다는 뜻으로 보은덕비를 평리 앞에 세웠으므로, 보은덕보라 하던 것이 변하여 곤디기보가 되었는데, 수 백년을 내려오는 동안에 비석이 전복되어 땅에 묻혔으므로 이제 묻힌비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조치원읍 정리는 20세기 이전에는 본래 연기군 북일면 지역으로 별판이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북면 조치원리의 일부를 구성하였는데, 조치원리는 1917년에 조치원면이 신설되면서 조치원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조치원면은 1931년에 조치원읍이 되었고, 나아가 이 지방이 갑자기 번창해짐에 따라 1940년 조치원리가 나뉘면서 이 지역은 조치원읍 영정(榮町)이라 하였다.



광복 이후인 1947년에 왜식 동명 변경으로 정(町)이 동(洞)으로 바뀌면서 정동(眞洞)으로 고쳤으며, 다시 1988년 연기군 조치원읍 정리가 되고, 다시 2012년 7월 세종시 조치원읍 정리가 되었다.

정리는 조치원읍의 중심에 있으며, 동쪽은 명리 남쪽은 남리 서북쪽은 원리와 접해 있다. 마을의 대부분이 상업지역으로 재래시장의 중심이기도 하다. 재래시장 안에는 가마니전, 고추전, 마늘전, 싸전, 어물전, 채소전, 유기전, 순대골목 등이 있다.



1	2
3	4

정리

- 1 예전 정동이라 불릴 때부터 방앗간을 했다는 이집은 그래서 정동방앗간이다.
- 3 정리는 원리와 함께 조치원계래시장의 중심지이다.
- 4 마을회관의 모습

조치원읍 죽림리는 20세기 이전에는 본래 연기군 북일면의 지역으로 조천뚝 안쪽에 있으므로 독안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죽안, 또는 죽내竹內가 되었다. 『여지도서』에는 연기현 방리조에 죽내리竹內里가 수록되어 있으며, 위치는 연기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10리의 거리고, 규모는 편호 22호, 남자 47구, 여자 59구라고 하였다.



조사대상 죽다리기, 화순최씨

일제강점기인 1914년의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연기군 북면 죽내리竹內里가 되었다가 1917년 조치원면을 신설함에 따라 서면에 편입되고, 1939년 조치원읍에 편입되어 조치원읍 죽림정竹林町이라 하였다.

광복 이후인 1947년에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해 정町이 동洞으로 바뀌면서 죽림정을 죽림동竹林洞으로 고쳤으며, 1988년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가 되었다가, 다시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가 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죽림리의 분퇴墳堆거리[도장말, 원마루]는 죽내 동쪽에 있는 마을로 옛 무덤이 많았다. 산막山幕은 술전거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산기슭에다 막을 짓고 살다가 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술전거리[筮鋪]는 분퇴거리 북쪽에 있는 마을이며 술 공장이 있었다.



죽림리

이 마을에는 분퇴머리에 있는 옛 무덤인 적석총積石塚 속에서 무늬없는 토기와 등 모양의 청동띠 갈구리가 나왔다고 하며, 죽안 앞에 있는 들을 죽안들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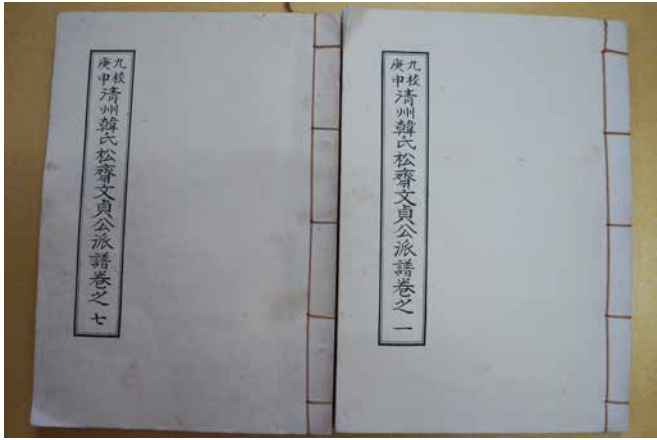
1824년 『연기지』에는 조선시대 축조된 방죽으로 흑암제언黑岩堤堰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위치도 알 수 없다.

죽림리 줄다리기 ●●●

연기문화원에서 발간한 『연기군의 지명유래』(2007년 발간)에는 죽림리 줄다리기가 소개되어 있다. 현대식 병원이 없던 시절에는 해마다 봄철에 홍역이 돌아 아이들이 고생을 했다. 홍역은 심한 해가 있고 별 피해가 없는 해도 있었다. 심할 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밧줄을 매고 마을의 언덕으로 올라간다. 여자는 밑에서 남자는 위에서 줄을 당기며 줄다리를 하는데 여자쪽으로 남자가 끌려간다. 이렇게 술전거리나 병막까지 간 다음 동네 밖에서 밧줄을 불태웠다. 이것은 병을 동네 밖으로 내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줄다리를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광복 직전인 1943년경이라고 한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더 이상 줄다리를 하지 않고 있다.

죽림리 화순최씨 두경공파 ●●●

죽림리에는 화순최씨 두경공파가 거주한다.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족보 [갑자보(1984년)]의 기록에 의하면, 최두경崔斗敬(1618~1664)이 조치원과 처음 연고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최두경의 초휘는 영원永元이며, 자는 치경致敬으로, 어렸을 때에 출타하여 화순으로 돌아가던 중 궁촌宮村에 이르러 박씨 집안에 장가를 들었으며, 묘소는 연기군 조치원읍 번암동에 위치한다고



화순최씨 족보

하였다. 또한 배위인 밀양박씨(1617~1674)는 박수신(朴守信)의 딸로 일남을 낳았으며, 묘소는 함평(咸平)이라고 하였다.

이후 최두경 후손들의 묘소도 대부분 변암동에 위치하였다. 원래는 오늘날의 세종경찰서가 있는 자리였으나, 30여년 전에 전동면 미곡리로 이장하였다. 경찰서가 위치한 변암동은 현재 군청로로 변경되었고, 죽림리와는 이웃하는 마을이다. 집안에 소장된 족보로는 무술보(1958년), 갑자보(1984년), 기축보(2009년) 등이 있다.

조치원읍 침산리는 20세기 이전에는 본래 연기군 북일면 지역으로 방아미산이 있으므로 방아미, 또는 침산^{砒山}이라 하였다. 『여지도서』 연기현 방리조에는 북일면 침산리^{砒山里}가 연기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18리의 거리에 위치한다고 수록되어 있으며, 규모는 편호 55호, 남자 115구, 여자 127구라고 한다. 『호구총수』 북일면의 마을 중에는 침송리^{砒松里}와 내창리^{內倉里}가 수록되어 있다.



조사대상 침산추월

일제강점기인 1914년의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신대리, 백관리, 내창리의 각 일부와 충청북도 청주군 서강의 일하면의 장대리, 평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침산리라 하여 북면에 편입하였다가, 1917년 조치원면이 신설되면서 조치원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조치원면은 1931년에 조치원읍 침산리가 되었고, 1940년 왜식 동명으로 바뀌면서, 일인의 신궁 아래에 있다 하여 궁하정^{宮下町}이라 하였다.

광복 이후인 1947년에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해 정^町이 동^洞으로 바뀌면서 다시 침산동^{砒山洞}으로 고쳤고, 1988년에는 연기군 조치원읍 침산리가 되었다가,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가 되었다.

1824년의 『연기지』에는 침산제언이 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현재는 위치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 연기팔경에 속하는 침산추월이 있는 마을이다.



1	2
3	4

침산리

1 총령탑에서 바라본 모습

4 세종시문화예술회관이 보인다.



침산추월

침산추월 ●●●

침산추월(砧山秋月)은 연기팔경 가운데 하나이다. 조치원읍 침산리에 위치한 침산공원이 있는데 이곳의 가을밤에 비추이는 달빛은 그 경치가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참고로 연기팔경은 다음과 같다.

- ① 오봉산의 낙조(五峰落照, 서면 동리)
- ② 침산의 가을달(砧山秋月, 조치원읍의 서쪽)
- ③ 용당의 기암(龍塘奇岩, 동면 명학리)
- ④ 동진의 고기잡이 배(東津漁火, 금강 상류)
- ⑤ 당산 봉우리에 아지랑이 개인 모습(唐岬晴嵐, 남면 연기리)

- ⑥ 비암사의 새벽 종소리(碑岩曉鍾, 전동면 다방리)
- ⑦ 고려의 오래된 성(高麗古城, 전의면 고등리)
- ⑧ 금강으로 돌아오는 돛단배(錦江歸帆, 금남면 대평리)

조치원을 평리는 20세기 이전에는 본래 충청북도 청주군 서강외일하면의 지역으로 별관에 있으므로 별말 또는 평리^{坪里}라 하였다. 『여지도서』 청주목 방리조에에는 서강외일하면 평리^{坪里}가 청주목 치소 관문으로부터 40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그 규모는 편호 65호, 남자 86구, 여자 87구라고 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북면 조치원리의 일부를 구성하였는데, 조치원리는 1917년에 조치원면이 신설되면서 조치원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조치원면은 1931년에 조치원읍이 되었고, 나아가 이 지방이 갑자기 번창해짐에 따라 1940년에 조치원리가 나뉘어지면서 이 지역은 왜식 동명으로 조치원읍 소화정^{昭和町}이라 하였다.

광복 이후인 1947년에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해 정^町이 동^洞으로 바뀌면서 평동^{平洞}으로 고쳤다. 1988년 연기군 조치원읍 평리가 되고, 다시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조치원읍 평리가 되었다.

『동국문헌비고』(1770년)의 기록에 조치원장이 4일과 9일에 열렸음을 알 수 있고, 1925년 신·구 시장이 합병되기 전까지는 조치원의 중심지였던



조사대상 보은덕비와 허만석 전설



수원지라 부르는 정수장이다



수원지 주변 공원

곳이다.

현재 수원지 뒤편 하천둔치는 1900년초까지도 갈대가 우거진 땅이었는데 아이가 죽으면 이곳에 장례를 지내는 장소로 애장터로 불리던 곳이었다. 이곳에 1935년 조치원 상수도 취수, 정수시설인 수원지가 생기면서 주변을 공원화하여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으며, 조치원 도서관이 있었다가 도서관이 있던 자리에 서울시립의원이 들어서 있다. 조선초 연기현감을 지냈던 허만석이 쌓았다는 제방이 『동국여지승람』과 『목민심서』 등에 소개되어 있다.

보은덕비와 허만석 전설 ●●

조치원을 평리의 조천천 독에 비석이 하나 서 있었는데, 그 비석에 대한 전설이 다음과 같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1	2
3	4

- 1 조천 풋말 허만석을 기리는 비석이 있었을 장소로 추정되나 지금은 흔적을 찾을수 없다
 2 조천변의 가을 모습
 3-4 허만석로 조선시대 연기현감 허만석의 업적을 기리는 도로이름이다

조선 초기에 허만석이라는 현감이 연기로 부임하여 왔다. 그는 매우 의욕적으로 일했고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현감이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새내(조치원의 옛 이름)로 왔다. 넓은 들판이 지대가 낮아 비만 오면 물에 잠긴다는 보고를 받고 현감은 보를 쌓기로 했다. 보를 쌓아야 들판이 물에 잠기지 않고, 가뭄이 있을 때에는 그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현감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보를 쌓기 시작했다. 그런데 보를 쌓는 곳이 청주 땅이라 청주 사람들이 땅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며 슬렁거리더니 힘센 장정들을 앞세워 작업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보를 쌓다가 연기 사람들은 청주 사람들에 밀려 모두 도망치고 말았다. 이때 현감이 나서서 맨 앞에서 방해하는 덩치가 큰 청주 사람을 번쩍 들어서 땅에 내던지고 활을 당겨 겨누자 청주 사람들이 모두 도망쳤다.

현감의 지휘 아래 보를 쌓는 작업이 마무리되자 연기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였다. 그때부터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들판이 침수되지 않았고, 가뭄에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었다 한다. 연기 사람들은 현명한 현감 덕분에 해마다 농사를 잘 짓게 되었으므로 이에 보답하고자 공적비를 세웠는데, 이 비를 보은덕비(報恩德碑)라고 불렀다 한다.

현재 이 비는 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일제가 연기군의 많은 사람들이 허만석 현감을 칭송하며 일제의 여러 가지 정책에 반대하자 이 비를 물어버리고 비가 다시 땅위로 올라오면 조치원이 망할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퍼뜨려서 그대로 땅속으로 묻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은덕비와 허만석 현감의 이야기는 지역 주민 대부분이 알고 있으며, 그 분의 업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천 주변의 길 이름을 '허만석로'라 일컫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다.

허만석 현감은 앞서 조치원읍 원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종실록』에도 연기현감 제수 기사가 실려 있으며, 연기현 임지로 떠나기 전에 세종을 알현하고 세종으로부터 당시의 한재로 인해 발생한 백성들의 기근을 구제 하라는 하명을 받고 있다. 또한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연

기현 명환조에도 허만석 현감의 보를 축조한 업적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해지는 후대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추가되어 위와 같은 전설로 남게 된 듯 하다.

제3장 부강면의 터전과 뿌리



부강면의 터전과 뿌리



부강면 지역은 조선시대에 연기현(燕岐縣) 문의현(文義縣) 청주목(淸州牧)의 경계에 위치한 곳으로, 주로 문의현 삼도면에 속해 있었다.

조선후기의 『여지도서』를 통해 확인해 보면, 문의현 삼도면(三道面)은 문의현 치소의 서쪽에 위치하며 등동리(登洞里), 매폘리(梅浦里), 검담리(黔潭里), 오룡대리(五龍臺里), 단동리(斷洞里), 달산리(達山里), 대곡리(大谷里), 외천리(外川里) 등 모두 8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등동리, 매폘리, 검담리, 오룡대리, 달산리 등이 오늘날의 부강면과 관련이 있다. 이들 5개리에 대해 문의현 치소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편호, 남녀 호구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등동리(登洞里) - 25리, 편호 50호, 남자 96구, 여자 71구
- 매폘리(梅浦里) - 25리, 편호 26호, 남자 52구, 여자 48구
- 검담리(黔潭里) - 27리, 편호 70호, 남자 98구, 여자 93구
- 오룡대리(五龍臺里) - 30리, 편호 54호, 남자 63구, 여자 69구
- 달산리(達山里) - 27리, 편호 36호, 남자 62구, 여자 38구

청주목에 속해 있던 마을 가운데에는 남차이면(南次二面)의 19개리 가운데

행산리가 부강면과 관련이 있다. 『여지도서』의 기록에 의하면, 행산리(杏山里)는 청주목 치소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40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편호 44호, 남자 71구, 여자 54구이다. 또한 연기현에서 오늘날의 부강면과 관련이 있는 동일면 갈산리(葛山里)는 연기현 관문으로부터 25리의 거리이며, 편호 68호, 남자 160구, 여자 93구였다.

한편, 『호구총수』의 문의현 삼도면에는 등동리(登洞里), 매포(梅浦), 검금(檢金), 구평리(鳩坪里), 용포리(龍浦里), 오대(五臺), 달산리(達山里), 대곡리(大谷里), 상외천리(上外川里), 하외천리(下外川里) 등의 마을명이 등장한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는 군면 폐합에 따라 문의군(文義郡) 삼도면의 상외천, 하외천, 상삼리, 문곡, 호계, 자창, 달산, 남성, 유평, 구평, 도중, 대산, 신대, 신동, 대룡, 소룡, 동촌, 오대, 상검, 하검, 백운, 원촌, 조은, 등동, 노포, 매포, 마포의 27개 동리와 북면의 죽암리 일부, 이도면의 등동을 병합하여 외천리, 문곡리, 부강리, 검호리, 등곡리, 노호리의 6개리로 개편하고, 청주군 부용면으로 삼았다. 당시의 청주군 부용면 6개리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외천리 - 문의군 삼도면 상외천리, 하외천리, 상삼리, 북면 죽암리(일부)
- 문곡리 - 문의군 삼도면 문곡리, 호계리, 자창리, 달산리, 남성리(일부)
- 부강리 - 문의군 삼도면 유평리, 구평리, 도중리, 태산리, 신대리, 신동, 대룡리, 소룡리, 동촌, 오대리, 남성리(일부)
- 검호리 - 문의군 삼도면 상검리, 하검리, 백운리, 원촌
- 등곡리 - 문의군 삼도면 조은리, 등동, 노포리(일부), 이도면 등동
- 노호리 - 문의군 삼도면 매포리, 노포리(일부), 마포리(일부)

이후 부용면은 1949년에 청주군에서 청원군으로 편제되었으며, 1973년 7월 1일에는 남이면의 행산리·산수리가 부용면에 편입되었고, 1995년 3

월 1일에는 연기군 동면 갈산리 일원이 부용면에 편입되어 9개리가 되었다. 행산리 산수리 갈산리의 1914년 편제는 다음과 같다.

- 행산리 - 청주군 남차이면 신대리, 행산리, 마근리, 문산리, 비룡리(일부)
- 산수리 - 청주군 남차이면 산수동, 삼기리(일부)
- 갈산리 - 연기군 동일면 갈산리, 갈호리, 봉무동(일부)

2012년 7월 1일에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부용면 9개리 중 외천리를 제외한 나머지 8개리가 부강면으로 편제되어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었다. 한편 외천리는 부용외천리로 개칭되어 청원군 남이면(현재는 청주시 남이면)에 편입되었다.

그리하여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은 8개의 법정리와 31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8개의 법정리는 갈산리, 금호리, 노호리, 등곡리, 문곡리, 부강리, 산수리, 행산리 등이며, 행정리는 부강1리~15리, 행산1리~2리, 산수리, 문곡1리~3리, 등곡1리~3리, 노호1리~2리, 금호1리~3리, 갈산1리~2리 등의 31개 마을이다. 2012년 6월까지 31개의 행정리는 모두 청원군 부용면에 속하였었다. 이들의 마을 연혁을 법정리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부강면 면리 변천

마을명	조선후기	일제강점기	현대	2012년
1 갈산리	『여지도서』 연기현 동일면 갈산리(葛山里) 연기현 치소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25리, 편호 68호, 남자 160구, 여자 93구	연기군 동일면 칠메[갈산+갈호리] 봉무리 일부 →(1914)연기군 동면 갈산리	연기군 동면 갈산리 →(1995)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세종시 부강면 갈산리
2 금호리	『여지도서』 문의현 삼도면 검담리(黔潭里) 문의현 치소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27리, 편호 70리, 남자 98구, 여자 93구	문의군 삼도면 [검소]검시, 검담, 검회 +상검리, 하검리, 백운리, 원촌 →(1914)청주군 부용면 검호리	청원군 부용면 검호리	세종시 부강면 금호리

3	노호리	『여지도서』 문의현 삼도면 매포리(梅浦里) 문의현 치소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25리, 편호 26호, 남자 52구, 여자 48구	문의군 삼도면 [가루개, 갈호개, 노호, 노포] +매포리, 마포리 일부 → (1914)청주군 부용면 노호리	청원군 부용면 노호리	세종시 부강면 노호리
4	등곡리	『여지도서』 문의현 삼도면 등동리(登洞里) 문의현 치소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25리, 편호 50호, 남자 96구, 여자 71구	문의군 삼도면 [등골, 등洞] +조은리, 노포리 일부 → (1914)청주군 부용면 등곡리	청원군 부용면 등곡리	세종시 부강면 등곡리
5	문곡리	『여지도서』 문의현 삼도면 달산리(達山里) 문의현 치소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27리, 편호 36호, 남자 62구, 여자 38구	문의군 삼도면 [신대, 자창리, 혼암, 달산리, 호계리, 곡촌, 구사곡] → (1914)청주군 부용면 문곡리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세종시 부강면 문곡리
6	부강리	『여지도서』 문의현 삼도면 오룡대리(五龍臺里) 문의현 치소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30리, 편호 54호, 남자 63구, 여자 19구	문의군 삼도면 [유평리, 구평리, 도중리, 대산리, 신대리, 신동, 대룡동, 소룡동, 동촌, 오대리, 남성리 일부] → (1914)청주군 부용면 부강리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7	산수리		청주군 남치이면 [칠산, 갈곡, 삼거리, 수산] → (1914)청주군 남이면 산수리	청원군 남이면 산수리 → (1973)청원군 부용면 산수리	세종시 부강면 산수리
8	행산리	『여지도서』 청주목 남치이면 행산리(杏山里) 청주목 치소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40리, 편호 44호, 남자 71구, 여자 54구	청주군 남치이면 [행산, 신대리, 마근리, 문산리, 비룡리 일부] → (1914)청주군 남이면 행산리	청원군 남이면 행산리 → (1973)청원군 부용면 행산리	세종시 부강면 행산리

부강면 갈산리는 조선후기에 연기현 동일면에 속한 지역이다. 여지도서에는 갈산리葛山里가 연기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25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편호 68호, 남자 160구, 여자 93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조사대상 밀양박씨

일제강점기에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기군 동일면 칠미갈산에 갈호리 봉무리 일부를 병합하여 연기군 동면 갈산리라 하였다. 이후 1995년 3월 1일 충청남도에 속해 있던 갈산리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에 편입되었다가, 2012년 7월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과 함께 세종시 부강면으로 편입되었다.

갈산리의 지형은 동쪽은 산지이고, 서쪽은 평지이며, 철도가 가까이 있다. 자연마을에는 상갈, 하갈, 봉무, 칠미, 석골, 옷골이 있다. 동은 부강리, 서는 동면, 남은 부강리, 북은 산수리와 접하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연기군 동면 갈산리에서 확인되는 마을 이름으로는 갈산갈산리, 칠미, 불뫼골(봉무뫼), 상갈, 하갈 등이 있다.

상갈上葛은 ‘갈산 1리’의 가장 위쪽에 있는 마을로, ‘옷골’이라고도 한다. 하갈下葛은 ‘갈산 1리’의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봉무(봉무골)는 ‘봄우골’이라고도 하는데, ‘봉무’나 ‘봄우’는 ‘불무’ 곧 ‘풀무’와 관련된 어형이다. 그



1	2
3	4
5	6

갈산리
1 갈산리 지명유래

2 갈산리 칠미마을입구

러므로 ‘봉무’나 ‘봄우골’은 ‘풀무가 있는 골짜기나 마을’, 곧 ‘대장간이 있는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된다. 칠미는 ‘웃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칠묘七墓’라고 불렀다고 하여, ‘일곱 개의 묘’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마을입구에 세운 마을 유래비에는 ‘첩의 끝부분’이라는 의미로 ‘첩미’라고 부르다가 갈산리가 되었다고 적혀있다.

갈산리 밀양박씨 청재공 지오공파●●●

부강면 주변과 금남면 일대에는 밀양박씨들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다. 갈산리 밀양박씨 청재공파는 현존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는 1956년에 편찬된 족보(丙申譜)를 통해 확인해 보면, 문의에 살다가 이곳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측된다.

갈산리 밀양박씨 청재공(淸齋公)파의 파조는 중시조인 규정공 박현(朴鉉, 고려 중엽 문과출신으로 司憲 糾正 三品으로 致仕)의 6세손인 박심문(朴審問)으로 그의 호가 청재(淸齋)이다. 박심문(1408, 태종 8~1456, 세조 2)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일찍이 학행으로 천거되어 사문서 직장(司醞署直長)이 되었고, 1436년(세종 18)에 친시문과에 급제하였다. 문과방목에 수록되어 있는 박심문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29세의 나이에 병과(丙科) 3위(9명의 급제자 가운데 5위)로 급제하였으며, 본관은 밀양(密陽)이고 거주지는 미상(未詳)이다. 가족사항은 아버지는 박강생(朴剛生), 할아버지는 박침(朴忱), 증조부는 박사경(朴思敬), 외조부는 윤승경(尹承慶), 처부는 한승순(韓承舜)이며, 안향은 형 박절문(朴切問)이 수록되어 있다. 박심문은 기주관(記注官)으로 있다가 함길도절도사 김종서(金宗瑞)가 북방에 육진을 개척할 때 그 종사관(從事官)이 되었으며, 야인(野人)에 대한 안무책(安撫策)으로 남쪽지방의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할 것을 절도사에게 건의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1447년에 평안도 관관이 되었다가, 이듬해인 1448년에 도체찰사(道體察使)의 종사관 등을 역임하였다. 1453년(단종 1)에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기

위하여 일으킨 계유정난 때 김종서 등이 살해되자, 크게 분개하여 조정에
출사하지 않고 은밀히 성삼문成三問·하위지河緯地 등과 왕래하면서 단종복



1	2
3	4
	5

1~4 밀양박씨 족보
5 갈산리 밀양박씨 후손들



1	2
3	4
5	

밀양박씨 청제 지오공파

1 재실

3 묘소

5 남골묘 묘비

2 박정영과 박식의 묘소는 없고 제단미만 나란히 있는 모습

4 남골묘

1	2
---	---

- 1 밀양박씨 청제지오공파 박정영 제단비
- 2 밀양박씨 청제지오공파 박식 제단비



위를 도모하였다. 1456년(세조 2) 절정관(質正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오다가, 의주에 이르러 성삼문 등 육신이 참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음독 자살하였다. 그는 일찍이 세종과 문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삼문 등과 함께 단종을 보살피며 달리는 문종의 고명(顧命)을 받았다. 정조 때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공주 숙모전(肅慕殿)에 제향되었고,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이 청제공 박심문의 손자인 박식(朴植)의 묘소가 문의 행도곡(行道谷)에 있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박식은 1507년(중종 2)의 증광시에서 유학(幼學)의 전력으로 진사시에 2등 21위(100명의 입격자 가운데 26위)로 입격하였는데, 당시 방목의 거주지는 함창(咸昌)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부친인 박원온(朴元溫, 박심문의 6자, 1469년 진사 입격)의 묘소도 족보상에 함창군 이안면 문창리이다. 따라서 함창에 살다가 문의로 이거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박식에게는 3자 2녀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인 박정영(朴廷榮)의 배위는 전의씨 이정현(李貞賢)의 딸이며, 묘소는 문의 행도곡 동원(同原)에 위치한다.

족보(1956년에 편찬된 丙申譜)의 기록에서는 연산군 때 박정영의 동생인 대간 박의영(朴義榮)이 문외에 유배되었을 때 박정영도 낙향하여 이곳에 살기 시작하면서 자손들이 연기와 청주에 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박의영은 1474년(성종 5)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1482년 친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정원 정자(承政院正字)로 등용되어 호조·공조의 좌랑을 거쳐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이 되고, 1500년(연산군 6)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가 되었으며, 1504년 대사간이 되었다. 그러나 갑자사화 때 대사간으로 이세좌(李世佐)의 죄를 말하지 않았다 하여 같은 해 3월에 충청도 문외(文義)에 중도부처(中途付處) (가벼운 죄로 귀양을 가던 도중에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만 지낼 수 있는 형벌)되었으며, 뒤에 풀려나와 점차 승진하여 중종 때 호조·예조·병조·공조의 참의를 역임한 인물이다. 그런데 족보상 박의형의 묘소와 후손들의 거주지는 토산(兔山)이고, 박정영의 묘소와 후손들의 거주지는 문외 연기 청주 등이다.

갈산리에 거주하는 밀양박씨는 박정영의 아들인 박지오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오공파라고 일컫는다. 족보의 기록에 의하면, 박지오(朴知五) (1509~1568)의 자는 성천(聖天), 호는 남당(南堂)이고, 간의대부·돈령부 도정을 지냈다. 묘소는 ‘연기 금남 부용산 대곡’에 있었는데, 현재는 남골묘에 안장되어 있다고 한다.

부강면 금호리



조사대상 경주최씨, 보만정, 검담서원, 검담서원 묘정비

부강면 금호리(黔湖里)는 조선후기에는 문의현 삼도면에 속하였다. 『여지도서』에는 문의현 삼도면 방리조에 검담리(黔潭里)가 있는데, 문의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서쪽으로 27리의 거리에 위치한다고 하였으며, 편호 70리, 남자 98구, 여자 93구의 규모였다.

앞 금강에 검소가 있으므로 검소, 변하여 검시 또는 검담, 검호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상검리, 하검리, 백운리, 원촌을 병합하여 검호리라 해서 청주(淸州)군 부용면에 편입되

었다. 이후 청원군 부용면 검호리는 2012년 7월 세종시로 편입되어 세종시 부강면 금호리가 되었다.

금호리는 금강 유역에 위치한 마을로 남쪽에는 금강이 굽이굽이 흐르고 동쪽에는 철도가 지나간다. 동쪽은 등곡리, 서쪽은 금남면 부용리, 남쪽은 대전광역시, 북쪽은 부강리와 접하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청원군 부용면 검호리]에서 확인되는 마을 이름으로는 검호(검담, 검소, 검시, 안골[백운리], 상검, 선말[서원말, 원촌말], 아랫말, 웃말, 터골[특골], 평짓말, 황성골[하검] 등이 있다.



1	2
3	4
5	6

금호리
1 검답서원길

6 금호리에 형성된 산업단지

검소(검시, 검담, 검호, 검호리)는 ‘검호리’의 옛 이름이다. 마을 앞 금강에 있는 ‘검소’라는 소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검소’는 ‘물빛이 검은 소’ 또는 ‘큰 소’로 해석된다. ‘검소’ 근처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요소 ‘뜸,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것이다. 한자 지명 ‘檢沼’로 쓰고 있으나 이는 그저 한자의 음을 이용하여 표기한 것 뿐이다. ‘沼’를 ‘潭’과 ‘湖’로 바꾸어 ‘檢潭검담, 檢湖검호’라고도 한다. ‘검시’는 ‘검소’의 변화형이다.

터골은 ‘검소’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터’는 예전에 집, 마을, 성, 재실, 절 등이 있던 곳을 가리킨다. 이 터가 있는 골짜기나 이 터에 조성된 마을이 ‘터골’이다. ‘특골’로 불리기도 한다. 금호리 주민이 처음 터를 잡은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평짓말平地-은 ‘검시’에 있는 마을이다. ‘평지에 조성된 마을’이라는 뜻이다.

선말은 ‘검소’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서원말書院-’의 준말이다. ‘서원’은 ‘검담서원檢潭書院’을 가리키는데, 300여 년 전에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이 세웠다고 한다. 이 서원 주변에 조성된 마을이 ‘서원말’이고, 이것이 줄어들어 ‘선말’이 된 것이다.

안골은 ‘선말’ 동쪽에 있던 마을이다.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부용공업단지가 조성되어 마을이 없어졌다.

하검下黔은 ‘검시’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검’은 ‘검시’를 가리켜, ‘검시’의 아랫마을임을 알 수 있다. ‘황성골’이라고도 한다. ‘황성’은 ‘한성-城’의 변형일 것으로 추정되어 ‘큰 성’으로 이해된다. 이 성이 있는 골짜기가 ‘황성골’이다. 대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금호리에는 경주김씨와 경주최씨가 집성을 이루고 살고 있으며, 검담서원터와 보만정이라는 정자, 검담서원 묘정비가 있다.

금호리 경주최씨 동안군 직장공파●●●

금호리에 거주하는 경주최씨는 동안군 직장공파로 마을 입향조는 직장공 최경해이다. 동안군은 최경해의 아버지 최응두(崔應斗)로 현감을 지내고, 참판 동안군(東安君)에 증직되었으며, 최경해는 동안군의 5남 가운데 제4남으로 태어나 군자감 직장 벼슬을 지냈으므로, 그 후손들을 직장공파라 일컫는다.

경주최씨 동안군파 세보에 의하면, 최경해(崔慶海(1612~1667))의 지는 경도(景道)이고, 군자감 직장을 지냈으며, 가선대부에 증직되었다. 1992년에 최경해의 12대손 최병무가 지은 최경해 묘비문에 의하면, 군자감 직장 벼슬을 지낸 최경해는 이괄의 난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세태의 어지러움을 개탄하여 관직을 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고양(高陽)으로부터 이곳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로 내려와 은거하였으며, 이후에는 후학을 가르쳐 인재를 양성하기에 온 생애를 바쳤다고 한다. 현재 금호리에는 경주최씨가 입향조 이후 400여년간 12세손까지 살아오고 있다.

이전의 조사에서는 입향조를 최석계(崔石溪)라고 하였는데, 족보의 기록에 의하면 석계는 최경해의 8대조인 최첨노(崔添老(初諱 天老))의 호이다. 최첨노는 내시령으로 고려말 혼란(昏亂)한 시기에 종제 최이(崔暹)와 함께 자주 간하다가 뜻을 얻지 못하자 두문동의 의리로 입산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정종이 즉위하여 예를 갖추어 최첨노와 최이를 여러 차례 불렀으나 표를 올리고 사양하여 마침내 산간에서 늙어 죽었으며, 후에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고 한다.



금호리 경주최씨 족보



1	2
3	
4	5

금호리 경주최씨 묘역

- 1 입향조 최경해의 묘비
- 2 입향조 최경해의 묘소 전경
- 3 입향조 최경해의 묘소에서 바라본 모습
- 4 세장비
- 5 금호리 경주최씨 묘역





보만정

보만정 ●●●

금호리에는 보만정(保晩亭)이라는 정자가 있다. 보만정은 1669년(현종 10) 동춘당 송준길(1606~1672)이 세운 정자이다. 후학들이 송준길을 기리기 위해 1694년(숙종 20)에 이곳에 검담서원을 세우고 보만정을 강학공간으로 사용하였다. 1871년(고종 8) 검담서원이 훼손될 때 보만정도 함께 없어졌다가 1920년대 초에 다시 세웠다.

보만정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로 내부에는 방이 있고 대청마루와 툇마루가 있으며 방의 뒷면에 서고가 있다. 조선후기 강학공간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보만정은 조선후기에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는 건축 형태를 잘 나타내고 있어서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검담서원 ●●●

검담서원(黔潭書院)은 문의(文義) 보만정(保晩亭) 옆에 있는데, 이곳은 바로 동춘당 송준길이 휴식하던 곳이다.

검담서원매비스



1694년(숙종 20)에 다섯 고을의 선비들이 창건하여 송준길 한 분만을 제향하였고, 1695년에 사액을 받았다.

한때 검담서원에는 1682년(숙종 8)에 숙종의 명에 의해 교서관에서 간행한 동춘당 문집 24편의 판각이 보관되어 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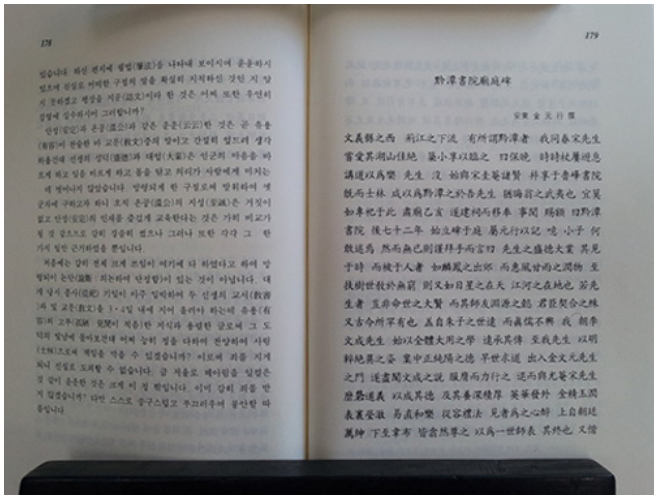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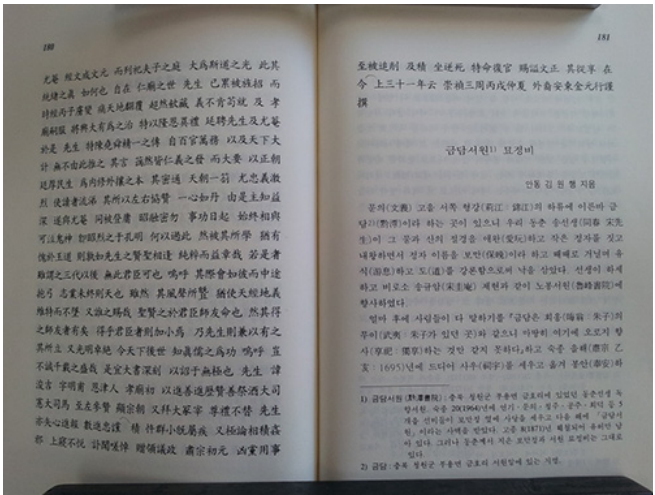
검담서원 묘정비 ●●●

보만정 앞뜰에 서 있는 검담서원 묘정비黔潭書院廟庭碑는 1766년(영조 42)에 세운 것으로 받침 부분과 몸돌 머릿돌로 이루어져 있다. 검담서원의 내력 및 송준길의 일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묘정비문은 미호漢湖 문경공文敬公 김원행金元行이 짓고, 역천櫟泉 문원공文元公 송명흠宋明欽이 썼다. 세종시 문화재 자료 제 10호이다.



검담서원
묘정비



묘정비문

검담서원의 ‘黔’자는 독음을 ‘검’과 ‘검’으로 함께 쓴다. 후손들은 ‘검’으로 읽어주길 원하나 세종시가지 문화재자료로 등록하면서 ‘검’으로 등록하였기에 이곳에서는 공식명칭을 따라 ‘검’으로 읽었다.

묘정비 비문의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문의현文義縣 서쪽 형강荊江 하류에 검담黔潭이란 곳이 있는데, 우리 동춘同春 송 선생이 그 물과 산의 경치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여 이곳에 작은 정자를 짓고서 임하여 ‘보만保晩’이라 이름 짓고는 때때로 걸음하여 놓고 쉬면서 도학道學을 강론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비로소 송규암宋圭菴송인수宋麟壽 등 제현과 함께 노봉서원魯峯書院에 배향되었다. 얼마 뒤에 사람이 모두 “검담이 우리 선생에게 있어 회옹晦翁주자朱子의 무이武夷와 같으니, 오로지 이곳에서만 제향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숙묘肅廟 을해년(1695, 숙종21)에 드디어 사우祠宇를 세우고서 노봉서원에서 선생의 신주를 옮겨다가 이곳에 봉안하였다. 이 일을 조정에 보

고하자 성상께서 ‘검담서원’이라고 사액하였다.

그로부터 72년 뒤에 비로소 서원 뜰에 비석을 세우기로 하고 나 원행에게 기문記文을 지으라고 부탁하였다. 아, 내가 어찌 감히 기술할 수 있겠는가마는 그 부탁을 물리칠 수 없으므로 삼가 절하고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선생의 성대한 덕행과 위대한 사업이 당시에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은 기린과 봉황이 교야郊野에 나타나고 화창한 바람과 단비가 만물을 윤택하게 한 것과 같으며 세상의 교화를 붙잡아 세워 끝없이 전한 것은 또 해와 별이 하늘에 있고 강하가 땅에 있는 것과 같으니, 선생으로 말하면 어찌 세상에 뛰어난 대현이 아니겠는가. 사우師友의 연원이 아름답고 군신의 계합契合이 특수했던 것 또한 고금에 드문 바였다.

대체로 주자로부터 세대가 멀어지면서부터 진유眞儒가 나오지 않았는데, 조선조에 와서 문성공文成公[울곡(栗谷)] 이 선생李先生이 비로소 전체대용全體大用의 학문으로 멀리 주자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우리 송 선생으로 말하면 뛰어나게 명석하고 순수한 자질에 중정순양中正純陽의 덕성을 타고난 분으로 젊은 나이에 도道를 찾아 문원공文元公[사계(沙溪)] 김 선생 문하에 출입하며 마침내 문성공의 학설을 다 듣고는 마음속에 담아 잊지 않고 힘써 실행하였으며, 사문師門에서 물러나서는 우암尤菴 송 선생과 도의를 연마하여 그 덕을 성취하였다.

수양이 깊고 쌓인 것이 많아 영화英華가 밖으로 드러남에 미처서는 그 인품이 정제된 금과 윤택한 옥처럼 속과 겉이 투명하며 평탄하고 솔직하고 화락하여 자연스럽게 예법에 맞으니, 보는 자들이 진심으로 흠모하여 위로 조정의 고관에서부터 아래로 미천한 선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결같이 존경하며 한 세상의 사표師表로 여겼고, 사후에는 또 우암과 함께 문성공과 문원공의 뒤를 이어 공자孔子의 묘정에 배향되어 크게 사도斯道의 광영이 되었으니, 그 계통의 참됨이 과연 어떠한가.

인조 때부터 선생은 이미 누차 부름을 받았으나 병자호란을 겪은 때인 지라 천지가 뒤집힌 것을 통분해하며 의리를 지켜 세속을 떠나 은거하였고 구차히 출사하려 하지 않았다. 효종이 즉위하여 훌륭한 정치를 일으키고자 하여 두터운 은총과 특별한 예우로 선생과 우암을 초빙하니, 선생은 요순堯舜이 전한 정일精一을 맨 먼저 진달하며 백관의 온갖 직무로부터 천하의 대계大計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를 미루어 말씀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그 온화한 말씀이 모두 인의仁義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큰 요점은 조정을 바르게 하고 백성의 생계를 넉넉하게 하는 것을 안으로 정치를 닦고 밖으로 적을 물리치는 근본으로 삼았다.

명나라 조정과 은밀히 교통하기를 청한 한 통의 차지는 더욱 충의가 격렬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진정에서 우리나라 한결 같은 마음으로 좌우에서 협찬하니 이로 말미암아 임금의 지우知遇가 더욱 깊어졌다. 드디어 우암과 함께 등용되어 소용밀물昭融密勿하니 공적이 날로 쌓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군신이 서로 믿고 의지한 것이 귀신을 감응하게 할 만하였으니, 한漢나라 소열황제昭烈皇帝와 제갈공명諸葛孔明的 사이인들 어찌 이보다 더하였겠는가. 그러나 저 제갈공명이 배운 것은 오히려 왕도王道에 부끄러움이 있었으니, 그렇다면 현신과 성군이 서로 만나 순수함이 더욱 드러났던 선생과 비교해 누가 더 훌륭하다 하겠는가. 이를 가지고 말하면 비록 삼대 이후로는 이런 군신이 없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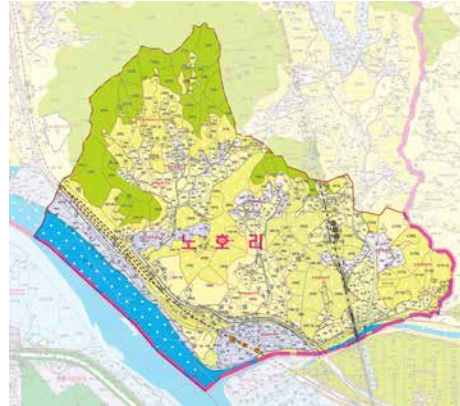
아, 현신과 성군이 서로 만난 것이 이와 같았으나 중도에 성상이 승하하여 뜻한 사업을 이루지 못한 것은 천명이다. 그러나 그 교화가 미친 곳에 천경지의天經地義가 유지되고 실추되지 않게 한 것이 또 누구의 은혜인가. 성현이 현신을 만나고 현신이 성군을 만나는 것과 어진 사우師友를 만나는 것은 운명이다. 그러나 사우를 만난 분은 더러 있으나 성군이 현신을 만나고 현신이 성군을 만난 이는 더욱 드문데, 선생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겸하여 얻었다. 그리고 수립한 학문과 덕행이 광명하고 뛰어나 천하

후세로 하여금 진유眞儒의 공을 알게 하였으니, 아, 어찌 천고에 성대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이를 큰 글씨로 써서 돌에 깊이 새겨 후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생의 휘諱는 준길浚吉이고 자는 명보明甫이며 은진인恩津人이다. 효종 초년에 진선進善으로 진출하여 찬선贊善, 췌주祭酒, 대사헌大司憲, 대사마大司馬(병조 판서)를 거쳐 좌참찬左參贊에 이르렀다. 현종조顯宗朝에서도 대총재大冢宰(이조 판서)에 임명하고서 존경과 예우가 쇠하지 않으니, 선생도 선왕의 은덕에 보답하기로 결심하고 자주 충간을 올렸다가 못 소인들의 미움을 받았다. 얼마 뒤 병이 위독할 때 또 상소하여 정승 허적許積의 간사함을 강력히 논하니, 상이 그 소를 폐기하고 기뻐하지 않았으나 부고가 전해지자 상은 탄식하고 슬피하며 선생에게 영의정을 추증하였다. 원흥元凶[허적과 허목(許穆)]의 당이 국정을 주도한 숙종 초년에 관작을 추삭追削하였으나, 허적이 역모에 연좌되어 죽은 뒤에 특명으로 관작을 회복시키고 ‘문정文正’이란 시호를 내렸다. 선생이 문묘에 배향된 일은 금상금上(영조) 31년에 있었다고 한다.

승정 3주 병술(1826년) 중하 외예外裔 안동 김원행은 삼가 찬술하다. 현손 명흠明欽은 삼가 쓰고 두전도 아울러 쓰다.

부강면 노호리는 조선후기에 문의현 서삼도면 매편리와 관련이 있는 마을이다. 『여지도서』에는 문의현 삼도면 방리조에 매편리(梅浦里)가 문의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서쪽으로 25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편호 26호, 남자 52구, 여자 48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조사대상 오유림 인봉비, 열녀 진주정씨 정려

이후 매편리는 매편리와 마포리로 나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마포리의 일부를 현도면 시목리로 넘겨주고, 삼도면의 노포리 일부를 병합하여, 앞 금강 가에 갈대가 많으므로 노호리라 하여 청주군(청원군) 부용면에 편입되었다가, 2012년 7월 세종시로 편입되어 세종시 부강면 노호리가 되었다.

노호리는 금강 유역에 위치한 마을이다. 남쪽에는 금강이 굽이굽이 흐르고 동쪽에는 철도가 지나간다. 동은 현도면 죽전리, 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탄동, 남은 현도면 시목리, 북은 등곡리와 접하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청원군 부용면 노호리)에서 확인되는 마을 이름으로는 가루개[갈호개], 말미개[마포], 매편, 모기[모개], 우무살[우곡] 등이 있다.

가루개는 매편 남쪽에 있는 마을로 ‘갈호개’에서 변한 어형으로 보고, 금강 가에 갈대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노포[蘆浦], 노호[蘆湖]’



노후리

라는 한자 지명은 그래서 생긴 것이다. 그러나 ‘가루개’의 ‘가루’를 ‘갈대’로 보지 않고 ‘가루개’는 ‘갈개’나 ‘가르개, 가라개’와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들 ‘갈개, 가르개, 가라개’ 등은 ‘몇 갈래로 갈라지는 개울’이라는 뜻을 지닌다. 그렇다면 ‘가루개’도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금강’과 ‘외천’이 합수되는 곳이어서 물이 갈리는 곳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개울 주변에 조성된 마을을 ‘뜸, 말’ 등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우무실은 가루개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우묵실’에서 ‘ㅅ’ 앞의 ‘ㄱ’이 탈락한 어형으로 추정된다. ‘우묵’은 ‘우묵하다’의 ‘우묵’이고, ‘실’은 ‘골짜기’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우무실’은 ‘우묵하고 후미진 골짜기’로 해석된다. ‘우곡’이라는 지명이 함께 쓰인다.

말미개는 가루개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말목개’라고도 한다. ‘말미’와 ‘개’ 또는 ‘말목’과 ‘개’로 나뉜다. ‘말미’나 ‘말목’의 ‘말’을 ‘馬’의 뜻으로 보고, ‘말처럼 생긴 산’과 ‘말의 목’의 의미로 이해한다. 그러나 ‘말’은 ‘大’의 뜻이어서 ‘말미’라면 ‘큰 산’, ‘말목’이라면 ‘큰 길목’으로 해석된다. 큰 산줄기의 끝자락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래 ‘말미’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나중에 ‘말목’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개’는 ‘바닷물이나 강물이 드나드는 곳’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말미개’는 ‘큰산에 접해 있는 개’로 해석된다. ‘마포_{馬浦}’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하는데, 이는 ‘말개’에 대한 한자 지명으로 간주된다. ‘말개’는 ‘큰 개’라는 뜻이다. 이 개 주변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 뜸’ 등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매포_{梅浦}는 가루개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포_{馬浦}’의 변형으로 간주된다. ‘마포’는 ‘말개’에 대한 한자 지명으로 추정되며, ‘큰 개울’이라는 뜻이다. ‘마포’가 ‘매포’로 변하자 그 어원을 잃고 ‘梅浦’로 쓰고 있는 것이다. ‘매포역’과 ‘매포수양관’이 있다.

묘기(모기)는 ‘가루개’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려 때 ‘묘고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한다.

오유립 吳裕立 인봉비 印峰碑 ●●●

오유립 吳裕立(1575~1658)은 15세기에 부강리에 입향한 보성오씨의 후손이다. 초명은 효립 孝立이며, 자는 백원 百源이고, 호는 월송이다. 부강면 보성오씨 월송정 진사공파의 파조로, 조선 광해군 4년(1613)에 매포 강변에 세운 ‘월송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오유립 인봉비 吳裕立 印峰碑는 오유립의 증손 오대곤과 관련이 깊다.

오대곤 吳大坤(1734~?)은 1777년(정조 1)의 정유 식년시 丁酉式年試에서 44세의 나이로 진사시에 3등 11위(100명의 입격자 가운데 41위)로 입격하였다. 『정유식년사마방목 丁酉式年司馬榜目』(중앙대학교[351.09-정유식])에 의하면, 자는 풍지 豐之이고, 아버지는 유학 幼學 오처환 吳處煥, 안향은 형 오덕곤 吳德坤 오의곤 吳義坤, 동생 오재곤 吳載坤이며, 입격 당시의 거주지는 회덕 懷德으로 되어 있다. 그런

오유립 인봉비





노호리 오유림묘소

데 오대곤은 9년 후인 1786년(정조 10)에는 병오 식년시(丙午式年試) 문과시험에 응시하여 당당히 갑과(甲科) 1위(32명의 합격자 가운데 1위)로 장원급제하고 있다.

보성오씨노호리 묘역



『국조방목(國朝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 11655])에 당시의 전력이 진사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9년전에 진사가 된 이후 벼슬에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버지가 오처복(吳處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입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의 거주지도 사마방목의 회덕과는 달리 문(文義)로

되어 있다. 오대곤의 이후 관직은 전적 주부 감찰사 예병정랑 사헌부 장령 등을 지냈다. 아마 과거급제가 늦었기 때문에 고위직에까지 오르지 못한 듯 하다. 인봉비는 1884년(고종 21)에 동민들이 이를 기념하여 건립하였다.

열녀 진주정씨 정려●●●

진주정씨 晉州鄭氏 열녀각 烈女閣은 열녀인 오상정 吳尙井(1614~1651)의 처 진주정씨 晉州鄭氏의 열행을 기리어 그의 10세손 오희진 吳熙璿이 1934년에 부강면 노호리 우무실 마을에 세운 정려각이다. 지금의 열녀각은 1984년에 보수한 건물로 정면 1칸,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의 목조기와집인데 사면을 홍살로 막고 편액과 1934년에 의정부찬정 議政府贊政을 지낸 이재현 李載現이 지은 <정려기 旌閭記>를 걸었다. 현재 보성 오씨 寶城吳氏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세종시 향토유적 제 63호이다.



- | | |
|---|---|
| 1 | 2 |
| 3 | 4 |
- 진주정씨 열녀각
 1 정면
 2 측면
 3 명정현관
 4 정려기

부강면 등곡리



조사대상 열녀 삼척진씨 정려

부강면 등곡리는 조선후기에 문의현 삼도면 등동리와 관련이 있다. 『여지도서』에는 문의현 삼도면 방리조에 등동리(登洞里)가 문의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서쪽으로 25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편호 50호, 남자 96구, 여자 71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이도면의 노포리 일부를 병합하여 청주군 부용면 등곡리가 되었고, 이후 청원군 부용면 등곡리가 되었다가 2014년 7월 세종시 부강면 등곡리가 되었다.

등곡리(登谷里)(등골, 등동)는 산등성이에 있는 마을이다. 동쪽은 노고봉이 있으며 서쪽에는 금강이 굽이굽이 흐르고 있다. 철도가 지나가고 있다. 동은 현도면 중삼리, 서는 검호리, 남은 노호리, 북은 부강리와 접하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청원군 부용면 등곡리)에서 확인되는 마을 이름으로는 등골(등동), 아랫말, 웃말, 존들(조은레), 터꼴(대똥), 화쟁이(회정레) 등이 있다.

등골은 등곡 2리의 중심 마을이다. 뒤에는 ‘화봉산’, 앞에는 ‘화쟁이’, 옆에는 ‘갯점’이 있다. 등짐을 지고 다니면 등골이 빠질 정도로 험하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등’은 ‘산등성이’를 가리키므로, ‘등골’은 ‘산등성이 밑에 있는 골짜기’ 또는 ‘산등성이에 조성된 마을’



1	2
3	4
5	6

등곡리

- 1 마을입구에 세워진 마을 유래비
- 3 마을의 대부분에 돈사가 형성되었다.
- 4 대부분이 경주감씨계림군과 후손들이 주민인 마을이다.

로 해석된다. ‘등곡登谷, 등동登洞’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존들은 등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좋은들’에서 변형된 어형이다. ‘조흔들’을 거쳐 ‘ㅎ’이 탈락한 뒤 축약되어 ‘존들’이 된 것이다. 존들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 아랫말, 존들 위쪽에 있는 마을이 윗말로 ‘움말’이라고도 한다.

터골은 등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터’는 예전에 집, 마을, 성, 재실, 절 등이 있던 곳을 가리킨다. 이 터가 있는 골짜기나 이 터에 조성된 마을이 ‘터골’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텃골, 텃골, 텃골’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훼쟁이는 회정이檜亭-’에서 변한 어형이다. ‘회정’은 ‘회나무 정자’라는 뜻이다. 회나무가 마치 정자를 이루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외에 충광농원은 1970년대에 나환자들이 정착한 곳으로 계사와 돈사가 많으며, 갓점-店은 ‘갓’을 만들어 파는 가게라는 뜻이다.

열녀 삼척진씨 정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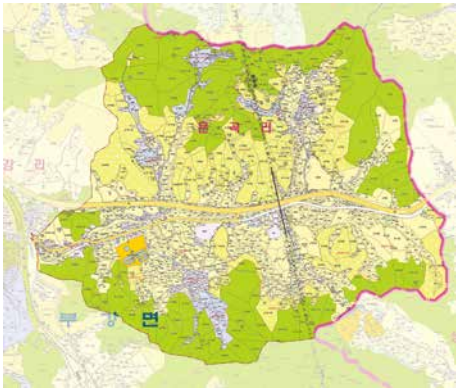
삼척 진씨三陟陳氏 열녀각烈女閣은 남편을 따라 자결한 김정의金貞義의 처 삼척 진씨三陟陳氏(1762~1838)의 정렬을 기리어 1839년(헌종 5)에 문의현文義縣 삼도면三道面 도은리圖隱里 세종시 출범이전의 청원군 부용면 등곡리 조은마을에 세운 정려각이다. 지금의 열녀각은 1928년에 중건하고, 1989년에 보수한 건물로 정면 1칸, 측면 1칸 겹처마 맞배지붕의 목조 기와집인데 사면을 홍살로 막고 안에 편액과 1839년에 이중연李重延이 짓고 장서오張瑞五가 쓴 <사적기事蹟記>와 1989년에 번역한 한글관을 걸었다. 현재 경주 김씨慶州金氏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세종시향토유적 제 62호이다.



1	2
3	4

- 삼척진씨 열녀각
 1 정면
 2 후면
 3 명정현관
 4 열녀각 중수기 한글로 써여있다.

부강면 문곡리



조사대상 경주이씨, 이광흥 효자각, 경주김씨, 하동정씨

부강면 문곡리(文谷里)는 조선후기의 문의현 삼도면에 속해 있었다. 『여지도서』에서는 문곡리와 관련 있는 지명으로 문의현 삼도면 방리조에 달산리(達山里)가 있는데, 문의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서쪽으로 27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편호 36호, 남자 62구, 여자 38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문의군 삼도면의 신대, 자창리, 혼암, 달산리, 호계리, 곡촌, 구사곡을 병합하여 문곡리라 해서 청주(淸州) 원군 부용면에 편입되었다가, 2012년 7월 세종시로 편입되어 세종시 부강면 문곡리가 되었다.

문곡리는 동쪽이 산지이며 골프장이 여럿 있다. 철도가 지나가고 있으며 서쪽에 부강역이 있다. 동은 외천리, 서는 부강리, 남은 등곡리, 북은 남이면 산막리에 접해 있다.

『한국지명총람』(淸州郡 部用面 文谷里)에서 확인되는 마을 이름으로는 골말(골마을), 구러뜸, 구절골(구사곡), 넉바우, 달미(달산리), 대국터(곡촌), 범벅골(호계리), 새뜸(신대), 신작로거리, 재챙이(재창이, 자창리) 등이 있다.



문곡리

골말은 문곡리 서북쪽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이고, 구러뜸은 대국터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구절골은 골말 서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고구려 때 도읍설이 퍼지면서 이곳에 일광사日光寺를 비롯하여 아홉 개의 절이 세워지고 신도들이 모여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대국터는 골말 동쪽에 있는 마을이고, 신작로거리新作路--는 ‘대국터’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신작로가 있는 거리’라는 뜻이다.



부강약수 (芙蓉藥水)

고구려 정수천개소룡이 금강을 거쳐 부강에 왔을때 이약수를 먹었다는 전설이 있으며, 조선시대 명사지리서 동국여지승람(1481년) 및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는 초현(草甸)이라 하여 맑아 후후처한 맑고 이 물에 목욕하면 병이 낫는다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를 전후하여 부강약수는 수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수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2011년 3월 부강면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 약수는 "강천수 수질 특성상 미생물에 관한 기온 이외의 항목은 판정 할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강약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일반세균과 대장균, 수는 남동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소와 질분의 함량이 많이 1일 850ml 정도 마실 것을 권장 하였습니다.

2011년 6월 일

부강면장



부강약수

달산(達山)은 ‘문곡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한자로는 ‘達山’으로 쓰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음을 이용한 표기에 불과하다. 이전에는 ‘月山’이라는 한자 지명도 쓰였는데, 이는 ‘달’을 ‘月’의 뜻으로 보고 한자화한 지명이다. 그러나 ‘달’은 ‘達’이나 ‘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달산’은 본래 ‘달미, 달뫼’였다. ‘달’은 ‘高’의 뜻이고, ‘미, 뫼’는 ‘山’의 뜻이다. 그러므로 ‘달미, 달뫼’는 ‘높은 산’으로 해석된다. 실제 ‘노고봉’이라는 높은 산이 있다. ‘달’이 ‘高’의 뜻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들을 ‘월산(月山, 달산(達山))’으로 한자화한 것이다.

범벅골은 ‘달미’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형이 범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곡천(심류천)은 노고산에서 발원하여 문곡리, 부강리, 삼류동을 지나 금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내이다.

이곳에는 부강약수터(美江藥水-)가 있다. 부강약수는 탄산이 많이 함유되어 위장병과 피부병에 좋다고 한다. 부강약수 주변에는 너바위와 너바위 정자 등이 있다. ‘넙바위’는 ‘넙바위’의 변형으로 ‘넓은 바위’라는 뜻이라고도 한다. 70년전 만석꾼 김흥기 두 아들과 조카가 한꺼번에 강에서 익사하자 그들의 넋을 건지는 의식을 행하였다. 예전부터 강에서 사고로 죽은 자의 넋을 건져서 하늘로 보내는 신천행사의 장소로 여겼다고도 한다. 넙바위는 ‘넙바위’라고도 한다. 세종시가 되면서 도로확장공사로 넙바위는 사라졌다.

문곡리 경주이씨 국당공 정순공파 ●●●

문곡리 경주이씨는 국당공 정순공(靖順公)파이다. 국당공(菊堂公) 이천(李僊)은 경주이씨 시조로부터 17세손이고, 정순공(正純公) 이성중(李誠中)은 국당공의 차남이다. 정순은 이성중의 시호이다.



문곡리 경주이씨 소장 옛자료들



- | | | |
|---|---|--|
| 1 | 2 | 문곡리 경주이씨 소장 옛자료들 |
| 3 | 4 | 1 일제시기의 토지문서
4 위권계기록 |
| 5 | 6 | 5 공자님의 역사서 『춘추』
6 경주이씨 문곡리 종가집의 옛모습 |



문곡리 경주이씨 조사모습

과조 정순공 이성중의 자는 계저^{季著}이고, 족보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 충혜왕 신미생(1331년)으로, 충목왕 정해(1347년)에 등과하고, 여말 여러 관직을 거친 후 개국원종공신이 되었다고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이성중(1330, 충숙왕 17~1411, 태종 11)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고려 말 문과 출신으로 이성계^{季成}가 조선을 건국하자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 되었다. 1396년(태조 5) 축성도감제조^{築城都監提調}로 있을 때 축성한 것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하옥되었다. 그 뒤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오른 뒤, 관공안부사^{判恭安府事}를 거쳐 검교좌정승^{檢校左政丞}에 이르렀다. 시호는 정순^{靖順}이다.

문과방목에는 충목왕 3년(1347)의 정해방^{丁亥榜}에 18세의 나이로 병과^{丙科} 2위(33명의 급제자 가운데 5등)로 급제하였으며,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거주지는 미상^{未詳}으로 되어 있다.

부강면 문곡리의 경주이씨 입향조는 24세손 이응방^{李應邦}(1527~1599)으로 알려져 있다. 이응방의 자는 사규^{士奎}이고 배위는 청주한씨 한일선^{韓日善}의



1	2
3	4

문곡리 경주이씨 입향조 묘역

- 1 입향조 묘소에서 바라본 모습
- 2 합묘하기 전 각 묘소 앞에 있던 비석
- 3 경주이씨 문곡리 입향조인 이응방과 이후 9세손 까지 한자리에 모셔진 현재의 모습이다.
- 4 입향조의 초장지였던 곳이다. 지금은 바로 옆으로 옮겨 후손들과 한묘소에 있다.

	1
2	3

문곡리 경주이씨 입향조 묘역
 1 이용방 후손의 공적비가 묘역 아래에 있었다.
 2-3 옛 석물



딸이다. 정확한 문곡리 입향 내력은 알 수 없으나, 대대로 서울 방이동에서 거주하다가 이응방 대에 당시 청주에 속해 있던 문곡리로 왔다고 한다. 내려온 이유가 배위 청주한씨의 고향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유추되기도 한다. 이응방의 묘소는 문의 자창리自昌里 후록에 위치한다.

문곡리 경주이씨는 현재 세종시 중심지역에 묘소와 신도비가 위치하고 있는 초려 이유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이응방 사후에 묘소의 비문을 이유태가 썼다고 하는데, 이응방은 이유태의 종조부從祖父에 해당한다. 이응방의 손자 이유선은 태안군수를 지냈으며, 병자호란 때 의병으로 진군하기도 하였다.

현재 후손의 집에는 선조들이 공부했던 자료들과 구보, 신보 등 옛 문헌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으며, 입향조가 살았었다는 집터의 옛 사진도 있다.

이광흥 효자각 ●●●

이광흥 효자각李光興孝子閣은 조선 고종 28년(1891) 문의현文義縣 삼도면三道面 달산리達山里,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는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진골마을에 장례원경掌禮院卿에 증직된 효자 이광흥李光興(1756~1814)의 효행을 기리어 세운 정려각이다. 지금의 효자문은 1950년에 보수한 건물로 정면 1칸, 측면 1칸, 겹처마 팔작지붕의 목조기와집이다. 사면을 홍살로 막고 안에 편액을 걸었지만 지금은 없어지고, 1934년에 심석진沈奭鎭이 지은 <정려기旌閭記>만 걸려 있다. 경주 이씨慶州李氏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에 문을 내고 담장을 둘렀다.

이광흥은 경주이씨 국당공의 31대 후손으로 어려서부터 총명함과 효행심이 깊어 주위로부터 효자로 이름이 높았다. 열 살 되던 해에 아버지의 병환이 위중해지자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를 소생시키겠다는 의지로 손가락을 잘라 피를 부친의 입에 흘려 넣어 아버지가 기적과 같이 살아나 삼



문곡리 경주이씨 이광흥 효자각

년을 더 연명했다고 전해진다.

부친이 돌아가시자 묘 옆에 움막을 짓고 3년간 시묘하면서 슬퍼하고 피눈물을 흘렸다. 또한 어머니가 80세가 되어 거동을 못하게 되자 모친을 등에 업고 이웃집과 친척집 등으로 모시고 다니는 등 노모가 적적해 하지 않도록 갖은 정성을 다하여 시중을 들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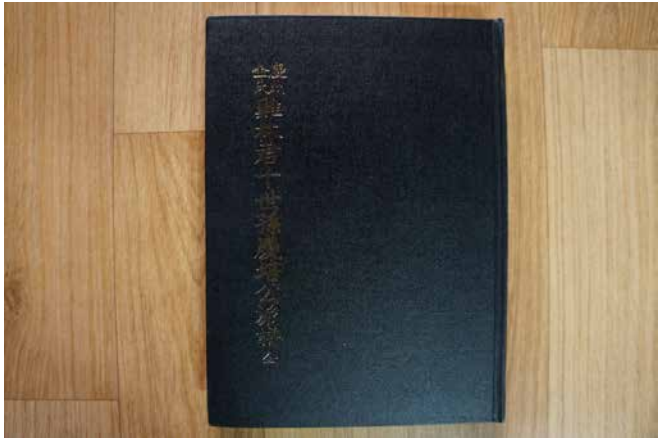
어머니가 노환으로 돌아가시자 이광홍은 가세가 어려운 형편임에도 삼년간 상복을 입고 하루도 빠짐없이 슬퍼하니 주민들과 선비들이 이광홍의 효행을 조정에 알리어 고종 임금께서 정려를 명하여 세우고 이광홍의 효행을 기리도록 하였다.

세종시향토유적 제 61호이다.

문곡리 경주김씨 ●●●

문곡리 경주김씨는 청원 부용 달산에 묘소가 있는 김경배(金慶培(1621~1676))를 입향조로 여기고 있다.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는 족보(『경주김씨 계림공 10세손 경배공 파보』, 2004년 간행)를 통해 확인해 보면, 김경배의 선계는 김구손(金龜孫(고조) → 김사걸(金士傑(증조) → 김위(金偉(조) → 김광석(金光奭(부, 호 雙松堂))으로 이어지는데, 이들의 묘소는 주로 전라도 남원에 위치한다. 김경배는 계림군 10세손으로 부친 김광석의 4자 1녀 가운데 넷째 아들에 해당하며, 가선대부 지중추부사를 지냈다고 한다. 배위는 전의정씨(全義丁氏(1641~1711))로 정만원(丁萬元)의 딸이라고 한다.

가난한 부모로부터 받을 것이 없었던 김경배는, 전동면 응암리 가마골에 살면서 벼슬한 사촌 집안에서 굶은 일을 해 주다가, 부강면 문곡리로 이거했다는 이야기가 집안에 전해진다고 후손들은 귀뜸한다. 아마 벼슬한 집안이라면 김경배의 사촌인 송애 김경여 선생을 이르는 것으로 여겨진다.



1	2
3	4
	5

1~4 문곡리 경주김씨 소장자료
5 문곡리 경주김씨 조사 모습





1	2
3	

문곡리 경주김씨 묘소

- 1 김경배 이후 후손들의 묘소이다.
- 2 오래된 상석 옆으로 새롭게 상석을 마련하였다.
- 3 묘소 맨 앞쪽에 입향조가 새겨진 비석과 상석이 있는데 정확한 묘소는 어느것인지 현재의 후손들은 알지 못한다고 한다.



1	2
3	4

문곡리 경주김씨 묘소

- 1 입향조인 김경배와 현손까지 한개의 비석에 이름과 배위, 관직만 새겼다. 앞면엔 입향조와 그의 아들이다.
- 2 송정기원후5(1899)라고 쓰여진 것으로 보아 100여년이 넘는 비석임을 알 수 있다.
- 3 비석 뒷면에 손자와 증손자를 기록하였다.
- 4 우측면에는 현손의 이름이 있다.

김경배 선대의 연고지는 전라도와 경기도이다. 집안에 전해지는 말처럼 사촌집을 연고로 문곡리에 입향했을 가능성과 함께, 김경배의 배위가 전 의정씨인 점을 고려한다면 혼사와 관련하여 처향으로 입향했을 가능성도 있다. 입향사유는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지만, 17세기부터 10세대에 걸쳐 300여년 이상 이곳에 거주해 오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후손들은 1845년(을사년)에 편찬한 김씨동원록(金氏同源錄(慶州金氏世譜, 을사보)과 1960년 경에 간행된 족보(慶州金氏族譜), 2004년(갑신보) 간행 족보 등을 소장하고 있었다.

문곡리 하동정씨 현감공파 ●●●

문곡리 하동정씨 현감공파 파조는 정여유(鄭汝裕)이다. 1993년에 편찬된 『하동정씨 현감공(휘 여유) 파보』에 근거하면, 정여유는 정국용(鄭國龍)의 8세 손으로 문헌공 정여창의 동생인데, 연산군 때 신창현감을 지냈으므로 현감공으로 불리운다.

족보상으로 묘소가 문곡리에 처음 위치한 인물은 17세손(현감공 정여유의 9세손)인 정진일(鄭鎭逸(1641~1683))이다. 족보를 통해 확인 가능한 선계의 묘소는 정경민(정진일의 6대조) → 정홍달(5대조) → 정광서(고조부)는 청주 오룡동(오룡리), 정세복(증조부) → 정희룡(조부)은 청원군 강서면 동막리, 정응헌(부)은 강내면 다락리 등이다. 족보의 기록에 의하면, 정진일은 자가 형서(亨瑞), 호는 문장(文章) 월은(月隱)이고, 광해 신사생이며, 현종 경술년(1670)에 진사에 입격하였고, 숙종 계해년(1683)에 졸하였다고 한다.

입향조로 알려져 있는 정진일의 4세손 정재기(鄭在箕)가 ‘문의현감’을 지냈으며, 그의 영세불망비가 현재 부강면사무소 정원에 세워져 있다.

제보자는 입향조의 12세손으로 문곡리에 350년 이상 뿌리를 내리고 살아 왔다고 한다. 예전에는 문곡리에 하동정씨가 20호 이상의 집성을 이루



1	2
---	---

1 문곡리 하동정씨

2 정재기 영세불망비 문곡리 하동정씨의 조상이며 입향조 정진일의 고손자이다.

고 있었지만, 현재는 10호 정도만 살고 있다.

부강면 부강리(美江里)는 조선후기에 문의현 삼도면에 속하였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부강리와 관련있는 지명으로 문의현 방리조에 삼도면 오룡대리(五龍臺里)가 문의현 치소 관문으로부터 서쪽으로 30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편호 54호, 남자 63구, 여자 19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문의군 삼도면 유평리, 구평리, 도중리, 대산리, 신대리, 신동, 대룡동, 소룡동, 동촌, 오대리, 남성리 일부를 병합하여 부강리라 하여 청주(淸州)군 부용면에 편입되었다가, 세종시 건설로 인하여 2014년 7월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가 되었다.

부강리는 비교적 평지이며 경부선 철도 부강역이 있다. 면의 서부에 위치하며, 동은 문곡리, 서는 동면 명학리, 남은 등곡리, 북은 갈산리에 접해 있다.

『한국지명총람』[청원군 부용면 부강리]에서 확인되는 마을 이름으로는 구들기[구평], 남성골[남성], 동촌[동촌], 부강리[부강], 삼버들[삼류, 유평], 새탐말[신대], 석골[석곡], 오대, 오룡개, 용포, 장터[부춘], 태산[테메] 등이 있다.



조사대상 보성오씨, 광산김씨, 경주김씨, 세종 유계화 가족



1	2	부강리
3	4	3 부강초등학교에서 바라본 마을 모습
5	6	5 부강역
		6 부강면사무소

부촌(美村, 富村)은 부강 소재지로 상가와 주택지로 형성되어 있다.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설명한다. ‘장터場-’라고도 하는데, ‘장이 서는 곳’이라는 뜻이다.

새뫼말은 ‘부강’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새로 조성된 터에 자리한 마을’이라는 뜻이다. ‘새뫼말’로 발음하기도 하고, ‘신대(新垆)’라는 한자 지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삼버들은 ‘부강’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부터 버드나무가 많았는데, 그 중 세 그루가 유독 커서 ‘삼버들’이라 한 것으로 설명한다. ‘삼류三柳, 유평柳坪’이라는 한자 지명으로도 부른다. 대한프라스틱 공장이 들어서면서 없어졌다.

퇴미(테미)는 ‘남성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테’를 ‘둘레를 두른 물건’으로 보아, ‘흙으로 테를 두른 산’ 곧 ‘토성이 있는 산’으로 해석한다. 토성이 있는 동산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다.

오대(五岱, 五臺)는 ‘부강’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五岱’로 보아 옛날 좋은 집터 다섯 군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五臺’로 보아 성을 수호하기 위해 설치한 진지가 다섯 군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가락동(가락골)은 ‘부강’ 동쪽에 있던 마을이다. 군부대가 들어와 마을이 없어졌다. ‘가락골’이라는 골짜기에 조성된 마을이다. ‘가락골’은 ‘가라골’로 소급되고, ‘갈라진 형상의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 골짜기에 조성된 마을을 ‘가락동’이라 한 것이다.



부강리 부강면사무소에 있는 부강찬가

교동은 ‘부강’ 북쪽에 있던 마을이다. 군부대가 들어와 마을이 없어졌다.

남성골南城-은 ‘부강’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남성’은 ‘남쪽에 있는 성’이라는 뜻이다. 마을 뒷산에 ‘남성’이라는 토축 성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마을 이름이 만들어진 것이다.

녹동鹿洞은 ‘부강’ 북쪽에 있던 마을이다. 군부대가 들어가 마을이 없어졌다. 마을 뒷산을 ‘시슴배’라 하는데, ‘시슴배’에서 ‘시슴 룯鹿’ 자를 따서 ‘녹동’이라 한 것이다.

동촌東村은 ‘부강’ 동쪽 경부선 철길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이 부강 동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곡石谷은 ‘동촌’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돌이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석골’이라고도 한다.

오룡개五龍介는 ‘부강’ 서쪽 끝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오룡’은 ‘다섯 마리의 용’이라는 뜻이고, ‘개’는 ‘개울’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오룡개’는 ‘다섯 마리 용이 이어진 듯 긴 개울’이라는 뜻이다. 마을의 산세가 다섯 마리 용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용포龍浦는 ‘동촌’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용포’는 ‘용이 사는 개울’, ‘용이 승천한 개울’, ‘용처럼 구불구불한 개울’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용포 소하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뒷산 모양이 용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구들기는 ‘부강’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형이 비둘기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고, ‘구평鳩坪’이라고도 한다.

부강리 보성오씨 월송정 진사공파●●●

부강리 보성오씨는 문의와 연기 지역에서 600여년간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문중이다.



부강리 보성오씨

보성에서 발원한 보성오씨[『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조선초기 보성군의 토성은 박(朴)·오(吳)·강(康)·선(宣)·화(和씨 등이다.)는 1766년(영조 42)에 편찬된 보성오씨 세보[병술보]에 의하면 오현필吳賢弼이 시조이고, 8세손 오점吳漸(또는 吳點)은 조선 초기에 예조판서를 지냈다고 한다. 9세손 오숙동吳叔全은 진의부위進義副尉를 지냈는데, 그의 배위인 원주원씨가 병사 원계종元繼宗의 딸이다. 그런데 오숙동의 처부인 원병사가 문의 신탄에 살면서 오숙동도 보성으로부터 옮겨와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오숙동의 묘소는 문서文西(문의의 서쪽으로 추측됨) 달계達溪이다.

오숙동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 오인정吳仁政의 묘소는 문의 허담虛潭, 차자 오인헌吳仁憲의 묘소는 달계, 삼자 오인후吳仁厚의 묘소는 문서

삼기三岐에 위치한다. 오인후는 소위장군昭威將軍 부사과副司果로 선덕 병오(1426, 세종 8)에 태어나 81세의 수를 누렸으며, 후손들의 전언에 의하면 현도와 부강의 경계에 살았다고 한다. 오인후의 아들은 오옥순吳玉筍이고, 오옥순에게는 오천령吳千齡과 오억령吳億齡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후손들이 부강과 금호리, 노호리 등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 이상의 족보 기록에 근거한다면 보성오씨가 관향지인 보성을 떠나 금강 유역에 살기 시작한 것은 오숙동에서 비롯되며, 조사지역인 부강면 입향조는 오인후로 볼 수 있고 입향시기는 15세기로 추측된다.

부강리 광산김씨 양간공파 ●●●

부강리 광산김씨 양간공파良簡公派는 진잠 양지촌에서 200여년 전에 부강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부강 입향조는 김재윤·김재원 형제로 추정된다.

1872년(고종 9)에 편찬된 광산김씨 족보(임신보)에 의하면, 이들의 선계는 8대조인 사계 김장생金長生으로부터 7대조 김규金槿 → 6대조 김익륜金益燾 → 5대조 김만식金萬植 → 고조 김진후金鎭后 → 증조 김건택金健澤 → 조부 김상의金相毅 → 부 김기복金箕福으로 이어진다. 족보에 수록되어 있는 선대의 묘소를 추적해 보면, 김기복까지는 양지촌에 위치하고, 김재윤·김재원 형제에 이르러 비로소 청주군 부용면 부강리 태산 남쪽과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족보의 기록에 의하면, 김재윤金在潤(1781~1839)의 자는 사국土國으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 지냈다고 하며, 배위는 전주이씨이고, 김재원金在源(1783~1890)의 자는 학서學瑞이며, 배위는 성주배씨이다.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는 입향사유는 부강수로를 통한 상업활동을 하다가 이곳으로 입향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구장터에서 조부가 시장의 세금을 받았고 조부의 3형제가 함께 구장터에서 살던 때도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현재는 부



부강리 보성오씨

강리에서 터전을 이루고 살았던 광산김씨 양강공파의 후손은 대부분 떠나
가고 한집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부강리 태산에 있던 선산의 묘소도 개발
로 인하여 파묘하여 화장하였으므로 남아있지 않다.

부강리 경주김씨 학은공파 ●●●

부강리 경주김씨 학은공파鶴隱公派는 김임생金栉生(1567~1637)의 후손들이
다. 김임생의 자는 경언景彦, 호는 학은鶴隱이며, 배위는 숙부인 진주 이씨
이다. 김임생은 효행으로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경주김씨 학은공파가 부강에 입향한 내력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김세언

遠慕母情

孝傳美人之傳孝起延齡外傳鎮汀盛傳婦稱
 長風月當節有山法聖屏先祖過感願節聖孫
 傳賢文子孫世為翰志非傳序遠慕時之並與
 庭 尚德三 謹汝

芙蓉江上之亭子父父經恩子能倚松龍邊
 沉水白捲簾半外札物青葛蒙孝出守林神地與
 人高可讀靈遠一難息憶慕慈千秋照耀一福
 銘 史仁東 謹稿

近先德拾起新亭高揚筆向遠慕慈恩志未終
 佛能逐形存其度視而聽沒光遠極矣德賢山
 色優廢轉月有地亦勝區堪賞玩賢人談職致
 留停 朴順暢 謹汝

特立亭子遠慕亭參臨此自爽心盡長松落
 黃牛晚水茫茫白馬門松盡伊人夕秀安竟
 成乃父德存德嗟嘆感感悟來晚不辭斜
 陽點密樞 初昌考 謹稿

瞻律山遠慕亭隨公事世爾庭 人司
 重之乳錦水而流曲之青朝日
 似鏡呈 郭本佐 謹稿

風清暑便停應願值者好景
 老松松下翼然亭疏林餘蔭桂北居
 迎堂及懸宇遠慕亭聖殿祀祭奉香香甘露
 香江濟月理心堂敬智聖類高而志遠遊覽
 又臨汀 金聖培 謹次

蓮子蓮成蓮父季修蓮蓬登勝錄餘神舞舞
 樓雲池山水如閣錦飾屏風月主人歌耳石江
 湖瀟瀟客阮醉青君家看有忠節樂天志
 信移德生 柳連峯 謹次

第一名區起此亭花紅石白文松可識孝意是
 承親志若何坐地若樓外長江成似帶天
 邊列宿作如屏至今能聞響蒼米回灣遊人
 匪不停 金鍾宇 謹稿

近慕之祠遠慕亭成三年月建崇德像祀
 祀德不慕苟求在此歌子餘道蹟成功千百
 世芳名顯家東金門美瑞大知慈德遊從
 孔堂子

芙蓉江上 教直 謹稿



1
2 3

부강만석지기 관련자료

- 1 금강변에 있었다는 원모정에서 문인들이 함께 지은 글이 하나의 현판으로 기록되었다.
- 2 백년이 넘는 고가의 외부.
- 3 지금은 식당으로 개조하여 운영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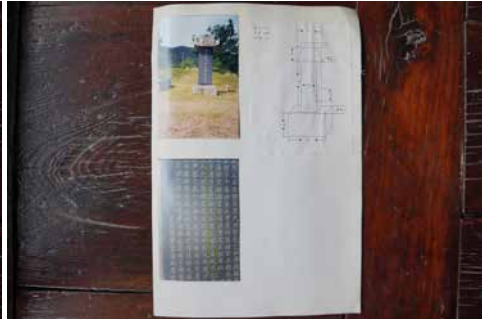


부강만석지기 관련자료



1	2
3	4

부강만석지기 관련자료
3 부강만석지기 김재식의 초상화



부강만석지 관련자료

이 종종 기사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청주 낭성으로 내려오면서 부강면과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족보의 묘소 위치를 살펴보면, 김세언 이전의 선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었는데, 김세언 이후 청주 낭성면과 남일면 등지에 분포하다가 김세언의 고손인 김임생이 처음 부용면 외천리로 들어오고 있다.

외천리는 청주시 부용면 외천리였다가 2012년 7월, 부용면 대부분이 세종시 부강면으로 편입될 당시 외천리는 청주에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이다. 지금은 세종시 관내 지역은 아니지만 부강과 뿔 수 없는 연관이 있었던 마을이므로, 부강리의 경주김씨 입향조를 외천리에 처음 정착한 김임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임생의 11세손인 송암 김재식은 부강리의 만석지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재식金在植(1860~1928)의 초휘는 재경在經이고, 자는 천보千甫, 호는 송암松菴이다. 족보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에 의하면, 1860년 봉무산 아래 외천리에서 태어났으며, 1901년 창능참봉昌陵參奉에 제수되었고, 1902년 통정대부에 승진하고 중추원 의관에 제배되었으며, 1903년 가선대부에 승진하고, 1904년 내장원 경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부모의 상을 당해서는 3년간 여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하였다고 한다. 배위로는 정부인 부안임씨, 정부인 계림이씨, 정부인 보성오씨 등이 수록되어 있다.

69세로 졸하였고 송암집 두권이 있으며, 묘소는 청원군 낭성면 무성리 뒤 무성산에 있다. 묘소에는 신도비가 있는데, 의왕 이강이 찬하고 판돈령 원사 윤용구가 글씨를 썼고 관서 민경호가 전서를 썼다. 묘갈도 있는데 참관 이규환이 찬하고 참관 이명상이 찬하여 행장을 기록하였다.

김재식이 죽은 후 장례를 치를 때에는 부강리에서 장지인 낭성면까지 포목을 깔고 상여꾼이 흙을 밟지 않고 지나갔다는 전언이 있으며, 매년 추곡 때마다 도지로 들어오는 쌀이 만석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할 만큼 부강면에서 만석지기로서의 재력을 갖추고 있던 인물이다.

세종 유계화 가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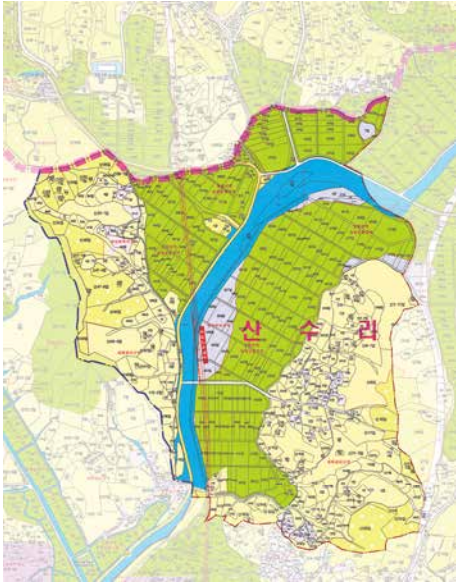
세종 유계화 가옥(柳桂和家屋)은 1866년(고종 3)에 지은 한옥으로 우리나라 중부 지방의 전형적인 양반주택이다. 안채 대청에 적힌 상량문에 이 건물의 정확한 건축 연대가 적혀 있다. 건물의 구조는 2칸의 대청을 중심으로 왼쪽에 부엌과 건넌방, 오른쪽에 골방이 붙은 안방과 옷방, 그리고 부엌과 곳간이 있는 정면 6칸, 측면 3칸의 ㄷ자로 된 기와집인 안채와 마루가 달린 2칸의 사랑방을 중심으로 왼쪽에 대청과 곡간을, 오른쪽에 부엌과 방이 정면 6칸, 측면 2칸반의 ㄱ자로 된 사랑채를 마주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ㅁ자 모양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안채를 사랑채보다 약간 높게 축조하였다. 흘처마 합각지붕의 기와집으로 중문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유계화(柳桂和)라는 이름은 이곳에 살던 여주인의 이름이다. 우리나라는 대개 집안에 우물을 파지 않았다. 수맥이 집터 아래를 통과하면 좋지 않다는 관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직접 집안일을 하지 않고 하인들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집의 안마당에는 우물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관념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한 결과로 보고 있다.

세종시 이전에는 충북 청원군에 소속된 문화재였는데,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에 편입되어, 현재는 세종시 중요민속문화재 제138호가 되었다.







부강면 산수리山水里는 조선후기에 청주목 남차이면南次二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칠산, 갈곡, 삼거리, 수산을 병합하여 칠산과 수산의 이름을 따서 산수리라 하여 청주군 남이면 산수리가 되었다. 이후 청원군 남이면 산수리가 되었다가, 1973년 7월 행정 구역 조정으로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가 되었고, 2012년 7월 세종시로 편입되어 세종시 부강면 산수리가 되었다.

산수리의 남쪽은 약간의 산지와 골프장이 있다. 비교적 평지가 많은 지역이며 갈원천이 흐르고 경부선 철도가 지나간다. 동은 남이면 비룡리, 서는 갈산

리, 남은 부강리, 북은 행산리와 접하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청원군 남이면 산수리에서 확인되는 마을 이름으로는 삼거리[명아지], 윗골[갈골], 잣밭미, 칠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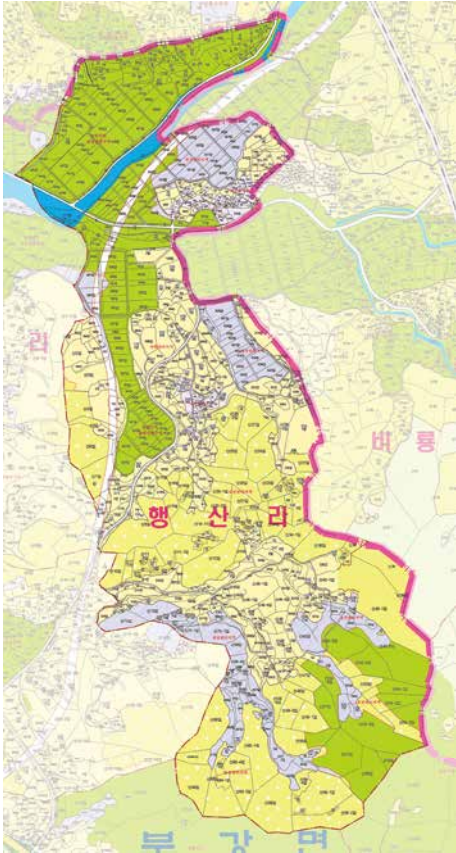
본산수本山水는 ‘산수리’의 본래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과 들이 넓고 물이 흔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삼거리는 청주·공주·천안으로 갈리는 세 갈래 길을 가리킨다. ‘명아지’라고도 한다.



산수리

갈골은 ‘갈’을 한자 ‘葛’로 보아, 예전에 칩이 많았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갈원천은 칠미 서쪽에 있는 내이고, 금바골은 천식이자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챗밭미는 삼거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고, 칠미는 윗골 서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칩이 많았다고 한다.



부강면 행산리(峯山里)는 조선후기에 청주목에 속해 있었다. 『여지도서』 청주목 방리조에는 남차이면 행산리(峯山里)가 청주목 치소 관문으로부터 40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편호 44호, 남자 71구, 여자 54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청주군 남차이민의 행산, 신대리, 마근리, 문산리, 비룡리 일부를 병합하여 청주군 남이면 행산리가 되었고, 이후 청원군 남이면 행산리가 되었다가, 1973년 7월 행정구역 조정으로 청원군 부용면에 이속되어 청원군 부용면 행산리가 되었으며, 2012년 7월 세종시로 편입되어 세종시 부강면 행산리가 되었다.

행산리는 비교적 평지가 넓은 지역이며 갈원천이 흐르고 경부선 철도가 남북으로 통하고 있다. 동은 남이면 비룡리, 서는 응암리, 남은 산수리, 북은 강내면 저산리와 접하고 있다. 또한, 행산리는 남고북저형의 지형으로 남부



행산리

일부가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지역이 평지이다. 평야 중심에 벌말이 있고, 벌말 남쪽 골짜기에 행산 마을이 있으며, 행산 동쪽에는 망골이 있다.

『한국지명총람』[침원군 남이면 행산리]에서 확인되는 마을 이름도 망골, 벌말, 행산 등이 있다.

행산^{초山}은 ‘벌말’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살구나무 많은 산’이라는 뜻이다. 이 산 아래에 조성된 마을을 ‘뜸, 말’ 등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지금은 살구나무를 거의 볼 수 없다.

망골은 ‘행산’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임진왜란 때 왜장 가등청정이 고개를 끊으니 왕동골에 살던 왕가라는 사람이 망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지형이 망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벌말은 ‘벌판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행산 동북쪽 벌판에 있는 마을이다. 주변 지역은 산이 많은데 비하여 이곳은 벌판이고 평평하다.

제4장 **보유편**



보유편



2012년 7월 1일에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1읍 9면 3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읍면동 각각의 명칭은 조치원읍, 금남면, 부강면, 소정면, 연동면, 연서면, 장군면, 전동면, 전의면,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2012년 6월 30일에 폐지된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일부는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와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과 함께 새로 편입된 곳이다.

우선 장군면은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 용암리, 송학리, 용현리, 송정리 일원과 장기면 송무리, 평기리, 대교리, 하봉리, 도계리, 봉안리, 제천리, 은용리, 산학리, 당암리, 금암리 일원이 합쳐진 곳이며, 부강면은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 행산리, 갈산리, 부강리, 문곡리, 금호리, 등곡리, 노호리 일원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공주시 반포면 원봉리, 도남리, 성강리, 국곡리, 봉암리 일원은 세종시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이웃 고을에서 새로 편입된 지역인 장군면과 부강면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이후의 조사대상으로 작년과 금년에 조사하였다. 그런데 금남면은 이미 1차년도에 조사한 지역으로 세종시가 출범하기 이전에 간행된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I 에서 다루었으므로 세종시 출범과 함

계 공주시 반포면으로부터 금남면에 편입된 5개리는 당시의 책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마을에 대해서는 이곳 보유편에서 다루었다. 또한 2차년도 조사 대상이었으나 당시의 조사에서 누락된 전동면 심중리의 보성오씨도 보유편에 수록하였다.

금남면 국곡리는 조선후기에 공주목 반포면反浦面에 속했던 지역이다. 『여지도서』에는 반포면 국곡리菊谷里가 공주목 치소의 관문으로부터 동쪽으로 35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편호 186호, 남자 240구, 여자 240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조선 말기에는 공주군 반포면에 속했고,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반포면의 용포리龍浦里·행정리杏亭里가 통합되어 국곡리로 개편되었다. 이후 공주군 반포면 국곡리는 1995년 공주군이 공주시와 통합되면서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가 되었다가, 2012년 7월 세종시에 편입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가 되었다.

국곡리의 북부와 동부·남부에는 각각 해발 고도 200여m와 1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서부에는 성강재가 있다. 서부로는 용수천龍水川과 그 지류가 흐르고, 해발 고도 60여m에 형성된 충적 평야가 펼쳐져 있다. 용수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하천을 따라 평야 지대에 심방골·바탕·국곡·용포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다. 국도와 지방도는 지나지 않으며, 곳곳에 소규모의 도로가 있다. 국곡菊谷은 들국화가 많이 피는 지역이라 불리우게 된 명칭이라고도 한다.

『한국지명총람』[공주군 반포면 국곡리]에서 확인되는 마을 이름으로는 국곡 외에 바탕[용포리], 심방골[심방동] 등이 있다. 바탕[용포리]은 국곡 북동쪽 계룡천가에 있는 마을로 전에 솔점이 있었다고 하며, 심방골[심방동]은 국곡 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금남면 도남리는 조선후기에 공주목 반포면에 속하였다. 조선 말기에는 공주군 반포면反浦面에 속했던 지역으로, 1914년 반포면 남월리南月里·성치리城峙里·반영리盤永里가 통합되어 도남리로 개편되었다. 이후 1995년 공주군이 공주시와 통합되면서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가 되었다가, 2012년 7월 세종시에 편입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리가 되었다. 도남道南은 산의 남쪽에 있다 하여 붙은 지명이라 한다.



도남리의 남부와 동부에는 해발 고도 200여m의 산지가 있고, 남부에는 매봉재가 있다. 금강鎭江의 지류인 북부와 서부에는 도남천道南川과 원봉천元峰川에 의해 해발 고도 60여m에 형성된 충적 평야가 펼쳐져 있다. 도남천과 원봉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하천 연변과 평야 지대에 남월·불치·오룡·안골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다.

『한국지명총람』[공주군 반포면 도남리에서 확인되는 마을 이름으로는 남월[나물, 목동], 불티[불재, 되너머, 화티], 성강재[성재, 성태], 안골[안지울, 반영] 등이 있다.

남월[나물, 목동]은 도남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뒤에는 산이 둘러 있고,

앞에는 금강이 가로 흐르는데, 동구에 나무가 많고, 뒷산의 모양이 오행의 목체木體라고 한다. 불티[불재, 되너머, 화티]는 남월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불티고개 밑에 위치하며, 성강재[성재, 성티]는 성재 밑에 있는 마을이다. 성재고개는 남월 남동쪽에 있는 고개로, 성강산성 밑이 되며, 도남리에서 남동쪽 성강리로 넘어간다고 하였다. 안골[안지울, 반영]은 불티 남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높은 산 밑 골짜기가 되므로 안골, 또는 안지울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일인들이 잘못하여 반영으로 하였다고 한다. 또한 불티 북쪽에 있는 금강의 나루터인 불티나루[화티진]가 있어서 장기면 금암리로 통한다고 하였다.

금남면 봉암리(鳳岩里)는 조선후기에 공주목 반포면에 속한 지역이었고, 조선말기에는 공주군 반포면에 속한 지역이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반포면 덕천동(德川洞) 봉암리 송곡리(松谷里) 일부가 통합되어 봉암리로 개편되었다. 이후 1995년 공주군이 공주시와 통합되면서 공주시 반포면 봉암리가 되었고, 2012년 7월 세종시에 편입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봉암리가 되었다. 봉황새가 있어서 우는 봉황바위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봉암(鳳岩)이라 하였다.



조사대상 화순최씨

봉암리의 서부와 동부에는 1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북부와 중부 및 남부에는 용수천(龍水川)이 곡류하면서 형성된 충적 평야가 있다. 용수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하천 연변의 평야 지대에 봉암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다.

『한국지명총람』[공주군 반포면 봉암리에서 확인되는 마을 이름으로는 봉암 외에 봉암리 서쪽에 새로 터를 잡아 이룩된 마을인 새터골이 있다.



봉암리

봉암리 화순최씨 ●●●

봉암리에 거주하고 있는 화순최씨는 금남면 도암리에 정착하여 살던 화순최씨(『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I, 81~86쪽 참조)의 일파가 이주해 살아온 성씨이다. 도암리와 봉암리는 직선거리 2k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암리의 화순최씨가 번창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확산되어 거주하게 되었을 것이다.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묘소의 위치를 보면, 도암리 화순최씨 부정공파의 입향조로 알려져 있는 직장공 최은(崔垠(1400년대 후반)의 8세손 최필주가 반포면 봉암 봉황대 냇가에 위치한다.

최은의 묘소는 공주 반포면 내도동 후록(묘산도에는 공주 반포면 도암리), 최세개(崔世溉(최은의 아들)의 묘소는 공주 반포면 내도동 오른쪽 노구동(묘산도에는 공주군 반포면 도암리), 최복명(崔復明(최세개의 아들)과 최정(崔瀾(최복명의 아들)의 묘소는 연기 금남면 금천촌 동쪽 청사골(묘산도에는 연기군 금남면 금천리), 최순주(崔順周(최정의 아들)와 최석규(崔錫奎(최순주의 아들)의 묘소는 반포면 길마령(吉馬嶺, 최상문(崔尙文(최석규의 아들)의 묘소는 반포면 어득운 향로봉, 최종백(崔宗伯(최상문의 아들)의 묘소는 반포면 시목동 오산이고, 최필주(최종백의 아들)의 묘소에 이르러서 봉암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묘소의 위치를 통해 보면, 최필주에 이르러서 도암리에 살다가 봉암리로 이거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고, 그 후 최필주의 후손들이 봉암리에 대대로 정착하여 살게 되었을 것이다. 최필주(崔翊柱(1765~1823)의 자는 경지(敬之)이고, 배위는 함평오씨이다.

한편, 화순최씨 집안에는 1713년에 편찬한 족보인 계사보가 보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최필주의 아버지인 최종백까지 수록되어 있다.



1	2
3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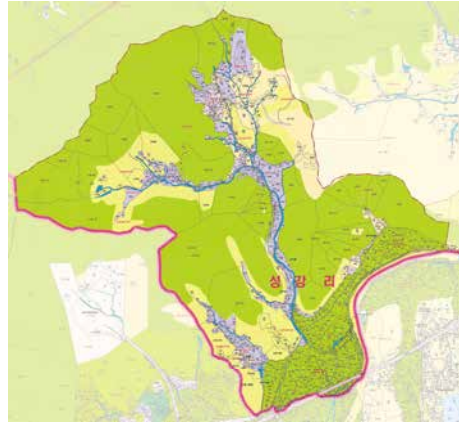
1~4 화순최씨 재실
5~6 화순최씨 문증자료

금남면 성강리聖岡里는 조선후기에 공주목 반포면 지역이었다. 조선 말기에는 공주군 반포면反浦面 지역이었고, 일제 강점기인 1914년에 공주군 반포면 남산리南山里·성산城山·화암리花岩里가 통합되어 성강리로 개편되었다.

이후 공주군 반포면 성강리는 1995년 공주군이 공주시와 통합되면서 공주시 반포면 성강리가 되었다가, 2012년 7월 세종시에 편입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성강리가 되었다. 성강산성聖岡山城 아래에 위치해 있다 하여 성강聖岡이라 하였다.

성강리의 서부와 동부·남부에 각각 해발 고도 200여m와 1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북부로는 성강천이 남북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하천 양쪽으로 해발 고도 80여m의 충적 평야가 펼쳐져 있다. 성강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에서는 과수 농사와 밭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천을 따라 평야 지대에 윗성강·아랫성강·남산소 등의 촌락이 들어서 있다.

『한국지명총람』[공주군 반포면 성강리에서 확인되는 마을 이름으로는 남산소(남산, 남산리, 부엉더미, 함전[화정, 함정] 등이 있다. 함전[화정, 함정은 성강 남동



조사대상 의령남씨, 남산영당, 남이옹, 남평조씨 병지일기, 전주이씨, 진주강씨



성강리

쪽에 있는 마을로, 범허리고개 밑이 되므로 함정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함전咸田, 또는 화정花亭이 되었다 하며, 부엉더미는 함전 옆에 있는 마을이고, 남산소남산, 남산례는 함전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인조 때 좌의정 남이웅의 산소가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성강리 의령남씨 ●●●

세종시 금남면 성강리에 거주하는 의령남씨는 조선중기 공신인 남이웅南以雄(1575~1648)의 후손들이다. 한양에 세거하던 의령남씨가 공주(오늘날의 세종시)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남이웅 사후에 묘를 현재의 위치로 예상하면서 부터이며, 이후 후손들이 세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남이웅의 6세손인 남필복의 호구단자와 준호구 6건이 남아 있는데, 건륭 18년(1753)의 호구단자는 한성부 남부 명철방 남소문동에 거주할 때의 것이고, 건륭 27년(1762) 이후의 호구단자는 모두 공주 반포면 남산소리의 것이다. 따라서 의령남씨의 공주 거주는 남필복이 살던 시기인 1753년에서 1762년 사이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늦어도 1762년에는 공주 입향이 이루어졌으며, 입향조는 남필복으로 볼 수 있겠다. 입향 연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사패와 관련된 토지가 한양에서 공주로 입향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남필복의 배위는 전주이씨이다.

남산영당 ●●●

남산영당南山影堂은 의령남씨 종가 문중사당에 모셔져 있던 남이웅南以雄의 영정을 봉안한 사당으로 1906년에 유림들이 창건하였다. 남산영당은 전면 3칸에 측면 1칸의 맞배지붕이다. 전에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72호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세종시 문화재자료 제7호이다.



남산영당



남이응 묘소



남이웅 묘소

남이웅 영정은 4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본 영정의 좌상단 표장 비단에 “仁祖朝 振武功臣 左議政 春城府院君 南公諱以雄 字敵萬 號市北 萬曆乙亥生 丙午進士 居魁 癸丑別試文科 丙戌入相 戊子卒 丙戌畫像出本”라 되어 있어 1706년(병술)에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영정은 1646년(인조 26) 남이웅이 좌의정으로 있을 때 그린 영정을 참고하여 그린 이모본(移模本)으로 알려져 있다. 바닥에 채전(彩氈)이 깔려 있고 의자에는 호피를 걸쳤으며 두 손을 모아 공수자세를 취한 점이 17세기의 공신화상(功臣畫像)과 유사하다. 얼굴 묘사도 17세기 영정의 전형인 코와 볼에 홍조색을 올리거나 측면의 코, 정면의 눈동자로 표현되어 있다.

영당의 뒤편에는 1658년(현종 9)에 조성된 남이웅의 묘소가 있다. 그런데 지척의 위치에 있는 남이웅 묘소는 행정구역상 남산영당과 나뉘어져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속하지 않고 충청남도 공주시에 속해 있다. 능선하나를



남이웅 영정

이괄의 난 때 황주수성대장으로 도원수 장만(張晩)을 도와 공을 세워 진무공 경계로 남산영당은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로 편입되었으나, 남이웅의 묘소는 여전히 공주에 속해 있는 것이다. 영당과 묘소를 관리하는 후손이 사는 집과 관리사도 세종시에 속해 있다.

남이웅(南以雄) ●●

남이웅(南以雄)(1575~1648)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적만(敵萬), 호는 시북(市北)이다. 1606년(선조 39) 진사시에 입격하고 이듬해 왕자의 사부가 되었으며, 1613년(광해군 5)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예조좌랑, 병조좌랑, 정언, 수찬, 응교 등을 지냈으며, 1623년의 인조반정 이후에는 오위장, 황해도관향사, 안악군수, 의주부윤 등을 지냈다. 1624년



병자일기 표지와 속지

신(振武功臣) 3등 춘성군(春城君)으로 봉해졌다. 1636년 병자호란을 겪고 이듬해 소현세자가 볼모로 심양에 잡혀갈 때 우빈객으로 세자를 극진히 호위하였으며, 돌아와 춘성부원군(春城府院君)에 봉해졌다. 1646년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이 되어 민회빈 강씨의 사사를 반대하고 사직하였다. 1647년에는 좌의정이 되었으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남평조씨 병자일기 ●●●

『남평조씨 병자일기(南平曹氏丙子日記)』는 조선 인조 때에 좌의정을 지낸 춘성부원군 시북 남이웅의 처 정경부인 남평조씨가 인조 14년(1636) 12월부터 인조 18년까지 기록한 한글 필사본 일기이다. 내용은 병자호란으로 피난하는 과정에 겪은 고초와 사대부가의 소소한 일상사이고 일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다. 총 72매의 분량으로 91년에 단행본으로 간행된 일이 있다. 이것은 병자호란에 대한 기록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남이웅 가족사를 뒷받침해 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전에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教旨
南以雄為竭誠奮威振武功臣大
匡輔國崇祿大夫議政存左議政
無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傳
春城存院君者
順治五年閏三月初二日

教旨
惟卿春城君南以雄有振武三等功將逆賊
鄭允緒婢春伊逆賊李景儉奴介比知奴乙
介逆賊李遵婢莫介婢春伊婢日隱介婢日
今送賊李邦佐婢香春伊等別賜賞卿可傳
永世者
崇禎六年三月十九日



海鹽漢下齊為縣東國置羅州治北海縣尋廢宋建北海
軍并後高麗州大明省縣屬萊州在府西一百八十里界東黃海
海襟嶺其西有回頭曰玉田石有營兵舊封是太公所封志
宋有回頭也傍有細柳村兩龍處對對村之前有窟少
洞窟稱神洞窟為式化乃玉田也今以海人深遠道
東有字額者將額打烈或至遙而遠民理虛而以至今人
裏而表之有處淨石安國信之所封也尊之西有高州姜
平仲錫國交有孔文舉錫其墓北北海王校與傷處也
前有洞洞是乃營也之洞水流往此縣而為津於也縣之東
有洞洞河松樹源出樹樹山北流入海廣小海今營瑛引此流
田號營公洞山河在西一名東州河源出陰山東小風聲
光臨入海河判津則萊其東也營衛史則庄其後因
杜其修靡流飯極跨西州河源出山 諺曰凡苦入送此橋有
飯自上流而下群工取而遠充故名之瑜於堂在東南營營
若後所建詩精此補位之戰宋吳陳有記而碑刻尚存今
說牙為太公望時亭在南北對營國重德宛然成剛業在
小圃孟子時人也孔融廟在東和宋故和四年所建碑刻尚存
大明既祀有神其廟增祀北海諸賢 縣也平海城在西而
漢置縣隋時廢城亦在西而南漢置縣城舊蹟書於此西
有宋宋古揚文殿城是家痛父之非會朝夕焚香而哭柏
為之壯
昌樂
昌樂本古營也地漢高營後縣宋以此置安仁縣尋改昌
樂元置羅州大明改元昌者州自羅縣昌元里東來

- | | | |
|---|---|--------------|
| 1 | 2 | 1 고신교지 |
| | | 2 사패교지 |
| 3 | 4 | 3 병인수로조천기 표지 |
| | | 4 병인수로조천기 내지 |



議政府右議政南以輝身病三度呈辭
不允批答。
王若曰責成方專予已篤於倚毗未去盡力
卿何果於退休宜殫盡瘁之誠至使巧
閤之計惟卿整頓器局飄灑曾襟少自英
華之斐然折節勤學中年德業之成就
轉豪為端窮且益堅度昏季而敘迹亨
猶自晦過清時而韜名頃當檢擯之餘不
憚艱險之地守正純己可見操履之貞憂
國忘身無心趨諂字之託自登黃閣以後大
慰蒼生之望正色垂紳朝野倚以為重刺
繁剗劇等事賴而得宜方期庶績之咸熙何
意辭章之三至謀謀無不用也每為之虛已
以聽接遇有未誠歎追思而反躬自責用則行
而舍止頂禮古聖之言昔者進而今亡當戒鄙
賢之訓矧茲多難之日固非乞退之時上天
降災臘月之疾雷孔慘外敵伺擊島夷之
駭機可虞堂舍苟去於危疑固當勉留而夙
夜於戡安危所係者大去就不可輕神明所
扶無曰不幸有疲艱難引濟庶幾自此無憂
所辭宜不允故茲教示想宜知悉

順治四年二月初八日

議政府右議政南以輝初度呈辭
不允批答。
王若曰昨見引疾之章予甚軫念當當
藥而喜卿何控辭去就不可以輕安危
所係者重惟卿真宰相器古君子風三
載
穆陵幸素暮之無恙累長銓席果檢選之
得宜惟其盡瘁之益篤是以倚毗之尤專
典望咸歸遂登百揆之位巖瞻允協期致
二人之貞何意仰成之辰遽見告休之懇
顧勤勞夙夜之久榮衛或愆念豈第神
明之所扶掖解必致劄今時勢之同極宜
遜避而自安壯使之先聲且未宜應當
南夷之隱情匡測艱虞孔殷民生艱屨在
東山而亦起國事抗阻豈綠野之未闢年
雖已高尚善筋力之健心固不弱其憂行
步之艱即今寒盡而春生自可病蘇而氣
暢璋璣梅之調劑毋執攝攝期鼎席之賢
業蓋思共濟於戲同存止休戚我惟恃
卿敷心履歷諸卿豈棄我勉勵至意至
回悉心所辭宜不允故茲教示想宜知悉

順治四年二月初三日

1	
2	4
3	5

1 진무공신교서
2-5 불문비답 1-4

教

揚誠奮威振謀切正其穴夫春城君南以雄書

王若曰破賊除兇雖用爪牙之利與師聖冠必須清純之勤彼迷之穢爾功為大惟卿文章餘事機敏皆和中禁論兵望已著於顯牧西州聽訟積更多於龔黃雖監開塞魏餉之報委以邦家蓋德之重公私之積可哀痛昔聞斯言時貨之本有源流能盡其術頃緣邊將之毒亂而致

廟額之著黃微諸路之兵僅盈十旅之半致之食大饑三軍致民負戴而輸賴卿嗚呼遂獻鞍轡之捷智無愧於諸葛功不下於蕭何屏大樹而不言雖關已封之數使卿丈而之爵可橙進賞之規肆策勲為操武功臣三等圖形垂後起一階爵其父母妻子亦起一階無子則甥姪女婿加階嫡長世襲不失其祿宥及永世仍賜伴高四人奴婢七口丘丈二名田六十結銀二十兩表裡一段內廐馬一匹至可領也於戲形岳猷嗣名枝種鼎盟深帶礪毋負白馬之刑澤流子孫永保青氈之業故茲教示想宜知悉

一等

張脫

南以興

二等

李守一

邊滄

全慶雲

鄭忠信

全起宗

柳孝傑

李希建

議政府右議政南以雄身病再度

呈辭

不允批答

王若曰國事方艱特輔相之共濟遼章又至款誠意之未孚亟回退休之心勉副付毗之眷惟卿早著勲伐歷試險夷湖右塞帷幾多宣化之績關西典餉深得理財之方正類綱於栢臺霜威振肅清仕路於銓部水鑑公明自登黃閣以來益協蒼生之望當今腹心之托捨卿其誰幸得股肱之良舉國以聽此若擎天之柱獨立不移隱然負海之鰲自任以重何知引疾之態乃出注意之辰願精力之尚強宜思畫齊之義惟神明之所護行看勿藥之休病且未忘魏公之循國是見老而不去彥博之愛君非他况今時勢之多虞豈合相臣之求退則閣論道固無妨於經綸肩輿就班亦何勞於趨造安危所係去就奚輕於戲卿辭豈三平言不再君臣相與頌體勿武之誠休戚是同母督唯一之志所辭宜不允故茲教示想宜知悉

順治四年二月初五日

議政府右議政南以雄身病再度呈辭

不允批答

王若曰予惟圖任舊人方篤注意之眷卿何復中前懇將欲告老而歸初既諭予至懷今且勉以大義言念為邦之有道必須用賢而致治置務館於中書唐朝得重有夷吾於江左晉國無憂况當此日多難之辰又非平時無事之比遘困可慮修據何以得宜饋等相望裁者尚今未定此誠君臣上下之協力宜宜左右輔弼之巧休釋負就閭閻人情之必至鞠躬盡瘁固臣職之當然險阻艱難之備嘗己懋乃績進退存亡之所係蓋國惟終顧百責皆萃于身酬萬變或難如意年齡已暮雖未能遠登途精力尚強亦可以論道坐閱既內省而不疚自外至者何極子實知卿公無困我於戲王朝未去為德待厚之誠君典猶留更盡平格之實罔伴前哲而專美在讓後人于丕時而辭宜不允故茲教示想宜知悉

順治四年十月二十六日



예조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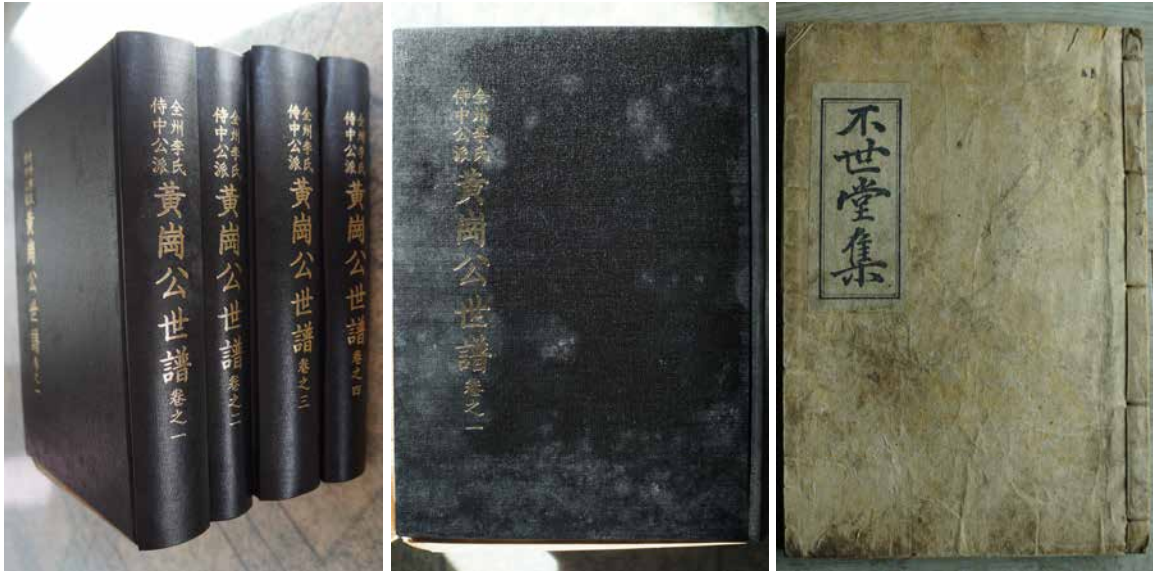
인장

제153호였던 『남평조씨 병자일기』는 현재 세종시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어 있다.

성강리 전주이씨 시중공파 ●●

성강리 전주이씨 시중공파侍中公派가 성강리에 살기 시작한 것은 이기휴로 알려져 있다. 이기휴의 6대조가 무오사화에서 희생된 한재 이목이고, 5대조가 강원도 관찰사를 지내고 청백리로 알려져 있는 이세장이다.

한재 이목이 무오사화에서 희생된 후에 어린 아들 이세장은 어머니 예안김씨와 함께 외가인 공주의 뜯밭골[浮田洞]에서 성장하였다. 이세장에게는 이견李鍵, 이란李鑾, 이기李鎬, 이견李鑿, 이철李鐵 등의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조선전기부터 공주 우정면 뜯밭골 일대[현재의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일대]에 정착하여 터전을 이루면서 살아왔고, 그의 후손들이 공주 주변 곳곳에서 왕성한 시족활동을 하면서 전주이씨 동족마을이 형성되었다.



1	2	3	1~2 전주이씨 족보
			2 전주이씨 문집

이세장의 둘째 아들 이란에게는 여섯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장남이 이구순李久洵이고, 이구순의 증손 이기휴가 성강리 입향조로 알려져 있다. 이기휴李基休(1650~1710)의 생부는 이구순의 둘째 아들 이익李楹의 장남 이장환李長煥(이기휴는 이장환의 둘째 아들인데, 이구순의 넷째 아들인 이절李稅의 아들 이시환李時煥에게 출계하였다. 그런데 이기휴 생부인 이장환의 묘소 위치는 반포면 송곡 우산봉이고, 양부인 이시환의 묘소는 반포면 봉곡리 새울 뒤편에 있는데, 이기휴의 묘소는 반포면 성강리 함전 어영골에 위치한다. 그러나 사실 봉곡리와 성강리는 이웃하는 마을로 성강리가 세종시에 편입되기 이전에는 함께 공주시 반포면에 속했던 마을이다. 이제 세종시가 되면서 서로 관할지역을 달리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역사적으로는 한 지역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곳이다.



1	2
3	4
5	6

1-2 불세당 재실과 신도비
3-6 불세당 이기휴 묘소

이기휴의 자는 자부子孚, 호는 불세당不世堂이다. 성품이 순효강직하여 시속을 멀리하고 시와 술을 즐겼으며, ‘불세당’이라는 호에 걸맞게 벼슬을 권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불세당 유고집 1권이 있으며, 괘시징郭始徵(1644~1713)이 찬한 제문[祭李子孚文]이 있다고 한다. 입향조인 이기휴의 묘소에는 신도비, 상석, 석주 등이 있다.

성강리 진주강씨 ●●●

성강리라는 지명은 성으로 강姜자를 쓰는 진주강씨들이 터전을 잡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진주강씨 입향조는 앞서 소개한 전주이씨 입향조와 입향시기를 같이하며 이기휴와는 의형제를 맺어 서로 윗말과 아랫말에 나누어 살았다는 전언이 있다.

진주강씨 문중에서 입향조라고 일컫는 인물은 가선대부 한성좌윤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지낸 강일姜逸이다. 생몰년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초창지에 있었다는 상석에 병오丙午라는 년도와 형님 아우로 지냈다는 전주이씨 이기휴의 생몰년을 토대로 추정해 보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를 살았던 인물로 입향시기도 17세기 말로 볼 수 있다.



성강리 진주강씨

금남면 원봉리



조사대상 진주류씨

금남면 원봉리元峰里는 조선후기에 공주목 반포면에 속해 있었다. 조선말기에는 공주군 반포면 지역이었고,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는 반포면 은계리隱溪里와 주곡리舟谷里가 통합되어 원봉리로 개편되었다. 이후 1995년에 공주군이 공주시와 통합되면서 공주시 반포면 원봉리가 되었다가, 2012년 7월 세종시에 편입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가 되었다. 산 봉우리가 둥그스름한 두리봉이 있어서 원봉圓峰이라 하였다고 한다.

원봉리의 남부와 서부·동부로는 해발 고도 200여m와 100여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동부에는 당고개가 있다. 중부로는 원봉천元峰川이 동서 방향으로 흐르며, 해발 고도 40여m에 형성된 충적 평야가 있고, 서부와 북부로는 해발 고도 40여m에 형성된 충적 평야가 펼쳐져 있다. 원봉천 연변의 평야는 벼농사 지대이며, 산기슭은 밭농사 지대이다. 하천 연변과 평야 지대에 교동·원봉·행정·주곡 등의 마을이 들어서 있다.

『한국지명총람』[공주군 반포면 원봉리]에서 확인되는 마을 이름으로는 반개반



원봉리

포, 반개, 배골[주곡], 오룡골[오룡동, 오룡], 행정[은계], 향교골[향교동, 교동] 등이 있는데, 각 마을의 설명은 주로 원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개[반포, 반개]는 원봉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남쪽에 불티가 있고 북쪽에 금강이 흐르는데, 백제 때 고을터라 하였으며, 조선에서는 면의 이름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오룡골[오룡동, 오룡]은 원봉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오룡쟁주형의 명당이 있다고 하고, 행정[은계]은 원봉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은행나무 정자가 있으며, 향교골[향교동, 교동]도 원봉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백제 때 향교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 행정 남쪽에 있는 마을인 배골[주곡]은 지형이 배와 같다 하며, 당시에 우물을 파지 않고, 흐르는 냇물을 식수로 쓰고 있다고 하였다.

원봉리 진주류씨 ●●●

원봉리 진주류씨는 장군면 하봉리에서 조사되었던 유형 장군의 후손들이다.

원봉리 생교골에 정착한 진주류씨는 유형 장군의 둘째 아들인 유신걸柳信傑(1604~1636)의 고손자인 유욱기가 입향조이다. 유욱기柳煜基(1711~1799)의 자는 광여光汝이고 초휘는 광기廣基이다. 후손이 귀하게 되어 승지에 증직되었다. 유욱기의 고조부 유신걸의 묘소는 공주 의랑면 모곡, 증조부 유비연柳斐然(1627~1685), 조부 유성노柳星老(1648~1725), 부 유봉장柳鵬章(1681~1741) 등의 묘소는 공주 반포면 거곡리에 있는데 반해, 유욱기의 묘소는 반포면 원봉리에 위치한다. 유욱기의 초배위는 밀양박씨로 생원 박영석의 딸이며, 후배위는 안동김씨이다. 자식은 모두 1남 1녀이다. 유욱기는 금남면 영곡리의 한림학사 신존미와도 동문수학하던 사이였다고 한다.

원봉리 진주류씨 거꾸리의 입향조는 유충걸의 6세손인 유길원柳吉源(1782~1851)이다. 유길원의 증조부 유몽장柳夢章(1687~1746)의 묘소는 장척면



1	
2	3
4	5
6	7

- 1 원봉리 진주류씨 구축보
- 2-3 원봉리 진주류씨 신축보
- 4-7 원봉리 진주류씨 문중자료들





원봉리 진주류씨 문중임야도

효제동, 조부 유건기(柳健基(1711~?)), 부친 유진위(柳鎭緯(1740~1793))의 묘소는 갈산 선영인데 반해, 유길원의 묘소는 공주 반포면 등현 황조봉이다. 유길원의 자는 여주(汝周), 배위는 전주이씨이다.

이와 같이 원봉리 진주류씨는 공주 장기면(현 세종시 장군면)에서 연기군 남면 송담리로 다시 반포면이었던 원봉리(현 세종시 금남면 원봉리)로 터전을 옮기며 살아왔다. 원봉리에서는 250여년이 넘는 기간을 정착해 살아왔다.

집안에는 현 후손의 5대조인 유극노가 55세 때 문중에 전해 내려오던 각각의 자료들을 모아 정리한 계유보(奚酉譜(계유년은 1873년))와 가승보, 파보, 세보, 사례축문

四禮祝文 등의 자료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금남면 집현리는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금남면에 새로 등장한 행정동리이다. 동리의 명칭을 세종의 업적중 하나인 집현전集賢殿에서 따왔다고 한다. 집현리의 지역 범위는 종전의 연기군 금남면 황룡리, 석교리 일부와 부용리, 봉기리 일부가 합쳐져 집현리가 되었다. 대학교 및 연구 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집현리의 옛이야기는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1편 황룡, 석교, 부용, 봉기리 편에서 찾을 수 있다.



조사대상

전동면 심중리 보성오씨는 판관공파判官公派이다. 후손이 1989년에 간행된 족보인 『보성오씨세보寶城吳氏世譜』를 소장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확인해 보면, 입향조는 오숙노로 추측된다. 족보의 기록에 의하면, 오숙노吳淑老는 호조참의행사직을 지냈다고 하며, 배위는 단양우씨이다. 오숙노의 증조부인 오연찰吳延札의 묘소는 보산원리산, 조부인 오집吳執의 묘소는 아산, 부친 오엄吳儼의 묘소는 청주시 명암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 오숙노의 묘소는 강외면 심중리에 위치한다. 따라서 묘소의 위치에 근거한다면 오숙노가 심중리 입향조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이상의 인물들에 대해 족보에는 생몰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향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오숙노의 외아들인 오자형吳自瑩에게 다섯명의 아들이 있고, 오자형의 넷째 아들인 오세우吳世佑가 문과에 급제하고 사간원 정언 벼슬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현존 문과방목과 사마방목, 중종실록 등에서 오세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찾을 수 있다.

오세우의 생몰년은 자세히 알 수가 없으나, 자는 군경君卿이고, 본관은 보성寶城이며, 아버지는 오자영吳自瑩, 할아버지는 오숙노吳淑老, 증조할아버지는 오엄吳儼이다. 1513년(중종 8) 식년시에서 생원 3등 26위, 진사 3등 16위로 생원·진사 양시兩試에 모두 합격하였으며, 1531년(중종 26)에는 식년시 문과에서 감역관監役官의 전력으로 병과 4위(33명의 합격자 가운데 14등)에 급제하였다. 이후 오세우는 1534년(중종 29)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에 임명되었



1	2
3	5

- 1 전동 심중리 보성오씨 묘역
- 2 오숙노묘소 오숙노는 보성오씨 전동면 입향조이다.
- 3, 4 오숙노 묘비
- 5 전동 심중리 보성오씨 족보

으나, 사헌부 헌납司憲府獻納 소봉蘇逢이 오세우가 간원의 일을 정계停啓할 때 정언 채낙蔡洛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소를 올려 체직되었다. 1534년(중종 29) 경상도 어사慶尙道御史로 옥포玉浦에서 성문을 잠그고 시간을 지체한 일에 대하여 상소하였고, 그 결과 옥포만호가 파직되었다. 1537년(중종 32)에는 시강원 사서侍講院司書로 재직 중에 서경書經을 넘겼다는 이유로 체직되었다.

이상 오숙노의 손자인 오세우의 활동시기에 비추어 볼 때, 오숙노의 생존시기는 15세기 후반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심중리 입향시기도 그 즈음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조선왕조실록』
『문과방목』
『사마방목』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구총수』
『충청도읍지』
『조선환여승람』
『연기읍지』
『연기지』, 1934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조선총독부 편, 1912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1917
『한국지명총람』 4(충남편 상·하), 5(충북편), 한글학회, 1974
문중소장 족보
- 『조치원읍지』, 조치원읍지편찬위원회, 2012.
『공주의 전통마을』 1~10, 공주문화원, 2001~2011.
『무인 기상 드높인 충의 가문 진주류씨』, 공주문화원, 2009.
『연기군지』, 연기군지편찬위원회, 1998.
『연기군 충·효·열 유적』, 공주대학교박물관·연기군, 1998.
『공주의 충·효·열 유적』, 공주문화원, 2000.
『연기실록』, 연기군, 1981.
『문화유적 분포지도』, 연기군, 충청남도, 2004.
『공주주의 명가』, 공주박물관, 2009.
『부용면지』, 청원군 향토문화 연구회, 1993.
『부용이야기』, 부용면/(재)충청북도 문화재 연구원, 2010.

□ 도움을 주신 분

강희수(70세. 금남면 성강리)
김계식(78세. 부강면 문곡리)
김은희(50세. 부강면사무소)
남신현(62세. 금남면 성강리)
류총희(51세. 금남면 원봉리)
오민교(70세. 전동면 심중리)
윤여홍(75세. 조치원을 원리)
이낙규(62세. 금남면 성강리)
이승우(85세. 조치원을 신흥리)
임형수(80세. 조치원을 번암리)
최병재(70세. 조치원을 봉산리)
최종근(84세. 부강면 금호리)
한상교(85세. 조치원을 번암리)

곽창록(82세. 부강면 부강리)
김영구(76세. 부강면 부강리)
김지연(53세. 부강면 부강리)
류근정(77세. 금남면 원봉리)
박성태(81세. 부강면 갈산리)
오인수(87세. 부강면 부강리)
이기환(56세. 조치원을 신안리)
이상운(75세. 조치원을 신흥리)
이정우(64세. 부강면 문곡리)
정복영(79세. 부강면 문곡리)
최익현(56세. 금남면 봉암리)
최주현(65세. 조치원을 죽림리)

4년간에 걸쳐서 세종시(연기군) 지역의 마을과 성씨를 조사하였으며, 이번에는 그 마지막 결과물인 『세종시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IV』(조치원읍·부강면·보유편)를 발간한다. 당초 나의 계획은 이 사업에 한두 해 참여하고, 이후에는 지역 향토사학자들이 주도하여 진행되기를 원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결국 전 과정을 책임 맡게 되었다. 새벽에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 하루 종일 현지조사를 한 후에 밤늦게 돌아오는 일들이 나로서는 쉽지 않은 않았다. 결과물에 부족함은 많지만 끝내고 나니 마치 먼 여행을 다녀온 듯하다. 이번에도 현장조사는 4년간 참여한 강현숙·남정환 조사위원과 1차년도에 함께했던 윤윤희 조사위원이 동참했다. 우리들은 지난 4년간 한여름의 무더위와 초겨울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 나름대로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찾아다니고, 조사하고, 사진을 찍고, 집필을 했으나, 시간에 쫓기고 일부는 찾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조사 결과에는 미흡한 점도 많을 것이다. 이는 추후에 보완되기를 바란다.

나는 외지인으로서 그동안 조사위원들과 세종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세종시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며, 기억에 남는 일도 많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학원 시절인 1980년대 말에 도서관 한편에 꽂혀 있던 케케묵은 『윤문학사유고』를 발견하고 복사해 읽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저자인 윤문학사가 세종시 연서면 출신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고 깜짝 놀랐다.

윤문학사, 즉 윤용균(尹瑯均, 1903~1931)은 1903년 12월 30일에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봉암리 408번지에서 윤병주씨의 막내로 태어났다. 이후 연기공립보통학교(1915~1919)를 졸업하고,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1919~1923),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1924~1927)를 거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사학과에서 조선사학을 전공(1927~1930)하였으며, 조선사편수회에서 촉탁직으로 근무하던 중, 1931년 9월 4일 향년 29세로 서거하였다. 학부를 막 졸업한 학사에 불과했으나 당시에 이미 『주자학의 전래와 그 영향에 대하여』(상편 주자학의 전래, 중편 주자학의 전래와 척불론, 하편 주자학의 융성과 이조초기의 사상통일정책)라는 장편의 졸업논문(1930년 1월 제출)을 발표하였으며, 이후에도 『고려 의증기 정중부란의 소인과 그 영향』(1930년 11월 『청구학총』 제2권에 수록), 『다산의 정전고』(1930년 7월 『신

흥』 제3호, 1931년 1월 『신흥』 제4호에 나누어 수록) 등과 같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논문을 저술하여 발표한 사학계의 수재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지나치게 학문연구에 몰두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요절하였다. 이를 매우 애석하게 여긴 경성제대의 은사 이마니시 류(今西龍, 1875~1932)와 오다 쇼고(小田省吾, 1871~1953), 동료인 신석호(申奭鎬, 1904~1981)와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1904~1992) 등이 주도하여 1933년 3월에 그의 유고집 『윤문학사유고』를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학부 졸업생의 학력인데도 유고집이 출판된 사례는 아마 흔치 않을 것이다.

윤용균은 그만큼 당시에 역사학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고 있었으며,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였다. 그런데 아까운 그 주인공 윤용균이 바로 연기(세종시) 출신이었고, 더군다나 함께 조사를 다닌 윤윤희 위원이 윤용균의 손녀라는 사실을 4년간의 조사가 끝나가면서 알게 되었다. 3차년도 조사이역인 연서면을 조사할 때에도 미처 알지 못했었기에 조사후기에 몇 자 적음으로써 아쉬움을 달랜다.

조사책임자 임선빈

『세종시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마지막 작업인 4권이 마무리 되었다. 좀더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출판사로 보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는 것이 편치 않다. 모자란 사진 확보를 위해 마을을 돌다가 꼭 남겨야 할 문중인데 정보와 시간의 부족으로 조사하지 못한 문중과 유적이 있음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각 마을과 면 단위의 기록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어느 곳엔가는 그들의 기록이 남겨질 것이라고 위안을 삼고 아픈 가슴을 달래었다. 성실하게 객관적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로 인해 서운해 할 문중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조사와 정리과정에서의 쉽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고, 훗날 우리지역 뿌리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참고가 될 자료로 오래 기억된다면 가문의 영광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조사위원 강현숙

2011년 부터 2014년 까지 4년간에 걸쳐서 연기군(세종시) 뿌리를 찾아서 함께 참여하여 조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조건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신 문화원 임영이 원장님을 비롯하여 사무국장님 그리고 임직원님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임선빈 박사님의 지도 아래 세종시 문화해설사 강현숙님, 역사문화향토 연구위원 윤윤희님 같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질문, 상담, 기록, 촬영, 방문, 협조, 보고 등 모든 위원이 하나가 되어 하나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음을 감사 드립니다.

이 사업에 동참 협조 하신 각 면·동·리장님과 성씨 문중 그리고 역사적 기록물 등을 협조, 제공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세종시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전4권이 우리지역 뿌리를 기억하는 참고서가 되어 줄 것을 기대 합니다.

조사위원 남정환

이 책 제1권 조사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번 제4권 조사에도 함께 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처음과 끝’의 팀원으로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의미를 두고 싶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을 가볼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2~3년 전 처음 조사 때 보다 상당히 달라진 세종시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러한 모습이 편리한 도시적인 발전이라 좋기도 하면서도 안타까움이 밀려옴은 어쩔 수 없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삶의 터전이 ‘문화와 역사가 깃든 향기 나는 동네’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조사를 위해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조사위원 윤윤희

세종시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Ⅳ)
- 조치원읍 · 부강면 · 보유편

2014년 12월 20일 인쇄
2014년 12월 30일 발행

집 필 : 임선빈
사 진 : 강현숙
조 사 : 임선빈 · 강현숙 · 남정환 · 윤윤희
발 행 : 세종문화원
인 쇄 : 민속원

본 책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세종문화원에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전재를 금합니다.